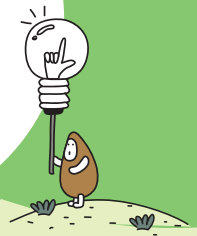


# 정답친해



|      |             |     |
|------|-------------|-----|
| I    | 한문의 기초      | 238 |
| II   | 성어의 이해와 활용  | 238 |
| III  | 속담과 격언      | 239 |
| IV   | 일화와 인물      | 241 |
| V    | 한시 감상       | 242 |
| VI   | 전통문화와 역사 인식 | 244 |
| VII  | 철학 고전 읽기    | 245 |
| VIII | 한문 산문 감상    | 247 |

## I 한문의 기초

### 시험 대비 문제

24~25쪽

- 01 ③      02 해설 참고      03 ⑤      04 ④  
05 ②      06 ②      07 ㉠ 뿌리, ㉡ 근본      08 새  
가 입으로 옮.      09 ①      10 ㉠ 刀, ㉡ 手  
11 ③      12 耳, 目      13 ⑤      14 ②      15 ②  
16 (1) 달이 밝음. (2) 밝은 달.      17 ⑤      18 ④

- 01 우리나라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뒤에도 한자를 주요한 문자 도구로 사용하였다.  
02 원활한 언어생활, 한자 문화권의 소통과 교류, 건전한 가치관 및 바람직한 인성 함양,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04 ① 禾(화) 벼, ② 知(지) 알다, ③ 占(점) 점, ⑤ 斤(근) 도끼  
05 받침은 나중에 쓴다.  
06 ① 魚(어) 물고기, ② 龜(귀) 거북, ③ 馬(마) 말, ④ 象(상) 코끼리, ⑤ 弔(조) 조문하다  
08 口(구) 입 + 鳥(조) 새 = 鳴(명) 울다 → 새가 입으로 옮.  
09 言(언) 말쑥 + 丁(정) 빗짜 천간 = 訂(정) 바로잡다  
水(수) 물 + 共(공) 함께 = 洪(홍) 큰물, 넓다  
11 한자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음과 뜻으로 쓰인다. 更(갱) 다시, (경) 고치다, 시각 / 降(강) 내리다, (향) 행복하다.  
㉠ 更生(갱생), ㉡ 乘降(승강), ㉢ 投降(투항)  
12 耳聞目見(이문목견):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  
13 ⑤ 遷[옮기다(서술어)] + 都[도읍을(목적어)], ① 日[해가(주어)] + 出[뜨다(서술어)], ② 人[사람이(주어)] + 造[만들다(서술어)], ③ 歸[돌아가다(서술어)] + 家[집에(보어)], ④ 渡[건너다(서술어)] + 江[강을(목적어)]  
14 良藥, 苦於口(양약, 고어구): 좋은 약은 입에 쓰다.  
15 而是 '그러나'의 의미로 쓰였다. 자식[子]이 봉양[養]하고 자[欲] 하나[而] 부모님[親]은 기다려[待] 주시지 않는 [不]다[也].  
16 한자는 단어나 문장 안에서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풀이된다. 明은 (1)에서는 서술어로, (2)에서는 수식어로 쓰였다.  
17 ⑤ 招[부르다] + 聘[부르다] - 병렬 관계, ① 品貴(품귀): 물건이 귀함. - 주술 관계, ② 日出(일출): 해가 뜬. - 주술 관계, ③ 人造(인조): 사람이 만들. - 주술 관계, ④ 夜深(야심): 밤이 깊음. - 주술 관계  
18 ㉠은 서술어이다. (가) 학문은 이루기가 어렵다. (나)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

## II 성어의 이해와 활용

### 03 성어 입문

#### 소단원 평가 문제

35쪽

- 01 ②      02 ①      03 ②      04 ②      05 ④

- 01 ㉠ 足球: 발로 공을 차서 겨루는 경기. ㉡ 不足: 충분하지 않음. ㉢ 蛇足: 뱀의 발.  
02 異議(이의), 異邦人(이방인). ① 異(이) 다르다, ② 同(동) 같다, ③ 翼(익) 날개, ④ 共(공) 함께, ⑤ 田(전) 밭  
03 我田引水(아전인수):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04 臨機應變(임기응변):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  
05 (가) 용문에 오름.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게 됨. 또는 그 관문. (나)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남.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 (다) 비단 위에 꽃을 더함.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 (라) 쇠귀에 경 읽기.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이르는 말.

### 04 역사 속의 성어

#### 소단원 평가 문제

43쪽

- 01 ①      02 ③      03 ②      04 ④      05 ②  
06 ④

- 01 ②와 ⑤는 '죽다', ③과 ④는 '달아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① 멸망, ② 망혼, ③ 도망, ④ 망명, ⑤ 망령  
02 白眉(백미)는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통하는 성어는 拔群(발군), 傑出(결출), 壓卷(압권)이다. 脅迫(협박)은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함.'을 뜻한다.  
03 물[水]을 등지고[背] 치는 진[陣].  
04 (라) 唇亡齒寒(순망치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림. 즉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  
05 (가) 完璧(완벽): 결함이 없이 완전함. (다) 咸興差使(함흥차사): 심부름을 가서 오지 않거나 늦게 온 사람.  
06 ④ 마량의 눈썹 가운데 흰 털이 있어서, 이런 까닭으로 그렇게(백미라고) 불렸다. ① 마량의 형이 다섯 명이 아니라, 마 씨 형제가 모두 다섯 명이다.

## 05 비유가 담긴 성어

소단원 평가 문제

51쪽

01 ③      02 ⑤      03 ①      04 ④      05 ④

- 01 ③ 守(수) 지키다 - 衛(위) 지키다, ① 添(첨) 더하다 - 減(감) 덜다, ② 副(부) 버금 - 削(삭) 깎다, ④ 左(좌) 왼쪽 - 右(우) 오른쪽, ⑤ 賤(전) 천하다 - 待(대) 기다리다
- 02 ㉠ 成長勢(성장세): 어떤 일이나 상태가 자라 가는 형세.  
㉡ 委員長(위원장): 위원 가운데 우두머리.
- 03 胡蝶夢(호접몽): 나비에 관한 꿈. 인생의 덧없음.
- 04 (가) 토끼[兔]를 기다리다[待], (나) 산[山]을 옮기다[移], (다) 검[劍]을 구하다[求], (라) 변방[塞] 늙은이[老]
- 05 시대는 이미 변화였는데 법은 변하지 않았으니, 이것[此]으로써[以] 정치[治]를 한다면[爲]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시험 대비 문제

54~55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⑤      05 ②  
06 ①      07 ⑤      08 ②      09 ⑤      10 ③  
11 ②      12 ①      13 ⑤      14 ③      15 ②  
16 ④      17 馬良      18 해설 참고

- 01 ㉠ 異(이) 다르다, ㉡ 陳(진) 늘어놓다
- 02 ㉢ 待機(대기)-기다리다. 滅亡(멸망), 亡魂(망혼), 逃亡(도망), 賤待(천대)
- 03 [가로] 削減(삭감), [세로] 添削(첨삭)
- 04 蝶(접) 나비, 蜂(봉) 벌, 螢(형) 반딧불이  
ㄱ - 蝶泳(접영), ㄴ - 蜂起(봉기), ㄷ - 踏查(답사),  
ㄹ - 螢光燈(형광등)
- 05 제시된 성어는 九死一生(구사일생)과 四面楚歌(사면초가)이다. 九(9)+四(4)=13.
- 06 壓卷(압권), 傑出(결출)
- 07 同床異夢(동상이몽): 같은 자리 다른 꿈.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판생각을 하고 있음.
- 08 글에서 할머니는 쇠 절굿공이를 날마다 갈아 바늘로 만들고자 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글은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의 ② 愚公移山(우공이산)과 관계있다.
- 09 長蛇陣(장사진), 一長一短(일장일단)
- 10 脣[입술] → 亡[없어지면] → 齒[이가] → 寒[시림]
- 11 徹頭徹尾(철두철미): 머리[頭]부터 꼬리[尾]까지 모두 통함[徹].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 12 (가)의 長(장)은 '자라다'의 의미이다. 助長(조장): 자라

는 것을 도움.

- 13 指鹿爲馬(지록위마)는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다. ⑤에는 문맥상 '심부름을 가서 오지 않거나 늦게 온 사람'을 뜻하는 咸興差使(함흥차사)가 알맞다.
- 14 ① 蛇(사) 뱀, ② 狐(호) 여우, 虎(호) 호랑이, ④ 鹿(록) 사슴, 馬(마) 말, ⑤ 兔(토) 토끼
- 15 항우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자신의 의지를 병사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러한 항우의 행동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더는 물러설 수 없음'을 뜻하는 背水陣(배수진)과 관계있다.

### [16~17] 풀이

(가) 시대는 이미 변화였는데 법은 변하지 않았으니, 이것으로써 정치를 한다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나) "마 씨의 다섯 형제 중에 '백미'가 가장 뛰어났다."라고 하였으니, 마량의 눈썹 가운데 흰 털이 있어서 이런 까닭으로 그렇게 불렀다.

- 16 最良(최량): 가장 뛰어나다.
- 17 良은 馬良(마량)의 이름을 줄여서 나타낸 것이다.
- 18 塞翁之馬는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고 풀이하며,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 Ⅲ 속담과 격언

### 06 속담에 담긴 지혜

소단원 평가 문제

65쪽

01 ③      02 ②      03 ②      04 ②      05 ③  
06 ⑤

- 01 ③ 飢(기) 굶주리다 - 餓(아) 굶주리다, ① 往(왕) 가다 - 來(래) 오다, ② 湯(탕) 끓이다 - 藥(약) 약, ④ 確(확) 굳다 - 率(률) 비율, ⑤ 立(립) 서다 - 臥(와) 눕다
- 02 ② 飯(반) 밥. 朝飯(조반), 麥飯石(맥반석)
- 03 ㉠은 '공[功]을 쌓다[積]'로, 뒤에 있는 한자부터 풀이한다. ㉡의 不屈(불굴)도 '굽히지[屈] 않음[不]'으로, 뒤에 서부터 풀이한다.
- 05 ㉠ 거느리다, ㉡ 아이, ㉢ 굴, ㉣ 눕다
- 06 (마)는 3일이 걸리는 일을 하루 만에 끝내려다가 도리어 해를 입었다는 뜻이므로, 제시된 중국 속담과 의미가 통한다.

## 07 내면을 밝히는 글

### 소단원 평가 문제

73쪽

01 ② 02 ⑤ 03 ④ 04 ⑤ 05 ④

06 更鳴, 울음소리를 고치다.

- 01 홀로[獨(독)] 있을 때에도 삼가다[愼(신)].  
 02 衆寡不敵(중과부적): 적은 수효로 많은 수효를 대적하지 못함.  
 03 子(자)는 ‘너’라는 뜻으로 쓰인다. 我(아) 나, 予(여) 나, 吾(오) 나  
 04 ‘不知不及於人’은 문맥상 ‘남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로 풀이되므로 ㉠에는 ‘~에게’의 의미를 지닌 於(어)가 알맞다.  
 05 ㉠ 惡(오) 싫어하다, ㉡ 更(경) 고치다

## 08 관계를 밝히는 글

### 소단원 평가 문제

81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④ 05 ①

06 ①

- 01 ① 호언, ② 과언, ③ 예언, ④ 확언, ⑤ 교언  
 02 ㉠ 금석이나 옥구슬보다, ㉡ 세력으로써 사귀는 사람.  
 03 남[人]이[之] 나[我]를 의심하는[疑] 것[者].  
 04 대감이 죽은 뒤에는 그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으나 대감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대감 집 말이 죽으면 대감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조문을 간다는 뜻이다.  
 05 ① 부활, ② 광복, ③ 복구, ④ 회복, ⑤ 복습  
 06 도끼 주인의 잘못은 이웃집 아들을 疑心(의심)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 시험 대비 문제

84~85쪽

01 ① 02 ① 03 ④ 04 ⑤ 05 ②  
 06 ③ 07 일일왕 08 ② 09 ④ 10 ③  
 11 ② 12 해설 참고 13 ② 14 ④  
 15 ⑤ 16 ④ 17 ③ 18 ④

- 01 ① 식경, ② 허기, ③ 포화, ④ 기아, ⑤ 분식  
 02 [가로] 巧言令色(교언영색), [세로] 確言(확언)  
 03 열 그릇의 밥에서 한 숟가락씩 덜면 다시 한 그릇의 밥이 된다. 즉 이 글은 여럿이 각각 조금씩 도와주어 큰 보탬이 된다는 뜻으로, 협동을 강조하고 있다.  
 04 사람의 근심(憂)은 항상 내가 남보다 뛰어난 것은 알되,

남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데 있다.

05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 없다.

[06~07] 풀이

삼 일의 길을 하루 만에 가고 열흘 동안 눕는다.

06 삼 일[三日]의[之] 길[程].

07 3일이 걸리는 길을 하루 만에 가려고 서두르다가 도리어 열흘을 몸져누웠으므로,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통하는 것은 ‘일일왕[一日往: 하루 만에 가다.]’이다.

[08~09] 풀이

(가) 아이가 (등에) 업혀 있는데, 삼 년 동안 찾는다.  
 (나) 남에게 (좋은) 말을 주는 것이 금석이나 옥구슬보다 소중하다.

09 重(중)은 주로 ‘무겁다’, ‘무게’, ‘중요하다’, ‘소중하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여기서는 ‘소중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10~11] 풀이

(가) 남이 나를 의심하는 것은 (나의) 평소 행동이 남에게 믿음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 세력으로써 사귀는 사람은 세력이 기울어지면 끊어지고, 이익으로써 사귀는 사람은 이익이 다하면 흩어진다.

10 ㉠ 남이 나를 의심하는 것[者], ㉡ 세력으로써 사귀는 사람[者]

11 이익[利]이 다해[窮]면[則] 흩어진다[散].

[12~13] 풀이

울째미가 말하기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의 울음소리를 싫어하여, 이 때문에 동쪽으로 이사 간다.” 비둘기가 말하기를, “네가 울음소리를 고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울음소리를 고칠 수 없다면 동쪽으로 이사 가더라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너의 소리를 싫어할 것이다.”

12 사람들이 자신의 울음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13 네[子]가 울음소리[鳴]를 고칠[更] 수 있다면[能].

[14~15] 풀이

마땅히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겉과 속을 한결같이 하라. 어두운 곳에 거처해도 환한 것처럼 하고 혼자 거처할 때에도 여럿이 있는 것처럼 하라.

14 어두운 곳[幽]에 → 거처해도[處] → 환한 곳[顯] → 처럼[如] 하고.

15 衆(중) 무리, 많은 사람

[16~18] 풀이

(가)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남을 꾸짖는 데는 밝고, 비록 총명함이 있더라도 자기를 용서하는 데는 어둡다.



(나) 다른 날 다시 그 이웃의 아들을 보니, 동작과 태도가 도끼를 훔친 사람 같지 않았다. 그 이웃의 아들이 변한 것이 아니요, 자기가 변한 것이다. 변한 것은 다른 것이 없으니 (자기에게) 허물된 바가 있는 것이다.

- 18 己(기)는 ‘도끼 주인’을 가리킨다. ‘그 이웃의 아들이 변한 것이 아니요, 자기[己]가 변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변한 것은 도끼 주인임을 알 수 있다.

## IV 일화와 인물

### 09 김 선생의 재치

소단원 평가 문제

95쪽

- 01 ⑤    02 ①    03 ⑤    04 ③    05 ⑤  
06 ③    07 ①

- 01 ① 倣(방) 본뜨다, ② 訪(방) 찾다, ③ 妨(방) 방해하다,  
④ 芳(방) 꽃답다, ⑤ 傍(방) 곁  
02 召集(소집), 號召(호소)  
03 ㉠ ~사람, ㉡ 잘하다, ㉢ 일찍이, ㉣ 전혀  
04 耳(이)는 보통 ‘귀’로 풀이되지만 여기서는 惟(유)와 함께 쓰여 ‘오직 ~할 따름이다’로 풀이된다.  
05 무엇[何物]을 타[騎]고[而] 돌아가려는가[還]?  
06 닭을 잡아 안주로 내놓으라는 뜻을 ‘닭을 빌려서 타고 가겠다.’는 말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7 之는 대명사로 쓰여 ‘그’로 풀이되며 김 선생을 가리킨다.

### 10 예술가의 열정

소단원 평가 문제

103쪽

- 01 ①    02 ②    03 ④    04 ①  
05 畫家    06 ④

- 01 殺(살) 죽이다, (쇄) 빠르다, 탈다. ① 살균 - 쇄도, ② 습득 - 수습, ③ 해당 - 담당, ④ 필경 - 검사필, ⑤ 전답 - 천수답  
02 ㉠ 所在: 있는 곳, ㉡ 所謂: 이른바  
04 將[將] 그[之]를(학산수를) 죽이려[殺] 하였다.  
05 畫家(화가): 그림 그리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06 이징과 학산수는 모두 영예나 치욕은 잊은 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만 몰입하였다. ① 구류, ② 제출, ③ 회사, ④ 물입, ⑤ 시권

### 11 김만덕의 나눔

소단원 평가 문제

111쪽

- 01 ④    02 ⑤    03 ④    04 ①    05 ③  
06 ⑤

- 02 長은 길다, 자라다, 뛰어나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여기서는 ‘재물을 불리는 데에 뛰어나다[長]’로 풀이된다.  
03 천금[千金]을 내어[捐] 쌀[味]을 사다[買].  
04 쌀의 10분의 1을 친족을 위해 쓰고, 나머지를 전부 백성을 위해 관가에 주었으므로 만덕의 행동은 ‘寄附(기부)’라는 말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 ② 점차, ③ 약어, ④ 매출, ⑤ 탐욕  
05 만덕은 쌀의 10분의 1을 친족에게 주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보냈으므로, 90%를 관가에 보낸 것이다.  
06 글에서 만덕은 재물을 불리는 데에 뛰어나다고 하였으므로 만덕의 재능과 가장 가까운 직업은 ‘기업가’이다.

시험 대비 문제

114~115쪽

- 01 ⑤    02 ②    03 ①    04 ⑤    05 ②  
06 ②    07 ④    08 ③    09 兼味    10 ③  
11 ①    12 ③    13 ④    14 ⑤    15 ②  
16 ②    17 ③    18 ⑤    19 해설 참고

- 01 ㉠ 시권, ㉡ 제출, ㉢ 휴대, ㉣ 영예  
02 民謠(민요), 歌謠(가요), 絃樂器(현악기)  
03 同病相憐(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04 배[腹]를 안고[抱] 넘어질[絶倒] 정도로 몹시 웃음. ① 담소, ② 폭소, ③ 초상화, ④ 파안대소

#### [05~10] 풀이

김 선생이라는 사람은 우스갯소리를 잘하였다. 일찍이 친구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주인이 술상을 차리되 단지 채소만을 안주로 삼고, 먼저 사과하여 말하기를, “집이 가난하고 시장이 멀어 맛있는 음식이 전혀 없고, 오직 담백하니, 이것이 부끄러운 따름이네.”라고 하였다. 마침 여러 마리 닭이 있어 뜰에서 어지럽게 (모이를) 쪼았다. 김 선생이 말하기를, “대장부는 천금을 아끼지 않으니 마땅히 내 말을 베어 술안주로 삼겠네.”라고 하였다. 주인이 말하기를, “한 마리(뿐인) 말을 배면 무엇을 타고 돌아가려는가?”라고 하니, 김 선생이 말하기를, “닭을 빌려서 타고 돌아가겠네.”라고 하였다. 주인이 크게 웃으면서 닭을 잡아 그에게 대접하였다.

- 05 일찍이[嘗] 친구[友人]의 집[家]을 방문하다[訪].
- 07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임으로, ‘?’를 쓰는 것이 알맞다.
- 08 친구가 김 선생에게 “말을 잡으면 무엇을 타고 가려는가?”라고 한 것과, 마지막 문장에서 ‘닭을 잡아 그에게 대접하였다.’라는 문장을 통해 김 선생이 “닭을 빌려 타고 돌아가지.”라고 대답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 10 ③ ‘소재’로 읽는다. 蔬(소) 푸성귀, 菜(채) 나물

#### [11~13] 풀이

이징이 어렸을 때 다락에 올라가서 그림을 익히니, 집안 사람들이 그가 있는 곳을 모르다가 3일 만에 비로소 찾았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를 매질하였는데, (그가) 울면서 눈물을 끌어당겨 새를 그리니, 이것은 그림 그리는 것에서 영예와 치욕을 얻은 것이라고 이를 만하다.

- 11 울면서 눈물을 끌어당겨 새를 그린 사람은 이징(李澄)이다.
- 13 이징은 눈물로 새를 그렸다. ① 李(리) 자두나무, 성, ② 失(실) 잃다, ③ 笞(태) 매질하다, ④ 淚(루) 눈물, ⑤ 辱(욕) 욕되다

#### [14~16] 풀이

학산수는 온 나라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그가) 산에 올라가 연습할 때, 매번 한 곡이 끝날 때에 모래를 주워 나막신에 던져서 나막신이 가득 차면 비로소 돌아왔다. (학산수가) 일찍이 도적을 만나 (도적들이) 장차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학산수가) 바람을 따라 노래하니 도적들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이것은 이른바 죽고 사는 것을 마음에 들이지 않은 것이다.

- 14 通國(통국): 온 나라. 전국(全國)
- 15 작은 모래알이 신발에 가득 찰 때까지 노래를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뜻이다.
- 16 ㄱ - 장수, ㄴ - 장래, ㄷ - 장교. ㄱ과 ㄷ은 ‘장수’의 의미로 쓰였고, ㄴ은 ‘장차’의 의미로 쓰였다.

#### [17~19] 풀이

만덕이라는 사람은 성이 김씨이고, 탐라 양가의 딸이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 기녀에게 의탁하여 살았다. <중략> 그 재주가 재물을 불리는 데에 뛰어나, 물건의 귀하고 천한 때를 맞추기에 능하여 (물건을) 팔거나 쌓아 두니 수십 년에 이르러 자못 (재물을) 모은 것으로써 이름이 알려졌다. 성상(정조) 19년인 을묘년에 탐라에 큰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를 베고 죽었다(죽은 이가 많았다.). <중략> 이때에 만덕이 천금을 내어 쌀을 사니, 육지 여러 군현의 사공들이 때맞추어 이르렀다. 만덕이 십 분의 일을 취하여 친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실어 보냈다.

- 17 서로를 베개로 삼아 베고[枕] 죽을[死] 만큼 죽은 사람이 많았음을 뜻한다.
- 18 10분의 1은 친족을 위해 쓰고 나머지는 전부 관가에 기부하였으므로 ㉠의 분량은 10분의 9, 즉 ‘十之九’이다.
- 19 이 글은 서사적인 서술 방식으로 쓰였다. 이 방식은 인물의 언행이나 사건의 경과 등을 사실 그대로 적는 방식이다.

## V 한시 감상

### 12 자연을 노래하며

#### 소단원 평가 문제

125쪽

- 01 ②      02 ⑤      03 ④      04 ⑤      05 ⑤  
06 ④

- 01 ① 맥아당, ③ 봉선화, ④ 연습장, ⑤ 정류장
- 02 多少(다소): 많고 적음. 얼마나
- 03 ① ‘기구’에서 봄비가 가늘어 방울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② 형식은 오언 절구이다. ③ 운자는 聲(성)과 生(생)이다. ⑤ 봄이 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 04 ‘於’는 장소나 대상을 나타낼 때는, ‘~에, ~에서, ~에게’로 풀이되지만, 비교를 나타낼 때는 ‘~보다’로 풀이된다.
- 05 寒山(한산): 차가운 계절의 산. 늦가을 산.  
楓林(풍림): 단풍 든 숲.  
霜葉(상엽): 서리 맞은 단풍잎.
- 06 작중 화자는 수레를 타고 산길을 가다 단풍 든 숲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지만, 여행의 목적지나 대상은 알 수 없다.

### 13 이별을 노래하며

#### 소단원 평가 문제

133쪽

- 01 ①      02 ②      03 ④      04 ③      05 ③  
06 ③

- 01 巡(순) 돌다, 回(회) 돌다, 雲(운) 구름, 康(강) 편안하다
- 02 因緣(인연), 抄錄(초록)
- 03 칠언 절구는 주로 ‘4자/3자’ 단위로 끊어 읽는다.
- 04 백발[鶴髮]이 되신 어머니[慈親]께서는 강릉[臨瀛]에 계신데[在].
- 05 작중 화자는 강릉을 떠나 장안(長安)을 향해 떠나고 있다.
- 06 ③ (가)의 화자는 ‘이별의 눈물 때문에 대동강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썼다. ① 운자는 多, 歌,

波이다. ② 형식은 칠언 절구이다. ④ 慈親은 ‘어머니’를 뜻한다. ⑤ 白雲飛는 ‘멀리 떠나는 자식이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함.’을 뜻하는 白雲孤飛의 고사를 인용한 표현이다.

## 14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며

### 소단원 평가 문제

141쪽

- 01 ⑤      02 ④      03 ①      04 ③      05 ③  
06 ②

- 01 [가로] 荷重(하중), [세로] 集荷(집하)  
02 ① 무덤: 塚, ② 누렁개: 黃犬, ③ 늙은이: 老翁, ⑤ 어린아이: 小兒  
03 ② 공간적 배경은 들밭이다. ③ 운자는 隨, 纍, 兒이다. ④ 시간적 배경은 저물녘이다. ⑤ 노인과 손자가 제사를 지내고 오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04 읍시의 함련과 경련 내에서 출구와 대구는 서로 대우를 이룬다. 출구의 花와 서로 대우를 이루는 시어는 대구의 같은 위치에 있는 鳥이다.  
05 집에서 부친 편지[家書]는 만금[萬金]에 해당하네[抵].  
06 이 시는 5자씩 8구로 이루어진 ‘오언 읍시’이다.

### 시험 대비 문제

144~145쪽

- 01 ④      02 ①      03 ①      04 ②      05 ④  
06 ①      07 ②      08 ④      09 ②      10 ①  
11 ③      12 ④      13 ②      14 ②      15 ⑤  
16 해설 참고      17 ⑤      18 ④

- 01 遠(원) 멀다, ① 多(다) 많다, ② 停(정) 머무르다, ③ 康(강) 편안하다, ④ 近(근) 가깝다, ⑤ 抗(항) 막다  
02 [가로] 記錄簿(기록부), [세로] 回顧錄(회고록)  
03 ① 秋(추) 가을, 毫(호) 털. ② 요원, ③ 내진, ④ 붕괴, ⑤ 개탄

### [04~07] 풀이

(가) 봄비가 가늘어 방울지지 않더니, 밤중에 희미하게 소리가 들리네. 눈이 녹아 남쪽 시냇물 불어났으리니, 풀삭은 얼마나 돌아났을까?  
(나) 백발이 되신 어머니께서는 강릉에 계신데, 이 몸은 장안을 향해 홀로 떠나는 심정이며, 고개 돌려 북촌을 때때로 한 번씩 바라보니, 흰 구름 떠가는 하늘 아래로 저녁 산이 푸르네.

- 04 雪盡(설진): 눈이 모두 녹음.

- 05 밤중[夜中]에 희미하게[微] 소리[聲]가 들리네[有].

- 06 鶴髮(학발): 두루미의 깃털처럼 희다는 뜻으로, 하얗게 센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이르는 말.

- 07 ㄱ - (가)의 제목은 ‘春興’이다. ㄴ - (나)의 주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다.

### [08~13] 풀이

(가) 멀리 늦가을 산을 오르자니 돌길이 비탈져 있고, 흰 구름 피는 곳에 인가가 있네. 수레를 세우고 앉아 저 물녘 단풍 숲을 즐기니, 서리 맞은 단풍잎이 이월 봄 꽃보다 붉도다.

(나) 국도는 파괴되었어도 산하는 남아 있는데, 도성에 봄이 오니 초목이 무성하네. 시절을 느끼니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고, 이별을 한스러워하니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하네. 봉화가 석 달 동안 이어지니, 집에서 부친 편지는 만금에 해당하네. 흰머리는 굵을수록 더욱 짧아지니, 도무지 동곳을 이겨 낼 수 없겠네.

- 08 ㉠ 돌길, ㉡ 이월 봄꽃, ㉢ 무성하다, ㉣ 동곳

- 09 서리 맞은 단풍잎[霜葉]이 이월[二月] 봄꽃[花]보다[於] 붉도다[紅].

- 10 (나)의 운자는 ‘深(심), 心(심), 金(금), 簪(잠)’이다.

- 11 밑줄 친 부분은 ‘花濺淚’를 변안한 것이다.

- 12 (가)는 寒山, 楓林, 霜葉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알 수 있고, (나)는 城春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 수 있다.

- 13 ① 가을 산을 표현하였다. ③ 시의 배경이 어촌인지는 시를 통해 알 수 없다. ④ ‘家書[집에서 부친 편지]’라는 시어로 보아 작자는 가족과 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해당 내용은 시에 나와 있지 않다.

### [14~18] 풀이

(가) 비 갠 긴 독에는 풀빛이 짙은데, 남포에서 그대를 전송하니 슬픈 노래 북받치네. 대동강 물은 어느 때에 다 마를까?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지네.

(나) 흰 개가 앞서가고 누렁개가 따라가는데, 들밭 잡초 사이로 무덤이 연이어 있네. 노옹이 제사 끝낸 뒤 발 사이 길로, 저물녘 취해서 돌아오는데 어린아이가 부축하네.

- 14 ㉠ 우혈, ㉡ 룡파, ㉢ 제파, ㉣ 일모

- 15 시에서 ‘돛단배’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① 풀 - 草, ② 둑 - 堤, ③ 남포 - 南浦, ④ 대동강 - 大同江

- 16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강물에 더해지기 때문이다.

- 17 어린아이[小兒]가 부축하네[扶].

- 18 ① ‘4자/3자’로 띄어 읽는다. ② 운자는 기구, 승구, 결구의 끝에 있다. ③ 작자는 슬픔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⑤ 전쟁으로 피폐해진 시대의 비극을 이야기하였다.

## VI 전통문화와 역사 인식

### 15 우리의 명절

소단원 평가 문제

155쪽

- 01 ⑤    02 ③    03 ④    04 ①    05 ①  
06 ④

- 01 ① 배척, ② 작금, ③ 분초, ④ 확산, ⑤ 줄고  
02 ㄱ - 연, ㄴ - 집, ㄷ - 혜, ㄹ - 연  
03 茶禮(차례), 歲粧(세장), 歲拜(세배) 등의 단어를 통해서 설날의 풍속임을 알 수 있다. ④ 元日(원일): 한 해의 으뜸이 되는 날로, 설날을 가리킴. ① 추석, ② 단오, ③ 한식, ⑤ 동지  
04 큰[大] 부[部]의[之] 뜰[庭]에 모여[集].  
05 '세속에서 秋夕이라고 칭하고, 또 嘉排라고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秋夕(추석)과 嘉排(가배)가 같은 의미를 알 수 있다. ② 신라, ③ 왕녀, ④ 육부, ⑤ 적마  
06 진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접한 것이다.

### 16 단군 신화

소단원 평가 문제

163쪽

- 01 ②    02 ②    03 ④    04 ③    05 ③

- 01 帥(수) 장수, 師(사) 스승  
02 之는 '그곳'으로 풀이된다. 之는 환인이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곳, 즉 '삼위태백'을 가리킨다.  
03 함께[與] 혼인[婚]할[爲] 사람이 없었다[無].  
04 而是 문맥상 '그리고'의 의미로 쓰였다.  
05 인간 세상의 삼백육십여 가지 일을 주관한 것은 환인이 아니라 '환웅'이다.

### 17 발해고서

소단원 평가 문제

171쪽

- 01 ④    02 ③    03 ③    04 ④    05 ①  
06 ⑤    07 高麗

- 01 [가로] 修飾(수식), [세로] 編修(편수)  
02 항상[常(상)] 평준하게[平(평)] 하기 위한 창고[倉(창)].

① 둔전, ② 돌궐, ④ 제주도, ⑤ 고구려

- 03 고 씨[高氏]가 북쪽[北]에[于] 살다[居].  
04 '마땅히 그 삼국의 역사가 있어야 해서 고려가 그것[之]을 편찬하였으니'로 풀이되므로 之가 三國史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06 대 씨가 그 북쪽을 소유하여 발해라고 하였으므로, 발해 왕족의 성씨는 大氏임을 알 수 있다. ① 고씨, ② 부여 씨, ③ 박씨, ④ 김씨  
07 유득공은 고려가 남북국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며 고려를 비판하였다.

시험 대비 문제

174~175쪽

- 01 ①    02 ④    03 ②    04 ②    05 ③  
06 ①    07 ③    08 ③    09 ⑤    10 ①  
11 ③    12 ④    13 ④    14 ③    15 ④  
16 ④    17 ②

- 01 ① 何(하) - 賀(하), ② 新(신) - 年(년), ③ 契(계) - 梁(량), ④ 神(신) - 禪(선), ⑤ 散(산) - 謹(근)  
02 集(집) 모이다, ① 今(금) 이제, ② 中(중) 가운데, ③ 男(남) 남자, ④ 散(산) 흩어지다, ⑤ 拙(졸) 서툴다  
03 [가로] 染色(염색), [세로] 汚染(오염)  
[04~09] 풀이

(가) 서울 풍속에, 새해에 가묘를 찾아뵙고 제사를 행하니, (이것을) '차례'라고 하고, 남녀 중에 나이가 적고 (항렬이) 낮고 어린 사람들이 모두 새 옷을 입으니, (이것을) '세장'이라고 하며, 친척과 웃어른을 찾아뵙니, (이것을) '세배'라고 한다.

(나)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었으니, 자주 하늘 아래 뜻을 두어 사람이 사는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하였다.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고, 가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삼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으니, 그곳을 신시라 불렀고, 이 분은 황웅 천왕이라 불렀다.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려서 농사를 주관하고, 운명을 주관하고, 병을 주관하고, 형벌을 주관하고, 선악을 주관하니, 무릇 인간 세상의 삼백육십여 가지 일을 주관하였으며,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 04 數(수)는 '자주'라는 뜻으로 쓰이면 '삭'으로 읽는다.  
05 모두[皆] 새[新] 옷[衣]을 입다[着].  
06 ① 세배, ② 세월, ③ 세수, ④ 원일, ⑤ 원단  
07 ③은 환웅이 했던 일이다.



### [10~13] 풀이

- (가) 웅녀가 함께 혼인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매번 신단수 아래에서 잉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빌었다. 환웅은 이에 임시로 (사람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하고, (웅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단군왕검'이라 부른다.
- (나) 옛날에 고 씨가 북쪽에 살아 고구려라 하였고, 부여 씨가 서남쪽에 살아 백제라 하였으며, 박·석·김 씨가 동남쪽에 살아 신라라 하였으니, 이를 삼국이라 이른다. 마땅히 그 삼국의 역사가 있어야 해서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였으니 옳다.

10 ㉠ 매번, ㉡ ~에, ㉢ 이것, ㉣ 편찬하다

11 부여 씨[扶餘氏]가 서남쪽[西南]에[于] 살았다[居].

12 ④ 웅녀의 형제 관계는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① 기도 내용: 잉태할 수 있기를 기원함. ② 기도 장소: 신단수 아래. ③ 혼인 상대: 임시로 사람으로 변한 환웅. ⑤ 아들의 호칭: 단군왕검.

13 ㄷ - 삼국 시대에 고구려는 한반도의 북쪽에 있었다.

### [14~17] 풀이

- (가) 세속에서 추석이라고 칭하고, 또 가배라고도 한다. 삼국사를 살펴보면 신라의 유리 이사금이 왕의 딸 두 사람으로 하여금 6부의 여자들을 나누어 거느리게 하여, 7월 보름으로부터 큰 부의 뜰에 모여 길쌈을 하되, 을야에 멈추게 하였다. 팔월 보름에 이르러 그 공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진 사람들은 술과 음식을 차려서 이긴 사람들에게 사례하였다. 이때에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가 모두 행해지니, 그것을 가배라 이른다.
- (나) 고려가 발해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았으니, 고려가 (세력을) 떨치지 못했음을 알겠다. <중략> 부여 씨가 망하고 고 씨가 망함에 이르러 김 씨가 그 남쪽을 소유하였고, 대 씨가 그 북쪽을 소유하여 발해라 하니, 이를 남북국이라 이른다. 마땅히 그 남북국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지 않았으니 잘못이다. 무릇 대 씨는 누구인가? 바로 고구려의 사람이다. 그가 소유한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고구려의 땅이다.

14 진[負] 사람들[者]은 술[酒]과 음식[食]을 차렸다[置].

15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를 뜻한다.

16 ㉡ 고려가 그것[之]을 편찬하지 않았다. ㉢ 바로 고구려의[之] 사람이다.

17 ① 嘉排는 삼국사에 기록되어 있다. ③ 추석의 유래가 산업 구조의 변화와 관련 있다는 설명은 본문에 없다. ④ 고려와 북방 민족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발해의 왕족이 고구려 왕족의 직계 후손이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VII 철학 고전 읽기

### 18 논어

소단원 평가 문제

185쪽

- 01 ①      02 ④      03 克己復禮      04 ④  
05 ④      06 ②

- 01 ① 則(즉): ~하면, ② 以(이): ~로써, ③ 而(이): 그리고, 그러나, ④ 與(여): ~와 더불어, ⑤ 若(약): 만약
- 02 朝(조)는 보통 '아침'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朝廷(조정)'의 뜻으로 쓰였다.
- 03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가는 것, 즉 克己復禮(극기복례)가 仁(인)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04 인[仁]을 행하는[爲] 것은 내[己]에게 달려 있으니[由].
- 05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할 것이 兵, 다음이 食이고, 마지막으로 信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요한 순서로 놓으면 '信 - 食 - 兵'이 된다.
- 06 자공은 공자에게 정치[政(정)]에 대해 물었고, 공자는 이에 대해 답하였다.

### 19 맹자

소단원 평가 문제

193쪽

- 01 ④      02 ④      03 ②      04 ⑤      05 ⑤  
06 ④

- 01 ㉠ 猛(맹) 사납다, ㉡ 促(촉) 재촉하다
- 02 쳐서[搏而] 그것[之]을 튀어 오르게[躍] 하면.
- 03 사람[人]은 선하지[善] 않음[不]이 있지[有] 않다[無].
- 04 放(방) 방탕하다, 辟(벽) 편벽되다, 邪(사) 사악하다, 侈(치) 사치하다.
- 05 하지[爲] 않음[不]이 없을[無] 것이다[已].
- 06 ㉡의 바로 뒤에서 '이것은 백성[民]을 그물질하는[罔] 것'이라고 하였다.

### 20 도덕경 · 장자

소단원 평가 문제

201쪽

- 01 ③      02 水      03 ①      04 ④      05 ②  
06 ①

- 01 ㄱ - 法은 여기서 '본받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ㄴ - 人,

地, 天, 道, 自然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 02 '최상[上]의 선[善]은 물[水]과 같다[若].'로 풀이한다. 뒤 문장의 내용을 통해 善의 의미를 물[水]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3 여러 사람[衆人]이[之] 싫어하는[惡] 곳[所]에 머문다[處].
- 04 ㉠ 베다, ㉡ 멈추다, ㉢ 이유, ㉣ 명령하다
- 05 枝(지) 가지, 葉(엽) 잎
- 06 ㉣의 바로 앞에 '재목이 아니기 때문에[以不材]'라는 말이 있다. 즉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 시험 대비 문제

204~205쪽

- |      |      |      |      |      |
|------|------|------|------|------|
| 01 ㉡ | 02 ㉠ | 03 ㉣ | 04 ㉠ | 05 ㉠ |
| 06 ㉠ | 07 ㉢ | 08 ㉡ | 09 ㉠ | 10 ㉡ |
| 11 ㉣ | 12 ㉢ | 13 ㉢ | 14 ㉢ | 15 ㉢ |
| 16 ㉠ |      |      |      |      |

- 01 錯覺(착각), 觸覺(촉각), 感覺細胞(감각세포)
- 02 見(견) 보다 - 閱(열) 보다, 終(종) 끝나다 - 了(료) 끝나다, 猛(맹) 사납다 - 盟(맹) 맹세하다, 退(퇴) 물러나다 - 逐(축) 쫓다
- 03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 04 마구간이 불났는데, 공자께서 퇴청하셔서 "사람[人]이 다 찼[傷]느냐[乎]?" 하시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
- 05 자신(자기의 사욕)을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을 행하는 것이니, 하루 동안이라도 자신을 이겨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인(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으니,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겠는가?

#### [06~08] 풀이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식량을 충분히 하고 군사를 충분히 하고 백성이 신뢰하게 하는 것이다." 자공이 말했다. "반드시 부득이해서 버려야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사를 포기해야 한다." 자공이 말했다. "반드시 부득이해서 버려야 한다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 예로부터 (사람은) 모두 죽음이 있지만(죽지만)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 06 ㉡ 버리다, 포기하다, ㉢ ~로부터
- 08 앞에서 군사[兵]를 포기하라고 하였고, 뒤에서는 백성의 믿음[信]이 없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食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 [09~10] 풀이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으니, 사람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며, 물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음이 없다. 지금 무릇 물을 쳐서 그것을 튀어 오르게 하면 (물로 하여금) 이마를 넘게 할 수도 있으며, (물살을 막아) 격렬하게 하여 그것을 흐르게 하면 (물로 하여금) 산에 있게 할 수도 있으나,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 09 ㉠ 猶(유)는 여기서 '같다'의 의미로 쓰였다.
- 10 이 글은 사람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사람[人]은 선하지[善] 않음이[不] 없음[無有]을 말하고 있다.

#### [11~12] 풀이

진실로 항심이 없다면 방탕함, 편벽됨, 사악함, 사치함을 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죄에 빠짐에 이른 뒤에 (죄에) 따라서 그를 형벌한다면 이것은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까닭으로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 주되, 반드시 (백성으로 하여금) 위로는 부모님을 섬기는 데 충분하게 하며, 아래로는 처자식을 기르는 데 충분하게 하여, 풍년에는 일 년 내내 배부르게 하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 11 ㉢ 罔(망)은 여기서 '그물질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12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明君의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제시된 글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 [13~14] 풀이

(가)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나) 최상의 선(善)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공을) 다투지 않으며, 여러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거의 도(道)에 가깝다.

- 13 人, 地, 天, 道, 自然의 관계를 연쇄법으로 설명하였다.
- 14 (나)의 ㉡은 '잘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善惡'의 善은 '착하다'의 의미이다.

#### [15~16] 풀이

장자가 산속을 가다가 큰 나무가 가지와 잎이 무성한 것을 보았다. 나무를 베는 사람이 그 곁에 멈추었으나 (그 나무를) 취하지 않았다. (장자가) 그 이유를 물으니, (나무를 베는 사람이) 말하였다. "쓸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장자가 말하였다. "이 나무는 재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천 년(타고난 수명)을 마칠 수 있게 되었구나." 선생님께서 산에서 나오셔서 옛 친구의 집에서 머무르시니, 친구가 기뻐하며 어린 종에게 명하여 거위를 잡아 삶도록 하였는



데, 어린 종이 물었다. “그중 한 마리는 잘 울고, 그중 한 마리는 잘 울지 못하니, 청컨대 어느 쪽을 잡을까요?” 주인이 말하였다. “잘 울지 못하는 놈을 잡아라.”

- 15 命은 ‘목숨’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명령하다’로 풀이한다.  
16 ‘天年’은 ‘타고난 수명을 제대로 다 사는 나이’를 뜻한다.

## VIII 한문 산문 감상

### 21 온달

#### 소단원 평가 문제

215쪽

- 01 ㉠ 02 ㉢ 03 ㉢ 04 ㉠ 05 ㉠  
06 ㉢

- 01 ㉠ 평강왕, ㉠ 상부 고 씨, ㉢ 필부(평범한 사람), ㉢ 지존(지극히 존귀한 존재, 즉 평강왕을 가리킴.)  
02 ‘破衫弊履, 往來於市井間[떨어진 옷과 해진 신으로 시장 사이를 오가다.]’으로 보아 불품없는 옷차림으로 돌아다녔음을 알 수 있다.  
03 ㉠ ‘容貌’은 ‘용모’로 읽는다. ㉡ ‘可笑’의 대상은 ‘溫達(온달)’이다. ㉣ ‘則’은 ‘~하면’의 뜻이다. ㉤ ‘粹然’은 ‘순수한 모양’을 뜻한다.  
04 항상[常] 음식[食]을 구걸[乞]해서[以] 어머니[母]를 봉양했다[養].  
05 食言(식언)이란 한번 입 밖에 낸 말을 도로 입속에 넣는다는 뜻으로, 약속한 말대로 지키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大王(대왕)은 공주를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상부 고 씨에게 시집가라고 하며 말을 바꾸었다.  
06 공주는 ‘歸之愚溫達[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이라는 대왕의 처음 명령을 따르기로 하고 상부 고 씨에게 시집가라는 명령을 거절한 것이다. ㄷ과 ㄹ은 제시된 글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 22 두 아들에게

#### 소단원 평가 문제

223쪽

- 01 ㉠ 02 ㉢ 03 ㉠ 04 ㉠ 05 ㉤

- 01 稍勝(초승): 조금 나아지다.

- 02 勿(물)과 無(무)는 ‘~하지 말라’와 같이 금지의 뜻을 나타낸다.  
03 尤當何如是 ‘더욱이 마땅히 어찌 되겠느냐?’라는 뜻이다. 즉 글을 배우지 않고 예의가 없다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04 “책을 읽거나 몸가짐을 삼가는 것을 잘한다고 들으면 이로써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05 부인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은 제시된 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ㄹ은 ‘預關此心耳’를 통해 알 수 있다.

### 23 잡설

#### 소단원 평가 문제

231쪽

- 01 ㉢ 02 ㉤ 03 ㉢ 04 ㉠ 05 ㉤  
06 ㉠

- 01 與(여)는 ‘~와’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授(수) 주다’와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02 항상[常] 있는[有] 것만은 아니다[不]. 즉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03 ㉣의 食은 ‘먹다’의 뜻으로 쓰여 ‘식’으로 읽고, ㉣의 見은 ‘드러나다’의 뜻으로 쓰여 ‘현’으로 읽는다.  
04 ㉣은 ‘어찌 그 말이 천 리 갈 수 있기를 바라겠는가?’라는 뜻이다. 즉 이것은 ‘천 리를 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05 千里馬: 천 리를 갈 수 있는 말. 良馬: 좋은 말. 名馬: 이름난 말.

#### 시험 대비 문제

234~235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해설 참고 16 ㉠

- 01 ㉡ 努(노) 힘쓰다 - 力(력) 힘, 힘쓰다, ㉠ 職(직) 직분 - 識(식) 알다, ㉢ 愚(우) 어리석다 - 智(지) 지혜, ㉣ 弊(폐) 해지다 - 幣(폐) 화폐, 비단, ㉤ 每(매) 매양 - 侮(모) 업신여기다  
02 ㉡ 出馬(출마): 말을 타고 나감. 선거에 입후보함. ㉠ 구박, ㉢ 기마, ㉣ 양마, ㉤ 소란  
03 ㉢ 桑田碧海(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흥안지례 ㉡ 혼정신성 ㉣ 천고마비 ㉤ 사주단자

#### [04~09] 풀이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 사람이다. 얼굴 생김새는 볼품 없어 옷을 만하였으나 속마음은 순수하였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항상 음식을 구걸하여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떨어진 옷과 해진 신으로 시정 사이를 오가니 그때 사람들이 그를 지목하여 바보 온달이라고 하였다.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여 왕이 놀리며 말했다. “너는 항상 울어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자라면 반드시 사대부의 아내는 될 수 없을 것이요, 마땅히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야겠다.”라고 하며 왕이 매번 그것을 말하였다. 딸의 나이가 열여섯 살에 이르러 상부(上部)의 고 씨(高氏)에게 시집을 보내고자 하니, 공주가 마주 대하여 말하였다.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바보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하시더니, 지금 무슨 까닭으로 전에 하신 말씀을 바꾸십니까? 필부도 오히려 식언을 하고자 하지 않거늘 하물며 지존께서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하기를 ‘임금은 실없는 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대왕의 명령은 잘못되었으니, 저는 감히 (그 명령을) 공경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 04 目(목)은 여기서 ‘지목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05 大王(대왕)과 至尊(지존)은 모두 平岡王(평강왕)을 가리킨다.  
 06 前言(전언) 즉 대왕이 전에 한 말은 “너는 반드시 바보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다[汝必爲溫達之婦.]”이다.  
 07 필부도 식언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 식언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왕에게 ‘신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 것이다.  
 08 왕이 ‘상부 고 씨에게 시집가라.’고 한 명령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은 ‘온달에게 시집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09 ㄱ은 제시된 글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 [10~13] 풀이

편지가 오니 마음에 위안이 된다. 둘째 아이는 필법(筆法)이 조금 나아지고 문리 또한 진보가 있으니, 나이의 덕분이냐? 아니면 혹 때에 맞게 배우고 익혀서 그런 것이냐? 절대로 자포(자포자기)하지 말고, 뜻을 다하여 부지런히 힘써서 책을 읽고, 책을 베끼고, 글을 짓는 일에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라. 폐족이면서 글을 배우지 않고 예의가 없다면 더욱이 마땅히 어찌되겠느냐? 보통 사람에 비해 모름지기 백배의 공력을 더하여야만 겨우 사람 축에 들게 될 것을 헤아려 볼 수 있을 뿐이다. 나는 고생이 매우 많다. 그러나 너희들이 ‘책을 읽거나 몸가짐을 삼가는 것’을 잘한다고 들으면 이로써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 큰 아이는 모름지기 4월 초열흘이 지난 뒤에 말을 사서 타고 오도록 하여라. 그러나 이별의 슬픈 마음이 벌써 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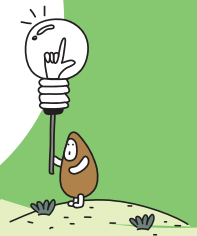
- 10 勝(승)은 ‘나아지다’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優勝(우승)’의 勝(승)과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11 凡人(범인):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13 정약용은 편지에서 자신의 가문을 ‘廢族(폐족)’이라고 하였다.

#### [14~16] 풀이

세상에 백락이 있는 뒤에 천리마가 있을 수 있다. 천리마는 항상 있으나 백락은 항상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훌륭한 말이 있더라도 다만 노예의 손에 치욕을 당하고 말구유와 마판 사이에서(마구간에서) (평범한 말과) 나란히 죽어서 천리마라 불리지 못한다. 말 중에 천리를 가는 것은 한 번 먹을 때에 혹 곡식 한 섬을 다 먹기도 하거늘, 말을 먹이는 사람은 그 말이 천 리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먹인다. 이 말은 비록 천 리를 갈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먹는 것이 배부르지 않고 힘이 부족하여 재주와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또 평범한 말과 같아지고자 하여도 같아질 수 없으니, 어찌 그 말이 천 리를 갈 수 있기를 바라겠는가? 그것을 채찍질하기를 그에 맞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먹이기를 그 재능을 다할 수 없게 하며, 울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채찍을 잡고 다가가서 말하기를 “천하에 좋은 말이 없다.”라고 하니 아! 참으로 (훌륭한) 말이 없는 것인가? 참으로 (훌륭한) 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가?

- 14 見(견)은 여기서 ‘드러나다’의 뜻으로 쓰였으므로 ‘현’으로 읽는다.  
 15 세상에는 뛰어난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을 지닌 사람이 없는 것이다.  
 16 千里馬(천리마), 名馬(명마), 良馬(양마)는 모두 뛰어난 능력을 지닌 말로, 뛰어난 인재를 가리킨다.

# 정답친해



|      |             |     |
|------|-------------|-----|
| I    | 한문의 기초      | 238 |
| II   | 성어의 이해와 활용  | 238 |
| III  | 속담과 격언      | 239 |
| IV   | 일화와 인물      | 241 |
| V    | 한시 감상       | 242 |
| VI   | 전통문화와 역사 인식 | 244 |
| VII  | 철학 고전 읽기    | 245 |
| VIII | 한문 산문 감상    | 247 |

## I 한문의 기초

### 시험 대비 문제

24~25쪽

|          |                         |               |      |
|----------|-------------------------|---------------|------|
| 01 ③     | 02 해설 참고                | 03 ⑤          | 04 ④ |
| 05 ②     | 06 ②                    | 07 ㉠ 뿌리, ㉡ 근본 | 08 새 |
| 가 입으로 읊. | 09 ①                    | 10 ㉠ 刀, ㉡ 手   |      |
| 11 ③     | 12 耳, 目                 | 13 ⑤          | 14 ② |
| 15 ②     | 16 (1) 달이 밝음. (2) 밝은 달. | 17 ⑤          | 18 ④ |

- 01 우리나라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뒤에도 한자를 주요한 문자 도구로 사용하였다.
- 02 원활한 언어생활, 한자 문화권의 소통과 교류, 건전한 가치관 및 바람직한 인성 함양,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 04 ① 禾(화) 벼, ② 知(지) 알다, ③ 占(점) 점, ⑤ 斤(근) 도끼
- 05 받침은 나중에 쓴다.
- 06 ① 魚(어) 물고기, ② 龜(귀) 거북, ③ 馬(마) 말, ④ 象(상) 코끼리, ⑤ 弔(조) 조문하다
- 08 口(구) 입 + 鳥(조) 새 = 鳴(명) 울다 → 새가 입으로 읊.
- 09 言(언) 말쓰 + 丁(정) 빗짜 천간 = 訂(정) 바로잡다  
水(수) 물 + 共(공) 함께 = 洪(홍) 큰물, 넓다
- 11 한자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음과 뜻으로 쓰인다. 更(갱) 다시, (경) 고치다, 시각 / 降(강) 내리다, (향) 행복하다.  
㉠ 更生(갱생), ㉡ 乘降(승강), ㉢ 投降(투항)
- 12 耳聞目見(이문목견):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
- 13 ⑤ 遷[옮기다(서술어)] + 都[도읍을(목적어)], ① 日[해가(주어)] + 出[뜨다(서술어)], ② 人[사람이(주어)] + 造[만들다(서술어)], ③ 歸[돌아가다(서술어)] + 家[집에(보어)], ④ 渡[건너다(서술어)] + 江[강을(목적어)]
- 14 良藥, 苦於口(양약, 고어구): 좋은 약은 입에 쓰다.
- 15 而是 '그러나'의 의미로 쓰였다. 자식[子]이 봉양[養]하고 자[欲] 하나[而] 부모님[親]은 기다려[待] 주시지 않는[不]다[也].
- 16 한자는 단어나 문장 안에서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풀이된다. 明은 (1)에서는 서술어로, (2)에서는 수식어로 쓰였다.
- 17 ⑤ 招[부르다] + 聘[부르다] - 병렬 관계, ① 品貴(품귀): 물건이 귀함. - 주술 관계, ② 日出(일출): 해가 뜸. - 주술 관계, ③ 人造(인조): 사람이 만들. - 주술 관계, ④ 夜深(야심): 밤이 깊음. - 주술 관계
- 18 ㉠은 서술어이다. (가) 학문은 이루기가 어렵다. (나)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

## II 성어의 이해와 활용

### 03 성어 입문

#### 소단원 평가 문제

35쪽

|      |      |      |      |      |
|------|------|------|------|------|
| 01 ② | 02 ① | 03 ② | 04 ② | 05 ④ |
|------|------|------|------|------|

- 01 ㉠ 足球: 발로 공을 차서 겨루는 경기. ㉡ 不足: 충분하지 않음. ㉢ 蛇足: 뱀의 발.
- 02 異議(이의), 異邦人(이방인). ① 異(이) 다르다, ② 同(동) 같다, ③ 翼(익) 날개, ④ 共(공) 함께, ⑤ 田(전) 밭
- 03 我田引水(아전인수):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 04 臨機應變(임기응변):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
- 05 (가) 용문에 오름.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게 됨. 또는 그 관문. (나)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남.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 (다) 비단 위에 꽃을 더함.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 (라) 쇠귀에 경 읽기.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이르는 말.

### 04 역사 속의 성어

#### 소단원 평가 문제

43쪽

|      |      |      |      |      |
|------|------|------|------|------|
| 01 ① | 02 ③ | 03 ② | 04 ④ | 05 ② |
| 06 ④ |      |      |      |      |

- 01 ②와 ⑤는 '죽다', ③과 ④는 '달아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① 멸망, ② 망혼, ③ 도망, ④ 망명, ⑤ 망령
- 02 白眉(백미)는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통하는 성어는 拔群(발군), 傑出(결출), 壓卷(압권)이다. 脅迫(협박)은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함.'을 뜻한다.
- 03 물[水]을 등지고[背] 치는 진[陣].
- 04 (라) 唇亡齒寒(순망치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림. 즉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
- 05 (가) 完璧(완벽): 결함이 없이 완전함. (다) 咸興差使(함흥차사): 심부름을 가서 오지 않거나 늦게 온 사람.
- 06 ④ 마량의 눈썹 가운데 흰 털이 있어서, 이런 까닭으로 그렇게(백미라고) 불렸다. ① 마량의 형이 다섯 명이 아니라, 마 씨 형제가 모두 다섯 명이다.

## 05 비유가 담긴 성어

### 소단원 평가 문제

51쪽

01 ③      02 ⑤      03 ①      04 ④      05 ④

- 01 ③ 守(수) 지키다 - 衛(위) 지키다, ① 添(첨) 더하다 - 減(감) 덜다, ② 副(부) 버금 - 削(삭) 깎다, ④ 左(좌) 왼쪽 - 右(우) 오른쪽, ⑤ 賤(천) 천하다 - 待(대) 기다리다
- 02 ㉠ 成長勢(성장세): 어떤 일이나 상태가 자라 가는 형세.  
㉡ 委員長(위원장): 위원 가운데 우두머리.
- 03 胡蝶夢(호접몽): 나비에 관한 꿈. 인생의 덧없음.
- 04 (가) 토끼[兔]를 기다리다[待], (나) 산[山]을 옮기다[移], (다) 검[劍]을 구하다[求], (라) 변방[塞] 늙은이[老]
- 05 시대는 이미 변화였는데 법은 변하지 않았으니, 이것[此] 으로써[以] 정치[治]를 한다면[爲]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 시험 대비 문제

54~55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⑤      05 ②  
06 ①      07 ⑤      08 ②      09 ⑤      10 ③  
11 ②      12 ①      13 ⑤      14 ③      15 ②  
16 ④      17 馬良      18 해설 참고

- 01 ㉠ 異(이) 다르다, ㉡ 陳(진) 늘어놓다
- 02 ㉢ 待機(대기)-기다리다. 滅亡(멸망), 亡魂(망혼), 逃亡(도망), 賤待(천대)
- 03 [가로] 削減(삭감), [세로] 添削(첨삭)
- 04 蝶(접) 나비, 蜂(봉) 벌, 螢(형) 반딧불이  
ㄱ - 蝶泳(접영), ㄴ - 蜂起(봉기), ㄷ - 踏查(답사),  
ㄹ - 螢光燈(형광등)
- 05 제시된 성어는 九死一生(구사일생)과 四面楚歌(사면초가)이다. 九(9)+四(4)=13.
- 06 壓卷(압권), 傑出(결출)
- 07 同床異夢(동상이몽): 같은 자리 다른 꿈.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판생각을 하고 있음.
- 08 글에서 할머니는 쇠 절굿공이를 날마다 갈아 바늘로 만들고자 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글은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의 ② 愚公移山(우공이산)과 관계있다.
- 09 長蛇陣(장사진), 一長一短(일장일단)
- 10 脣[입술] → 亡[없어지면] → 齒[이가] → 寒[시림]
- 11 徹頭徹尾(철두철미): 머리[頭]부터 꼬리[尾]까지 모두 통함[徹].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 12 (가)의 長(장)은 '자라다'의 의미이다. 助長(조장): 자라

는 것을 도움.

- 13 指鹿爲馬(지록위마)는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다. ⑤에는 문맥상 '심부름을 가서 오지 않거나 늦게 온 사람'을 뜻하는 咸興差使(함흥차사)가 알맞다.
- 14 ① 蛇(사) 뱀, ② 狐(호) 여우, 虎(호) 호랑이, ④ 鹿(록) 사슴, 馬(마) 말, ⑤ 兔(토) 토끼
- 15 항우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자신의 의지를 병사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러한 항우의 행동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더는 물러설 수 없음'을 뜻하는 背水陣(배수진)과 관계있다.

### [16~17] 풀이

(가) 시대는 이미 변화였는데 법은 변하지 않았으니, 이것으로써 정치를 한다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나) "마 씨의 다섯 형제 중에 '백미'가 가장 뛰어났다."라고 하였으니, 마량의 눈썹 가운데 흰 털이 있어서 이런 까닭으로 그렇게 불렀다.

- 16 最良(최량): 가장 뛰어나다.
- 17 良은 馬良(마량)의 이름을 줄여서 나타낸 것이다.
- 18 塞翁之馬는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고 풀이하며,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 Ⅲ 속담과 격언

### 06 속담에 담긴 지혜

#### 소단원 평가 문제

65쪽

01 ③      02 ②      03 ②      04 ②      05 ③  
06 ⑤

- 01 ③ 飢(기) 굶주리다 - 餓(아) 굶주리다, ① 往(왕) 가다 - 來(래) 오다, ② 湯(탕) 끓이다 - 藥(약) 약, ④ 確(확) 굳다 - 率(률) 비율, ⑤ 立(립) 서다 - 臥(와) 눕다
- 02 ② 飯(반) 밥. 朝飯(조반), 麥飯石(맥반석)
- 03 ㉠은 '공[功]을 쌓다[積]'로, 뒤에 있는 한자부터 풀이한다. ㉡의 不屈(불굴)도 '굽히지[屈] 않음[不]'으로, 뒤에 서부터 풀이한다.
- 05 ㉠ 거느리다, ㉡ 아이, ㉢ 굴, ㉣ 눕다
- 06 (마)는 3일이 걸리는 일을 하루 만에 끝내려다가 도리어 해를 입었다는 뜻이므로, 제시된 중국 속담과 의미가 통한다.



## 07 내면을 밝히는 글

소단원 평가 문제

73쪽

01 ② 02 ⑤ 03 ④ 04 ⑤ 05 ④

06 更鳴, 울음소리를 고치다.

- 01 홀로[獨(독)] 있을 때에도 삼가다[愼(신)].  
 02 衆寡不敵(중과부적): 적은 수효로 많은 수효를 대적하지 못함.  
 03 子(자)는 ‘너’라는 뜻으로 쓰인다. 我(아) 나, 予(여) 나, 吾(오) 나  
 04 ‘不知不及於人’은 문맥상 ‘남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로 풀이되므로 ㉠에는 ‘~에게’의 의미를 지닌 於(어)가 알맞다.  
 05 ㉠ 惡(오) 싫어하다, ㉡ 更(경) 고치다

## 08 관계를 밝히는 글

소단원 평가 문제

81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④ 05 ①

06 ①

- 01 ① 호언, ② 과언, ③ 예언, ④ 확언, ⑤ 교언  
 02 ㉠ 금석이나 옥구슬보다, ㉡ 세력으로써 사귀는 사람.  
 03 남[人]이[之] 나[我]를 의심하는[疑] 것[者].  
 04 대감이 죽은 뒤에는 그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으나 대감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대감 집 말이 죽으면 대감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조문을 간다는 뜻이다.  
 05 ① 부활, ② 광복, ③ 복구, ④ 회복, ⑤ 복습  
 06 도끼 주인의 잘못은 이웃집 아들을 疑心(의심)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시험 대비 문제

84~85쪽

01 ① 02 ① 03 ④ 04 ⑤ 05 ②  
 06 ③ 07 일일왕 08 ② 09 ④ 10 ③  
 11 ② 12 해설 참고 13 ② 14 ④  
 15 ⑤ 16 ④ 17 ③ 18 ④

- 01 ① 식경, ② 허기, ③ 포화, ④ 기아, ⑤ 분식  
 02 [가로] 巧言令色(교언영색), [세로] 確言(확언)  
 03 열 그릇의 밥에서 한 숟가락씩 덜면 다시 한 그릇의 밥이 된다. 즉 이 글은 여럿이 각각 조금씩 도와주어 큰 보탬이 된다는 뜻으로, 협동을 강조하고 있다.  
 04 사람의 근심(폐단)은 항상 내가 남보다 뛰어난 것은 알되,

남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데 있다.

05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 없다.

[06~07] 풀이

삼 일의 길을 하루 만에 가고 열흘 동안 눕는다.

06 삼 일[三日]의[之] 길[程].

07 3일이 걸리는 길을 하루 만에 가려고 서두르다가 도리어 열흘을 몸져누웠으므로,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통하는 것은 ‘일일왕[一日往: 하루 만에 가다.]’이다.

[08~09] 풀이

(가) 아이가 (등에) 업혀 있는데, 삼 년 동안 찾는다.  
 (나) 남에게 (좋은) 말을 주는 것이 금석이나 옥구슬보다 소중하다.

09 重(중)은 주로 ‘무겁다’, ‘무게’, ‘중요하다’, ‘소중하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여기서는 ‘소중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10~11] 풀이

(가) 남이 나를 의심하는 것은 (나의) 평소 행동이 남에게 믿음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 세력으로써 사귀 사람은 세력이 기울어지면 끊어지고, 이익으로써 사귀 사람은 이익이 다하면 흩어진다.

10 ㉠ 남이 나를 의심하는 것[者], ㉡ 세력으로써 사귀 사람[者]

11 이익[利]이 다해[窮]면[則] 흩어진다[散].

[12~13] 풀이

울째미가 말하기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의 울음소리를 싫어하여, 이 때문에 동쪽으로 이사 간다.” 비둘기가 말하기를, “네가 울음소리를 고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울음소리를 고칠 수 없다면 동쪽으로 이사 가더라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너의 소리를 싫어할 것이다.”

12 사람들이 자신의 울음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13 네[子]가 울음소리[鳴]를 고칠[更] 수 있다면[能].

[14~15] 풀이

마땅히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겉과 속을 한결같이 하라. 어두운 곳에 거처해도 환한 것처럼 하고 혼자 거처할 때에도 여럿이 있는 것처럼 하라.

14 어두운 곳[幽]에 → 거처해도[處] → 환한 곳[顯] → 처럼[如] 하고.

15 衆(중) 무리, 많은 사람

[16~18] 풀이

(가)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남을 꾸짖는 데는 밝고, 비록 총명함이 있더라도 자기를 용서하는 데는 어둡다.

(나) 다른 날 다시 그 이웃의 아들을 보니, 동작과 태도가 도끼를 훔친 사람 같지 않았다. 그 이웃의 아들이 변한 것이 아니요, 자기가 변한 것이다. 변한 것은 다른 것이 없으니 (자기에게) 허물된 바가 있는 것이다.

- 18 己(기)는 ‘도끼 주인’을 가리킨다. ‘그 이웃의 아들이 변한 것이 아니요, 자기[己]가 변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변한 것은 도끼 주인임을 알 수 있다.

## IV 일화와 인물

### 09 김 선생의 재치

소단원 평가 문제

95쪽

- 01 ⑤    02 ①    03 ⑤    04 ③    05 ⑤  
06 ③    07 ①

- 01 ① 倣(방) 본뜨다, ② 訪(방) 찾다, ③ 妨(방) 방해하다,  
④ 芳(방) 꽃답다, ⑤ 傍(방) 곁  
02 召集(소집), 號召(호소)  
03 ㉠ ~사람, ㉡ 잘하다, ㉢ 일찍이, ㉣ 전혀  
04 耳(이)는 보통 ‘귀’로 풀이되지만 여기서는 惟(유)와 함께 쓰여 ‘오직 ~할 따름이다’로 풀이된다.  
05 무엇[何物]을 타[騎]고[而] 돌아가려는가[還]?  
06 닭을 잡아 안주로 내놓으라는 뜻을 ‘닭을 빌려서 타고 가겠다.’는 말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7 之는 대명사로 쓰여 ‘그’로 풀이되며 김 선생을 가리킨다.

### 10 예술가의 열정

소단원 평가 문제

103쪽

- 01 ①    02 ②    03 ④    04 ①  
05 畫家    06 ④

- 01 殺(살) 죽이다, (쇄) 빠르다, 띈다. ① 살균 - 쇄도, ② 습득 - 수습, ③ 해당 - 담당, ④ 필경 - 검사필, ⑤ 전답 - 천수답  
02 ㉠ 所在: 있는 곳, ㉡ 所謂: 이른바  
04 將[將] 그[之]를(학산수를) 죽이려[殺] 하였다.  
05 畫家(화가): 그림 그리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06 이징과 학산수는 모두 영예나 치욕은 잊은 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만 몰입하였다. ① 구류, ② 제출, ③ 회사, ④ 몰입, ⑤ 시권

## 11 김만덕의 나눔

소단원 평가 문제

111쪽

- 01 ④    02 ⑤    03 ④    04 ①    05 ③  
06 ⑤

- 02 長은 길다, 자라다, 뛰어나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여기서는 ‘재물을 불리는 데에 뛰어나다[長]’로 풀이된다.  
03 천금[千金]을 내어[捐] 쌀[味]을 사다[買].  
04 쌀의 10분의 1을 친족을 위해 쓰고, 나머지를 전부 백성을 위해 관가에 주었으므로 만덕의 행동은 ‘寄附(기부)’라는 말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 ② 점차, ③ 약어, ④ 매출, ⑤ 탐욕  
05 만덕은 쌀의 10분의 1을 친족에게 주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보냈으므로, 90%를 관가에 보낸 것이다.  
06 글에서 만덕은 재물을 불리는 데에 뛰어나다고 하였으므로 만덕의 재능과 가장 가까운 직업은 ‘기업가’이다.

시험 대비 문제

114~115쪽

- 01 ⑤    02 ②    03 ①    04 ⑤    05 ②  
06 ②    07 ④    08 ③    09 兼味    10 ③  
11 ①    12 ③    13 ④    14 ⑤    15 ②  
16 ②    17 ③    18 ⑤    19 해설 참고

- 01 ㉠ 시권, ㉡ 제출, ㉢ 휴대, ㉣ 영예  
02 民謠(민요), 歌謠(가요), 絃樂器(현악기)  
03 同病相憐(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04 배腹(배)를 안고[抱] 넘어질[絶倒] 정도로 몹시 웃음. ① 담소, ② 폭소, ③ 초상화, ④ 파안대소

#### [05~10] 풀이

김 선생이라는 사람은 우스갯소리를 잘하였다. 일찍이 친구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주인이 술상을 차리되 단지 채소만을 안주로 삼고, 먼저 사과하여 말하기를, “집이 가난하고 시장이 멀어 맛있는 음식이 전혀 없고, 오직 담백하니, 이것이 부끄러운 따름이네.”라고 하였다. 마침 여러 마리 닭이 있어 뜰에서 어지럽게 (모이를) 쪼았다. 김 선생이 말하기를, “대장부는 천금을 아끼지 않으니 마땅히 내 말을 배어 술안주로 삼겠네.”라고 하였다. 주인이 말하기를, “한 마리(뿐인) 말을 배면 무엇을 타고 돌아가려는가?”라고 하니, 김 선생이 말하기를, “닭을 빌려서 타고 돌아가겠네.”라고 하였다. 주인이 크게 웃으면서 닭을 잡아 그에게 대접하였다.

- 05 일찍이[嘗] 친구[友人]의 집[家]을 방문하다[訪].
- 07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임으로, ‘?’를 쓰는 것이 알맞다.
- 08 친구가 김 선생에게 “말을 잡으면 무엇을 타고 가려는가?”라고 한 것과, 마지막 문장에서 ‘답을 잡아 그에게 대접하였다.’라는 문장을 통해 김 선생이 “답을 빌려 타고 돌아가지.”라고 대답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 10 ③ ‘소재’로 읽는다. 蔬(소) 푸성귀, 菜(채) 나물

#### [11~13] 풀이

이징이 어렸을 때 다락에 올라가서 그림을 익히니, 집안 사람들이 그가 있는 곳을 모르다가 3일 만에 비로소 찾았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를 매질하였는데, (그가) 울면서 눈물을 끌어당겨 새를 그리니, 이것은 그림 그리는 것에서 영예와 치욕을 잇는 것이라고 이를 만하다.

- 11 울면서 눈물을 끌어당겨 새를 그린 사람은 이징(李澄)이다.
- 13 이징은 눈물로 새를 그렸다. ① 李(리) 자두나무, 성, ② 失(실) 잃다, ③ 笞(태) 매질하다, ④ 淚(루) 눈물, ⑤ 辱(욕) 욕되다

#### [14~16] 풀이

학산수는 온 나라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그가) 산에 올라가 연습할 때, 매번 한 곡이 끝날 때에 모래를 주워 나막신에 던져서 나막신이 가득 차면 비로소 돌아왔다. (학산수가) 일찍이 도적을 만나 (도적들이) 장차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학산수가) 바람을 따라 노래하니 도적들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이것은 이른바 죽고 사는 것을 마음에 들이지 않은 것이다.

- 14 通國(통국): 온 나라. 전국(全國)
- 15 작은 모래알이 신발에 가득 찰 때까지 노래를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뜻이다.
- 16 ㄱ - 장수, ㄴ - 장래, ㄷ - 장교. ㄱ과 ㄷ은 ‘장수’의 의미로 쓰였고, ㄴ은 ‘장차’의 의미로 쓰였다.

#### [17~19] 풀이

만덕이라는 사람은 성이 김씨이고, 탐라 양가의 딸이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 기녀에게 의탁하여 살았다. <중략> 그 재주가 재물을 불리는 데에 뛰어나, 물건의 귀하고 천한 때를 맞추기에 능하여 (물건을) 팔거나 쌓아 두니 수십 년에 이르러 자못 (재물을) 모은 것으로써 이름이 알려졌다. 성상(정조) 19년인 을묘년에 탐라에 큰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를 베고 죽었다(죽은 이가 많았다.). <중략> 이때에 만덕이 천금을 내어 쌀을 사니, 육지 여러 군현의 사공들이 때맞추어 이르렀다. 만덕이 십 분의 일을 취하여 친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실어 보냈다.

- 17 서로를 베개로 삼아 베고[枕] 죽을[死] 만큼 죽은 사람이 많았음을 뜻한다.
- 18 10분의 1은 친족을 위해 쓰고 나머지는 전부 관가에 기부하였으므로 ㉠의 분량은 10분의 9, 즉 ‘十之九’이다.
- 19 이 글은 서사적인 서술 방식으로 쓰였다. 이 방식은 인물의 언행이나 사건의 경과 등을 사실 그대로 적는 방식이다.

## V 한시 감상

### 12 자연을 노래하며

소단원 평가 문제

125쪽

- 01 ②      02 ⑤      03 ④      04 ⑤      05 ⑤  
06 ④

- 01 ① 맥아당, ③ 봉선화, ④ 연습장, ⑤ 정류장
- 02 多少(다소): 많고 적음. 얼마나
- 03 ① ‘기구’에서 봄비가 가늘어 방울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② 형식은 오언 절구이다. ③ 운자는 聲(성)과 生(생)이다. ⑤ 봄이 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 04 ‘於’는 장소나 대상을 나타낼 때는, ‘~에, ~에서, ~에게’로 풀이되지만, 비교를 나타낼 때는 ‘~보다’로 풀이된다.
- 05 寒山(한산): 차가운 계절의 산. 늦가을 산.  
楓林(풍림): 단풍 든 숲.  
霜葉(상엽): 서리 맞은 단풍잎.
- 06 작중 화자는 수레를 타고 산길을 가다 단풍 든 숲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지만, 여행의 목적지나 대상은 알 수 없다.

### 13 이별을 노래하며

소단원 평가 문제

133쪽

- 01 ①      02 ②      03 ④      04 ③      05 ③  
06 ③

- 01 巡(순) 돌다, 回(회) 돌다, 雲(운) 구름, 康(강) 편안하다
- 02 因緣(인연), 抄錄(초록)
- 03 칠언 절구는 주로 ‘4자/3자’ 단위로 끊어 읽는다.
- 04 백발[鶴髮]이 되신 어머니[慈親]께서는 강릉[臨瀛]에 계신데[在].
- 05 작중 화자는 강릉을 떠나 장안(長安)을 향해 떠나고 있다.
- 06 ③ (가)의 화자는 ‘이별의 눈물 때문에 대동강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썼다. ① 운자는 多, 歌,

波이다. ② 형식은 칠언 절구이다. ④ 慈親은 ‘어머니’를 뜻한다. ⑤ 白雲飛는 ‘멀리 떠나는 자식이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함.’을 뜻하는 白雲孤飛의 고사를 인용한 표현이다.

## 14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며

### 소단원 평가 문제

141쪽

- 01 ⑤      02 ④      03 ①      04 ③      05 ③  
06 ②

- 01 [가로] 荷重(하중), [세로] 集荷(집하)  
02 ① 무덤: 塚, ② 누렁개: 黃犬, ③ 늙은이: 老翁, ⑤ 어린아이: 小兒  
03 ② 공간적 배경은 들밭이다. ③ 운자는 隨, 纍, 兒이다. ④ 시간적 배경은 저물녘이다. ⑤ 노인과 손자가 제사를 지내고 오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04 읍시의 함련과 경련 내에서 출구와 대구는 서로 대우를 이룬다. 출구의 花와 서로 대우를 이루는 시어는 대구의 같은 위치에 있는 鳥이다.  
05 집에서 부친 편지[家書]는 만금[萬金]에 해당하네[抵].  
06 이 시는 5자씩 8구로 이루어진 ‘오언 읍시’이다.

### 시험 대비 문제

144~145쪽

- 01 ④      02 ①      03 ①      04 ②      05 ④  
06 ①      07 ②      08 ④      09 ②      10 ①  
11 ③      12 ④      13 ②      14 ②      15 ⑤  
16 해설 참고      17 ⑤      18 ④

- 01 遠(원) 멀다, ① 多(다) 많다, ② 停(정) 머무르다, ③ 康(강) 편안하다, ④ 近(근) 가깝다, ⑤ 抗(항) 막다  
02 [가로] 記錄簿(기록부), [세로] 回顧錄(회고록)  
03 ① 秋(추) 가을, 毫(호) 털, ② 요원, ③ 내진, ④ 붕괴, ⑤ 개탄

### [04~07] 풀이

(가) 봄비가 가늘어 방울지지 않더니, 밤중에 희미하게 소리가 들리네. 눈이 녹아 남쪽 시냇물 불어났으리니, 풀삭은 얼마나 돌아났을까?  
(나) 백발이 되신 어머니께서는 강릉에 계신데, 이 몸은 장안을 향해 홀로 떠나는 심정이며, 고개 돌려 북촌을 때때로 한 번씩 바라보니, 흰 구름 떠가는 하늘 아래로 저녁 산이 푸르네.

- 04 雪盡(설진): 눈이 모두 녹음.

- 05 밤중[夜中]에 희미하게[微] 소리[聲]가 들리네[有].

- 06 鶴髮(학발): 두루미의 깃털처럼 희다는 뜻으로, 하얗게 센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이르는 말.

- 07 ㄱ - (가)의 제목은 ‘春興’이다. ㄴ - (나)의 주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다.

### [08~13] 풀이

(가) 멀리 늦가을 산을 오르자니 돌길이 비탈져 있고, 흰 구름 피는 곳에 인가가 있네. 수레를 세우고 앉아 저 물녘 단풍 숲을 즐기니, 서리 맞은 단풍잎이 이월 봄 꽃보다 붉도다.

(나) 국도는 파괴되었어도 산하는 남아 있는데, 도성에 봄이 오니 초목이 무성하네. 시절을 느끼니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고, 이별을 한스러워하니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하네. 봉화가 석 달 동안 이어지니, 집에서 부친 편지는 만금에 해당하네. 흰머리는 굵을수록 더욱 짧아지니, 도무지 동곳을 이겨 낼 수 없겠네.

- 08 ㉠ 돌길, ㉡ 이월 봄꽃, ㉢ 무성하다, ㉣ 동곳

- 09 서리 맞은 단풍잎[霜葉]이 이월[二月] 봄꽃[花]보다[於] 붉도다[紅].

- 10 (나)의 운자는 ‘深(심), 心(심), 金(금), 簪(잠)’이다.

- 11 밑줄 친 부분은 ‘花濺淚’를 변안한 것이다.

- 12 (가)는 寒山, 楓林, 霜葉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알 수 있고, (나)는 城春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 수 있다.

- 13 ① 가을 산을 표현하였다. ③ 시의 배경이 어촌인지는 시를 통해 알 수 없다. ④ ‘家書[집에서 부친 편지]’라는 시어로 보아 작자는 가족과 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해당 내용은 시에 나와 있지 않다.

### [14~18] 풀이

(가) 비 갠 긴 독에는 풀빛이 짙은데, 남포에서 그대를 전송하니 슬픈 노래 북받치네. 대동강 물은 어느 때에 다 마를까?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지네.

(나) 흰 개가 앞서가고 누렁개가 따라가는데, 들밭 잡초 사이로 무덤이 연이어 있네. 노옹이 제사 끝낸 뒤 발사 사이 길로, 저물녘 취해서 돌아오는데 어린아이가 부축하네.

- 14 ㉠ 우혈, ㉡ 룡파, ㉢ 제파, ㉣ 일모

- 15 시에서 ‘돛단배’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① 풀 - 草, ② 둑 - 堤, ③ 남포 - 南浦, ④ 대동강 - 大同江

- 16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강물에 더해지기 때문이다.

- 17 어린아이[小兒]가 부축하네[扶].

- 18 ① ‘4자/3자’로 띄어 읽는다. ② 운자는 기구, 승구, 결구의 끝에 있다. ③ 작자는 슬픔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⑤ 전쟁으로 피폐해진 시대의 비극을 이야기하였다.

## VI 전통문화와 역사 인식

### 15 우리의 명절

소단원 평가 문제

155쪽

- 01 ⑤    02 ③    03 ④    04 ①    05 ①  
06 ④

- 01 ① 배척, ② 작금, ③ 분초, ④ 확산, ⑤ 줄고  
02 ㄱ - 연, ㄴ - 집, ㄷ - 해, ㄹ - 연  
03 茶禮(차례), 歲粧(세장), 歲拜(세배) 등의 단어를 통해서 설날의 풍속임을 알 수 있다. ④ 元日(원일): 한 해의 으뜸이 되는 날로, 설날을 가리킴. ① 추석, ② 단오, ③ 한식, ⑤ 동지  
04 큰[大] 부[部]의[之] 뜰[庭]에 모여[集].  
05 '세속에서 秋夕이라고 칭하고, 또 嘉排라고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秋夕(추석)과 嘉排(가배)가 같은 의미를 알 수 있다. ② 신라, ③ 왕녀, ④ 육부, ⑤ 적마  
06 진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접한 것이다.

### 16 단군 신화

소단원 평가 문제

163쪽

- 01 ②    02 ②    03 ④    04 ③    05 ③

- 01 帥(수) 장수, 師(사) 스승  
02 之는 '그곳'으로 풀이된다. 之는 환인이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곳, 즉 '삼위태백'을 가리킨다.  
03 함께[與] 혼인[婚]할[爲] 사람이 없었다[無].  
04 而是 문맥상 '그리고'의 의미로 쓰였다.  
05 인간 세상의 삼백육십여 가지 일을 주관한 것은 환인이 아니라 '환웅'이다.

### 17 발해고서

소단원 평가 문제

171쪽

- 01 ④    02 ③    03 ③    04 ④    05 ①  
06 ⑤    07 高麗

- 01 [가로] 修飾(수식), [세로] 編修(편수)  
02 항상[常(상)] 평준하게[平(평)] 하기 위한 창고[倉(창)].

① 둔전, ② 돌궐, ④ 제주도, ⑤ 고구려

- 03 고 씨[高氏]가 북쪽[北]에[于] 살다[居].  
04 '마땅히 그 삼국의 역사가 있어야 해서 고려가 그것[之]을 편찬하였으니'로 풀이되므로 之가 三國史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06 대 씨가 그 북쪽을 소유하여 발해라고 하였으므로, 발해 왕족의 성씨는 大氏임을 알 수 있다. ① 고씨, ② 부여 씨, ③ 박씨, ④ 김씨  
07 유득공은 고려가 남북국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며 고려를 비판하였다.

시험 대비 문제

174~175쪽

- 01 ①    02 ④    03 ②    04 ②    05 ③  
06 ①    07 ③    08 ③    09 ⑤    10 ①  
11 ③    12 ④    13 ④    14 ③    15 ④  
16 ④    17 ②

- 01 ① 何(하) - 賀(하), ② 新(신) - 年(년), ③ 契(계) - 梁(량), ④ 神(신) - 禪(선), ⑤ 散(산) - 謹(근)  
02 集(집) 모이다, ① 今(금) 이제, ② 中(중) 가운데, ③ 男(남) 남자, ④ 散(산) 흩어지다, ⑤ 拙(졸) 서툴다  
03 [가로] 染色(염색), [세로] 汚染(오염)  
[04~09] 풀이

(가) 서울 풍속에, 새해에 가묘를 찾아뵙고 제사를 행하니, (이것을) '차례'라고 하고, 남녀 중에 나이가 적고 (항렬이) 낮고 어린 사람들이 모두 새 옷을 입으니, (이것을) '세장'이라고 하며, 친척과 웃어른을 찾아뵙니, (이것을) '세배'라고 한다.

(나)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었으니, 자주 하늘 아래 뜻을 두어 사람이 사는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하였다.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고, 가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삼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으니, 그곳을 신시라 불렀고, 이 분은 황웅 천왕이라 불렀다.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려서 농사를 주관하고, 운명을 주관하고, 병을 주관하고, 형벌을 주관하고, 선악을 주관하니, 무릇 인간 세상의 삼백육십여 가지 일을 주관하였으며,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 04 數(수)는 '자주'라는 뜻으로 쓰이면 '삭'으로 읽는다.  
05 모두[皆] 새[新] 옷[衣]을 입다[着].  
06 ① 세배, ② 세월, ③ 세수, ④ 원일, ⑤ 원단  
07 ③은 환웅이 했던 일이다.



## [10~13] 풀이

- (가) 웅녀가 함께 혼인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매번 신단수 아래에서 잉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빌었다. 환웅은 이에 임시로 (사람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하고, (웅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단군왕검'이라 부른다.
- (나) 옛날에 고 씨가 북쪽에 살아 고구려라 하였고, 부여 씨가 서남쪽에 살아 백제라 하였으며, 박·석·김 씨가 동남쪽에 살아 신라라 하였으니, 이를 삼국이라 이른다. 마땅히 그 삼국의 역사가 있어야 해서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였으니 옳다.

10 ㉠ 매번, ㉡ ~에, ㉢ 이것, ㉣ 편찬하다

11 부여 씨[扶餘氏]가 서남쪽[西南]에[于] 살았다[居].

12 ④ 웅녀의 형제 관계는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① 기도 내용: 잉태할 수 있기를 기원함. ② 기도 장소: 신단수 아래. ③ 혼인 상대: 임시로 사람으로 변한 환웅. ⑤ 아들의 호칭: 단군왕검.

13 ㄷ - 삼국 시대에 고구려는 한반도의 북쪽에 있었다.

## [14~17] 풀이

- (가) 세속에서 추석이라고 칭하고, 또 가배라고도 한다. 삼국사를 살펴보면 신라의 유리 이사금이 왕의 딸 두 사람으로 하여금 6부의 여자들을 나누어 거느리게 하여, 7월 보름으로부터 큰 부의 뜰에 모여 길쌈을 하되, 을야에 멈추게 하였다. 팔월 보름에 이르러 그 공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진 사람들은 술과 음식을 차려서 이긴 사람들에게 사례하였다. 이때에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가 모두 행해지니, 그것을 가배라 이른다.
- (나) 고려가 발해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았으니, 고려가 (세력을) 떨치지 못했음을 알겠다. <중략> 부여 씨가 망하고 고 씨가 망함에 이르러 김 씨가 그 남쪽을 소유하였고, 대 씨가 그 북쪽을 소유하여 발해라 하니, 이를 남북국이라 이른다. 마땅히 그 남북국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지 않았으니 잘못이다. 무릇 대 씨는 누구인가? 바로 고구려의 사람이다. 그가 소유한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고구려의 땅이다.

14 진[負] 사람들[者]은 술[酒]과 음식[食]을 차렸다[置].

15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를 뜻한다.

16 ㉡ 고려가 그것[之]을 편찬하지 않았다. ㉢ 바로 고구려의[之] 사람이다.

17 ① 嘉排는 삼국사에 기록되어 있다. ③ 추석의 유래가 산업 구조의 변화와 관련 있다는 설명은 본문에 없다. ④ 고려와 북방 민족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발해의 왕족이 고구려 왕족의 직계 후손이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VII 철학 고전 읽기

### 18 논어

소단원 평가 문제

185쪽

- 01 ①      02 ④      03 克己復禮      04 ④  
05 ④      06 ②

- 01 ① 則(즉): ~하면, ② 以(이): ~로써, ③ 而(이): 그리고, 그러나, ④ 與(여): ~와 더불어, ⑤ 若(약): 만약
- 02 朝(조)는 보통 '아침'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朝廷(조정)'의 뜻으로 쓰였다.
- 03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가는 것, 즉 克己復禮(극기복례)가 仁(인)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04 인[仁]을 행하는[爲] 것은 내[己]에게 달려 있으니[由].
- 05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할 것이 兵, 다음이 食이고, 마지막으로 信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요한 순서로 놓으면 '信 - 食 - 兵'이 된다.
- 06 자공은 공자에게 정치[政]에 대해 물었고, 공자는 이에 대해 답하였다.

### 19 맹자

소단원 평가 문제

193쪽

- 01 ④      02 ④      03 ②      04 ⑤      05 ⑤  
06 ④

- 01 ㉠ 猛(맹) 사납다, ㉡ 促(촉) 재촉하다
- 02 쳐서[搏而] 그것[之]을 튀어 오르게[躍] 하면.
- 03 사람[人]은 선하지[善] 않음[不]이 있지[有] 않다[無].
- 04 放(방) 방탕하다, 辟(벽) 편벽되다, 邪(사) 사악하다, 侈(치) 사치하다.
- 05 하지[爲] 않음[不]이 없을[無] 것이다[已].
- 06 ㉢의 바로 뒤에서 '이것은 백성[民]을 그물질하는[罔] 것'이라고 하였다.

### 20 도덕경 · 장자

소단원 평가 문제

201쪽

- 01 ③      02 水      03 ①      04 ④      05 ②  
06 ①

- 01 ㄱ - 法은 여기서 '본받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ㄴ - 人,

地, 天, 道, 自然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 02 '최상[上]의 선[善]은 물[水]과 같다[若].'로 풀이한다. 뒤 문장의 내용을 통해 善의 의미를 물[水]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3 여러 사람[衆人]이[之] 싫어하는[惡] 곳[所]에 머문다[處].
- 04 ㉠ 베다, ㉡ 멈추다, ㉢ 이유, ㉣ 명령하다
- 05 枝(지) 가지, 葉(엽) 잎
- 06 ㉣의 바로 앞에 '재목이 아니기 때문에[以不材]'라는 말이 있다. 즉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 시험 대비 문제

204~205쪽

- |      |      |      |      |      |
|------|------|------|------|------|
| 01 ㉡ | 02 ㉠ | 03 ㉣ | 04 ㉠ | 05 ㉠ |
| 06 ㉠ | 07 ㉢ | 08 ㉡ | 09 ㉠ | 10 ㉡ |
| 11 ㉣ | 12 ㉢ | 13 ㉢ | 14 ㉢ | 15 ㉢ |
| 16 ㉠ |      |      |      |      |

- 01 錯覺(착각), 觸覺(촉각), 感覺細胞(감각세포)
- 02 見(견) 보다 - 閱(열) 보다, 終(종) 끝나다 - 了(료) 끝나다, 猛(맹) 사납다 - 盟(맹) 맹세하다, 退(퇴) 물러나다 - 逐(축) 쫓다
- 03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 04 마구간이 불탔는데, 공자께서 퇴청하셔서 "사람[人]이 다 찼[傷]느냐[乎]?" 하시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
- 05 자신(자기의 사욕)을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을 행하는 것이니, 하루 동안이라도 자신을 이겨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인(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으니,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겠는가?

#### [06~08] 풀이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식량을 충분히 하고 군사를 충분히 하고 백성이 신뢰하게 하는 것이다." 자공이 말했다. "반드시 부득이해서 버려야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사를 포기해야 한다." 자공이 말했다. "반드시 부득이해서 버려야 한다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 예로부터 (사람은) 모두 죽음이 있지만(죽지만)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 06 ㉡ 버리다, 포기하다, ㉢ ~로부터
- 08 앞에서 군사[兵]를 포기하라고 하였고, 뒤에서는 백성의 믿음[信]이 없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食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 [09~10] 풀이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으니, 사람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며, 물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음이 없다. 지금 무릇 물을 쳐서 그것을 튀어 오르게 하면 (물로 하여금) 이마를 넘게 할 수도 있으며, (물살을 막아) 격렬하게 하여 그것을 흐르게 하면 (물로 하여금) 산에 있게 할 수도 있으나,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 09 ㉠ 猶(유)는 여기서 '같다'의 의미로 쓰였다.
- 10 이 글은 사람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사람[人]은 선하지[善] 않음이[不] 없음[無有]을 말하고 있다.

#### [11~12] 풀이

진실로 항심이 없다면 방탕함, 편벽됨, 사악함, 사치함을 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죄에 빠짐에 이른 뒤에 (죄에) 따라서 그를 형벌한다면 이것은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까닭으로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 주되, 반드시 (백성으로 하여금) 위로는 부모님을 섬기는 데 충분하게 하며, 아래로는 처자식을 기르는 데 충분하게 하여, 풍년에는 일 년 내내 배부르게 하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 11 ㉢ 罔(망)은 여기서 '그물질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12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明君의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제시된 글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 [13~14] 풀이

(가)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나) 최상의 선(善)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공을) 다투지 않으며, 여러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거의 도(道)에 가깝다.

- 13 人, 地, 天, 道, 自然의 관계를 연쇄법으로 설명하였다.
- 14 (나)의 ㉡은 '잘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善惡'의 善은 '착하다'의 의미이다.

#### [15~16] 풀이

장자가 산속을 가다가 큰 나무가 가지와 잎이 무성한 것을 보았다. 나무를 베는 사람이 그 곁에 멈추었으나 (그 나무를) 취하지 않았다. (장자가) 그 이유를 물으니, (나무를 베는 사람이) 말하였다. "쓸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장자가 말하였다. "이 나무는 재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천 년(타고난 수명)을 마칠 수 있게 되었구나." 선생님께서 산에서 나오셔서 옛 친구의 집에서 머무르시니, 친구가 기뻐하며 어린 종에게 명하여 거위를 잡아 삶도록 하였는

데, 어린 종이 물었다. “그중 한 마리는 잘 울고, 그중 한 마리는 잘 울지 못하니, 청컨대 어느 쪽을 잡을까요?” 주인이 말하였다. “잘 울지 못하는 놈을 잡아라.”

- 15 命은 ‘목숨’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명령하다’로 풀이한다.  
16 ‘天年’은 ‘타고난 수명을 제대로 다 사는 나이’를 뜻한다.

## VIII 한문 산문 감상

### 21 온달

#### 소단원 평가 문제

215쪽

- 01 ㉠ 02 ㉢ 03 ㉢ 04 ㉠ 05 ㉠  
06 ㉢

- 01 ㉠ 평강왕, ㉠ 상부 고 씨, ㉠ 필부(평범한 사람), ㉠ 지존(지극히 존귀한 존재, 즉 평강왕을 가리킴.)  
02 ‘破衫弊履, 往來於市井間[떨어진 옷과 해진 신으로 시장 사이를 오가다.]’으로 보아 불품없는 옷차림으로 돌아다녔음을 알 수 있다.  
03 ㉠ ‘容貌’은 ‘용모’로 읽는다. ㉡ ‘可笑’의 대상은 ‘溫達(온달)’이다. ㉣ ‘則’은 ‘~하면’의 뜻이다. ㉤ ‘粹然’은 ‘순수한 모양’을 뜻한다.  
04 항상[常] 음식[食]을 구걸[乞]해서[以] 어머니[母]를 봉양했다[養].  
05 食言(식언)이란 한번 입 밖에 낸 말을 도로 입속에 넣는다는 뜻으로, 약속한 말대로 지키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大王(대왕)은 공주를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상부 고 씨에게 시집가라고 하며 말을 바꾸었다.  
06 공주는 ‘歸之愚溫達[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이라는 대왕의 처음 명령을 따르기로 하고 상부 고 씨에게 시집가라는 명령을 거절한 것이다. ㄷ과 ㄹ은 제시된 글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 22 두 아들에게

#### 소단원 평가 문제

223쪽

- 01 ㉠ 02 ㉢ 03 ㉠ 04 ㉠ 05 ㉤

- 01 稍勝(초승): 조금 나아지다.

- 02 勿(물)과 無(무)는 ‘~하지 말라’와 같이 금지의 뜻을 나타낸다.  
03 尤當何如是 ‘더욱이 마땅히 어찌 되겠느냐?’라는 뜻이다. 즉 글을 배우지 않고 예의가 없다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04 “책을 읽거나 몸가짐을 삼가는 것을 잘한다고 들으면 이로써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05 부인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은 제시된 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ㄹ은 ‘預關此心耳’를 통해 알 수 있다.

### 23 잡설

#### 소단원 평가 문제

231쪽

- 01 ㉢ 02 ㉤ 03 ㉢ 04 ㉠ 05 ㉤  
06 ㉠

- 01 與(여)는 ‘~와’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授(수) 주다’와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02 항상[常] 있는[有] 것만은 아니다[不]. 즉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03 ㉣의 食은 ‘먹다’의 뜻으로 쓰여 ‘식’으로 읽고, ㉣의 見은 ‘드러나다’의 뜻으로 쓰여 ‘현’으로 읽는다.  
04 ㉣는 ‘어찌 그 말이 천 리 갈 수 있기를 바라겠는가?’라는 뜻이다. 즉 이것은 ‘천 리를 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05 千里馬: 천 리를 갈 수 있는 말. 良馬: 좋은 말. 名馬: 이름난 말.

#### 시험 대비 문제

234~235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해  
설 참고 16 ㉠

- 01 ㉡ 努(노) 힘쓰다 - 力(력) 힘, 힘쓰다, ㉠ 職(직) 직분 - 識(식) 알다, ㉢ 愚(우) 어리석다 - 智(지) 지혜, ㉣ 弊(폐) 해지다 - 幣(폐) 화폐, 비단, ㉤ 每(매) 매양 - 侮(모) 업신여기다  
02 ㉡ 出馬(출마): 말을 타고 나감. 선거에 입후보함. ㉠ 구박, ㉢ 기마, ㉣ 양마, ㉤ 소란  
03 ㉢ 桑田碧海(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흥안지례 ㉡ 혼정신성 ㉣ 천고마비 ㉤ 사주단자

**[04~09] 풀이**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 사람이다. 얼굴 생김새는 볼품 없어 옷을 만하였으나 속마음은 순수하였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항상 음식을 구걸하여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떨어진 옷과 해진 신으로 시정 사이를 오가니 그때 사람들이 그를 지목하여 바보 온달이라고 하였다.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여 왕이 놀리며 말했다. “너는 항상 울어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자라면 반드시 사대부의 아내가 될 수 없을 것이요, 마땅히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야겠다.”라고 하며 왕이 매번 그것을 말하였다. 딸의 나이 열여섯 살에 이르러 상부(上部)의 고 씨(高氏)에게 시집을 보내고자 하니, 공주가 마주 대하여 말하였다.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바보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하시더니, 지금 무슨 까닭으로 전에 하신 말씀을 바꾸십니까? 필부도 오히려 식언을 하고자 하지 않거늘 하물며 지존께서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하기를 ‘임금은 실없는 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대왕의 명령은 잘못되었으니, 저는 감히 (그 명령을) 공경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 04** 目(목)은 여기서 ‘지목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05** 大王(대왕)과 至尊(지존)은 모두 平岡王(평강왕)을 가리킨다.  
**06** 前言(전언) 즉 대왕이 전에 한 말은 “너는 반드시 바보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다[汝必爲溫達之婦.]”이다.  
**07** 필부도 식언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 식언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왕에게 ‘신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 것이다.  
**08** 왕이 ‘상부 고 씨에게 시집가라.’고 한 명령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은 ‘온달에게 시집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09** ㄱ은 제시된 글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10~13] 풀이**

편지가 오니 마음에 위안이 된다. 둘째 아이는 필법(筆法)이 조금 나아지고 문리 또한 진보가 있으니, 나이의 덕분이나? 아니면 혹 때에 맞게 배우고 익혀서 그런 것이냐? 절대로 자포(자포자기)하지 말고, 뜻을 다하여 부지런히 힘써서 책을 읽고, 책을 베끼고, 글을 짓는 일에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라. 폐족이면서 글을 배우지 않고 예의가 없다면 더욱이 마땅히 어찌되겠느냐? 보통 사람에 비해 모름지기 백배의 공력을 더하여야만 겨우 사람 축에 들게 될 것을 헤아려 볼 수 있을 뿐이다. 나는 고생이 매우 많다. 그러나 너희들이 ‘책을 읽거나 몸가짐을 삼가는 것’을 잘한다고 들으면 이로써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 큰 아이는 모름지기 4월 초열흘이 지난 뒤에 말을 사서 타고 오도록 하여라. 그러나 이별의 슬픈 마음이 벌써 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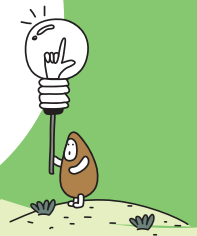
- 10** 勝(승)은 ‘나아지다’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優勝(우승)’의 勝(승)과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11** 凡人(범인):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13** 정약용은 편지에서 자신의 가문을 ‘廢族(폐족)’이라고 하였다.

**[14~16] 풀이**

세상에 백락이 있는 뒤에 천리마가 있을 수 있다. 천리마는 항상 있으나 백락은 항상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훌륭한 말이 있더라도 다만 노예의 손에 치욕을 당하고 말구유와 마판 사이에서(마구간에서) (평범한 말과) 나란히 죽어서 천리마라 불리지 못한다. 말 중에 천리를 가는 것은 한 번 먹을 때에 혹 곡식 한 섬을 다 먹기도 하거늘, 말을 먹이는 사람은 그 말이 천 리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먹인다. 이 말은 비록 천 리를 갈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먹는 것이 배부르지 않고 힘이 부족하여 재주와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또 평범한 말과 같아지고자 하여도 같아질 수 없으니, 어찌 그 말이 천 리를 갈 수 있기를 바라겠는가? 그것을 채찍질하기를 그에 맞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먹이기를 그 재능을 다할 수 없게 하며, 울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채찍을 잡고 다가가서 말하기를 “천하에 좋은 말이 없다.”라고 하니 아! 참으로 (훌륭한) 말이 없는 것인가? 참으로 (훌륭한) 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가?

- 14** 見(견)은 여기서 ‘드러나다’의 뜻으로 쓰였으므로 ‘현’으로 읽는다.  
**15** 세상에는 뛰어난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을 지닌 사람이 없는 것이다.  
**16** 千里馬(천리마), 名馬(명마), 良馬(양마)는 모두 뛰어난 능력을 지닌 말로, 뛰어난 인재를 가리킨다.

# 정답친해



|      |             |     |
|------|-------------|-----|
| I    | 한문의 기초      | 238 |
| II   | 성어의 이해와 활용  | 238 |
| III  | 속담과 격언      | 239 |
| IV   | 일화와 인물      | 241 |
| V    | 한시 감상       | 242 |
| VI   | 전통문화와 역사 인식 | 244 |
| VII  | 철학 고전 읽기    | 245 |
| VIII | 한문 산문 감상    | 247 |



## I 한문의 기초

### 시험 대비 문제

24~25쪽

|          |                         |               |      |
|----------|-------------------------|---------------|------|
| 01 ③     | 02 해설 참고                | 03 ⑤          | 04 ④ |
| 05 ②     | 06 ②                    | 07 ㉠ 뿌리, ㉡ 근본 | 08 새 |
| 가 입으로 읊. | 09 ①                    | 10 ㉠ 刀, ㉡ 手   |      |
| 11 ③     | 12 耳, 目                 | 13 ⑤          | 14 ② |
| 15 ②     | 16 (1) 달이 밝음. (2) 밝은 달. | 17 ⑤          | 18 ④ |

- 01 우리나라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뒤에도 한자를 주요한 문자 도구로 사용하였다.
- 02 원활한 언어생활, 한자 문화권의 소통과 교류, 건전한 가치관 및 바람직한 인성 함양,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 04 ① 禾(화) 벼, ② 知(지) 알다, ③ 占(점) 점, ⑤ 斤(근) 도끼
- 05 받침은 나중에 쓴다.
- 06 ① 魚(어) 물고기, ② 龜(귀) 거북, ③ 馬(마) 말, ④ 象(상) 코끼리, ⑤ 弔(조) 조문하다
- 08 口(구) 입 + 鳥(조) 새 = 鳴(명) 울다 → 새가 입으로 읊.
- 09 言(언) 말쑥 + 丁(정) 빗짜 천간 = 訂(정) 바로잡다  
水(수) 물 + 共(공) 함께 = 洪(홍) 큰물, 넓다
- 11 한자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음과 뜻으로 쓰인다. 更(갱) 다시, (경) 고치다, 시각 / 降(강) 내리다, (향) 행복하다.  
㉠ 更生(갱생), ㉡ 乘降(승강), ㉢ 投降(투항)
- 12 耳聞目見(이문목견):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
- 13 ⑤ 遷[옮기다(서술어)] + 都[도읍을(목적어)], ① 日[해가(주어)] + 出[뜨다(서술어)], ② 人[사람이(주어)] + 造[만들다(서술어)], ③ 歸[돌아가다(서술어)] + 家[집에(보어)], ④ 渡[건너다(서술어)] + 江[강을(목적어)]
- 14 良藥, 苦於口(양약, 고어구): 좋은 약은 입에 쓰다.
- 15 而是 '그러나'의 의미로 쓰였다. 자식[子]이 봉양[養]하고 자[欲] 하나[而] 부모님[親]은 기다려[待] 주시지 않는[不]다[也].
- 16 한자는 단어나 문장 안에서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풀이된다. 明은 (1)에서는 서술어로, (2)에서는 수식어로 쓰였다.
- 17 ⑤ 招[부르다] + 聘[부르다] - 병렬 관계, ① 品貴(품귀): 물건이 귀함. - 주술 관계, ② 日出(일출): 해가 뜸. - 주술 관계, ③ 人造(인조): 사람이 만들. - 주술 관계, ④ 夜深(야심): 밤이 깊음. - 주술 관계
- 18 ㉠은 서술어이다. (가) 학문은 이루기가 어렵다. (나)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

## II 성어의 이해와 활용

### 03 성어 입문

#### 소단원 평가 문제

35쪽

|      |      |      |      |      |
|------|------|------|------|------|
| 01 ② | 02 ① | 03 ② | 04 ② | 05 ④ |
|------|------|------|------|------|

- 01 ㉠ 足球: 발로 공을 차서 겨루는 경기. ㉡ 不足: 충분하지 않음. ㉢ 蛇足: 뱀의 발.
- 02 異議(이의), 異邦人(이방인). ① 異(이) 다르다, ② 同(동) 같다, ③ 翼(익) 날개, ④ 共(공) 함께, ⑤ 田(전) 밭
- 03 我田引水(아전인수):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 04 臨機應變(임기응변):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
- 05 (가) 용문에 오름.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게 됨. 또는 그 관문. (나)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남.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 (다) 비단 위에 꽃을 더함.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 (라) 쇠귀에 경 읽기.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이르는 말.

### 04 역사 속의 성어

#### 소단원 평가 문제

43쪽

|      |      |      |      |      |
|------|------|------|------|------|
| 01 ① | 02 ③ | 03 ② | 04 ④ | 05 ② |
| 06 ④ |      |      |      |      |

- 01 ②와 ⑤는 '죽다', ③과 ④는 '달아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① 멸망, ② 망혼, ③ 도망, ④ 망명, ⑤ 망령
- 02 白眉(백미)는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통하는 성어는 拔群(발군), 傑出(결출), 壓卷(압권)이다. 脅迫(협박)은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함.'을 뜻한다.
- 03 물[水]을 등지고[背] 치는 진[陣].
- 04 (라) 唇亡齒寒(순망치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림. 즉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
- 05 (가) 完璧(완벽): 결함이 없이 완전함. (다) 咸興差使(함흥차사): 심부름을 가서 오지 않거나 늦게 온 사람.
- 06 ④ 마량의 눈썹 가운데 흰 털이 있어서, 이런 까닭으로 그렇게(백미라고) 불렸다. ① 마량의 형이 다섯 명이 아니라, 마 씨 형제가 모두 다섯 명이다.

## 05 비유가 담긴 성어

### 소단원 평가 문제

51쪽

01 ③      02 ⑤      03 ①      04 ④      05 ④

- 01 ③ 守(수) 지키다 - 衛(위) 지키다, ① 添(침) 더하다 - 減(감) 덜다, ② 副(부) 버금 - 削(삭) 깎다, ④ 左(좌) 왼쪽 - 右(우) 오른쪽, ⑤ 賤(천) 천하다 - 待(대) 기다리다
- 02 ㉠ 成長勢(성장세): 어떤 일이나 상태가 자라 가는 형세.  
㉡ 委員長(위원장): 위원 가운데 우두머리.
- 03 胡蝶夢(호접몽): 나비에 관한 꿈. 인생의 덧없음.
- 04 (가) 토끼[兔]를 기다리다[待], (나) 산[山]을 옮기다[移], (다) 검[劍]을 구하다[求], (라) 변방[塞] 늙은이[老]
- 05 시대는 이미 변화였는데 법은 변하지 않았으니, 이것[此] 으로써[以] 정치[治]를 한다면[爲]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 시험 대비 문제

54~55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⑤      05 ②  
06 ①      07 ⑤      08 ②      09 ⑤      10 ③  
11 ②      12 ①      13 ⑤      14 ③      15 ②  
16 ④      17 馬良      18 해설 참고

- 01 ㉠ 異(이) 다르다, ㉡ 陳(진) 늘어놓다
- 02 ㉢ 待機(대기)-기다리다. 滅亡(멸망), 亡魂(망혼), 逃亡(도망), 賤待(천대)
- 03 [가로] 削減(삭감), [세로] 添削(첨삭)
- 04 蝶(접) 나비, 蜂(봉) 벌, 螢(형) 반딧불이  
ㄱ - 蝶泳(접영), ㄴ - 蜂起(봉기), ㄷ - 踏查(답사),  
ㄹ - 螢光燈(형광등)
- 05 제시된 성어는 九死一生(구사일생)과 四面楚歌(사면초가)이다. 九(9)+四(4)=13.
- 06 壓卷(압권), 傑出(결출)
- 07 同床異夢(동상이몽): 같은 자리 다른 꿈.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판생각을 하고 있음.
- 08 글에서 할머니는 쇠 절굿공이를 날마다 갈아 바늘로 만들고자 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글은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의 ② 愚公移山(우공이산)과 관계있다.
- 09 長蛇陣(장사진), 一長一短(일장일단)
- 10 脣[입술] → 亡[없어지면] → 齒[이가] → 寒[시림]
- 11 徹頭徹尾(철두철미): 머리[頭]부터 꼬리[尾]까지 모두 통함[徹].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 12 (가)의 長(장)은 '자라다'의 의미이다. 助長(조장): 자라

는 것을 도움.

- 13 指鹿爲馬(지록위마)는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다. ⑤에는 문맥상 '심부름을 가서 오지 않거나 늦게 온 사람'을 뜻하는 咸興差使(함흥차사)가 알맞다.
- 14 ① 蛇(사) 뱀, ② 狐(호) 여우, 虎(호) 호랑이, ④ 鹿(록) 사슴, 馬(마) 말, ⑤ 兔(토) 토끼
- 15 항우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자신의 의지를 병사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러한 항우의 행동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더는 물러설 수 없음'을 뜻하는 背水陣(배수진)과 관계있다.

### [16~17] 풀이

(가) 시대는 이미 변화였는데 법은 변하지 않았으니, 이것으로써 정치를 한다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나) "마 씨의 다섯 형제 중에 '백미'가 가장 뛰어났다."라고 하였으니, 마량의 눈썹 가운데 흰 털이 있어서 이런 까닭으로 그렇게 불렀다.

- 16 最良(최량): 가장 뛰어나다.
- 17 良은 馬良(마량)의 이름을 줄여서 나타낸 것이다.
- 18 塞翁之馬는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고 풀이하며,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 Ⅲ 속담과 격언

### 06 속담에 담긴 지혜

#### 소단원 평가 문제

65쪽

01 ③      02 ②      03 ②      04 ②      05 ③  
06 ⑤

- 01 ③ 飢(기) 굶주리다 - 餓(아) 굶주리다, ① 往(왕) 가다 - 來(래) 오다, ② 湯(탕) 끓이다 - 藥(약) 약, ④ 確(확) 굳다 - 率(률) 비율, ⑤ 立(립) 서다 - 臥(와) 눕다
- 02 ② 飯(반) 밥. 朝飯(조반), 麥飯石(맥반석)
- 03 ㉠은 '공[功]을 쌓다[積]'로, 뒤에 있는 한자부터 풀이한다. ㉡의 不屈(불굴)도 '굽히지[屈] 않음[不]'으로, 뒤에 서부터 풀이한다.
- 05 ㉠ 거느리다, ㉡ 아이, ㉢ 굴, ㉣ 눕다
- 06 (마)는 3일이 걸리는 일을 하루 만에 끝내려다가 도리어 해를 입었다는 뜻이므로, 제시된 중국 속담과 의미가 통한다.

## 07 내면을 밝히는 글

소단원 평가 문제

73쪽

01 ② 02 ⑤ 03 ④ 04 ⑤ 05 ④

06 更鳴, 울음소리를 고치다.

- 01 홀로[獨(독)] 있을 때에도 삼가다[愼(신)].  
 02 衆寡不敵(중과부적): 적은 수효로 많은 수효를 대적하지 못함.  
 03 子(자)는 ‘너’라는 뜻으로 쓰인다. 我(아) 나, 予(여) 나, 吾(오) 나  
 04 ‘不知不及於人’은 문맥상 ‘남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로 풀이되므로 ㉠에는 ‘~에게’의 의미를 지닌 於(어)가 알맞다.  
 05 ㉠ 惡(오) 싫어하다, ㉡ 更(경) 고치다

## 08 관계를 밝히는 글

소단원 평가 문제

81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④ 05 ①

06 ①

- 01 ① 호언, ② 과언, ③ 예언, ④ 확언, ⑤ 교언  
 02 ㉠ 금석이나 옥구슬보다, ㉡ 세력으로써 사귀는 사람.  
 03 남[人]이[之] 나[我]를 의심하는[疑] 것[者].  
 04 대감이 죽은 뒤에는 그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으나 대감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대감 집 말이 죽으면 대감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조문을 간다는 뜻이다.  
 05 ① 부활, ② 광복, ③ 복구, ④ 회복, ⑤ 복습  
 06 도끼 주인의 잘못은 이웃집 아들을 疑心(의심)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시험 대비 문제

84~85쪽

01 ① 02 ① 03 ④ 04 ⑤ 05 ②  
 06 ③ 07 일일왕 08 ② 09 ④ 10 ③  
 11 ② 12 해설 참고 13 ② 14 ④  
 15 ⑤ 16 ④ 17 ③ 18 ④

- 01 ① 식경, ② 허기, ③ 포화, ④ 기아, ⑤ 분식  
 02 [가로] 巧言令色(교언영색), [세로] 確言(확언)  
 03 열 그릇의 밥에서 한 숟가락씩 덜면 다시 한 그릇의 밥이 된다. 즉 이 글은 여럿이 각각 조금씩 도와주어 큰 보탬이 된다는 뜻으로, 협동을 강조하고 있다.  
 04 사람의 근심(憂)은 항상 내가 남보다 뛰어난 것은 알되,

남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데 있다.

05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 없다.

[06~07] 풀이

삼 일의 길을 하루 만에 가고 열흘 동안 눕는다.

06 삼 일[三日]의[之] 길[程].

07 3일이 걸리는 길을 하루 만에 가려고 서두르다가 도리어 열흘을 몸져누웠으므로,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통하는 것은 ‘일일왕[一日往: 하루 만에 가다.]’이다.

[08~09] 풀이

(가) 아이가 (등에) 업혀 있는데, 삼 년 동안 찾는다.  
 (나) 남에게 (좋은) 말을 주는 것이 금석이나 옥구슬보다 소중하다.

09 重(중)은 주로 ‘무겁다’, ‘무게’, ‘중요하다’, ‘소중하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여기서는 ‘소중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10~11] 풀이

(가) 남이 나를 의심하는 것은 (나의) 평소 행동이 남에게 믿음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 세력으로써 사귀 사람은 세력이 기울어지면 끊어지고, 이익으로써 사귀 사람은 이익이 다하면 흩어진다.

10 ㉠ 남이 나를 의심하는 것[者], ㉡ 세력으로써 사귀 사람[者]

11 이익[利]이 다해[窮]면[則] 흩어진다[散].

[12~13] 풀이

울째미가 말하기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의 울음소리를 싫어하여, 이 때문에 동쪽으로 이사 간다.” 비둘기가 말하기를, “네가 울음소리를 고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울음소리를 고칠 수 없다면 동쪽으로 이사 가더라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너의 소리를 싫어할 것이다.”

12 사람들이 자신의 울음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13 네[子]가 울음소리[鳴]를 고칠[更] 수 있다면[能].

[14~15] 풀이

마땅히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겉과 속을 한결같이 하라. 어두운 곳에 거처해도 환한 것처럼 하고 혼자 거처할 때에도 여럿이 있는 것처럼 하라.

14 어두운 곳[幽]에 → 거처해도[處] → 환한 곳[顯] → 처럼[如] 하고.

15 衆(중) 무리, 많은 사람

[16~18] 풀이

(가)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남을 꾸짖는 데는 밝고, 비록 총명함이 있더라도 자기를 용서하는 데는 어둡다.

(나) 다른 날 다시 그 이웃의 아들을 보니, 동작과 태도가 도끼를 훔친 사람 같지 않았다. 그 이웃의 아들이 변한 것이 아니요, 자기가 변한 것이다. 변한 것은 다른 것이 없으니 (자기에게) 허물된 바가 있는 것이다.

- 18 己(기)는 ‘도끼 주인’을 가리킨다. ‘그 이웃의 아들이 변한 것이 아니요, 자기[己]가 변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변한 것은 도끼 주인임을 알 수 있다.

## IV 일화와 인물

### 09 김 선생의 재치

소단원 평가 문제

95쪽

- 01 ⑤    02 ①    03 ⑤    04 ③    05 ⑤  
06 ③    07 ①

- 01 ① 倣(방) 본뜨다, ② 訪(방) 찾다, ③ 妨(방) 방해하다,  
④ 芳(방) 꽃답다, ⑤ 傍(방) 곁  
02 召集(소집), 號召(호소)  
03 ㉠ ~사람, ㉡ 잘하다, ㉢ 일찍이, ㉣ 전혀  
04 耳(이)는 보통 ‘귀’로 풀이되지만 여기서는 惟(유)와 함께 쓰여 ‘오직 ~할 따름이다’로 풀이된다.  
05 무엇[何物]을 타[騎]고[而] 돌아가려는가[還]?  
06 닭을 잡아 안주로 내놓으라는 뜻을 ‘닭을 빌려서 타고 가겠다.’는 말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7 之는 대명사로 쓰여 ‘그’로 풀이되며 김 선생을 가리킨다.

### 10 예술가의 열정

소단원 평가 문제

103쪽

- 01 ①    02 ②    03 ④    04 ①  
05 畫家    06 ④

- 01 殺(살) 죽이다, (쇄) 빠르다, 덜다. ① 살균 - 쇄도, ② 습득 - 수습, ③ 해당 - 담당, ④ 필경 - 검사필, ⑤ 전답 - 천수답  
02 ㉠ 所在: 있는 곳, ㉡ 所謂: 이른바  
04 장차[將] 그[之]를(학산수를) 죽이려[殺] 하였다.  
05 畫家(화가): 그림 그리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06 이징과 학산수는 모두 영예나 치욕은 잊은 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만 몰입하였다. ① 구류, ② 제출, ③ 회사, ④ 몰입, ⑤ 시권

## 11 김만덕의 나눔

소단원 평가 문제

111쪽

- 01 ④    02 ⑤    03 ④    04 ①    05 ③  
06 ⑤

- 02 長은 길다, 자라다, 뛰어나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여기서는 ‘재물을 불리는 데에 뛰어나다[長]’로 풀이된다.  
03 천금[千金]을 내어[捐] 쌀[味]을 사다[買].  
04 쌀의 10분의 1을 친족을 위해 쓰고, 나머지를 전부 백성을 위해 관가에 주었으므로 만덕의 행동은 ‘寄附(기부)’라는 말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 ② 점차, ③ 약어, ④ 매출, ⑤ 탐욕  
05 만덕은 쌀의 10분의 1을 친족에게 주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보냈으므로, 90%를 관가에 보낸 것이다.  
06 글에서 만덕은 재물을 불리는 데에 뛰어나다고 하였으므로 만덕의 재능과 가장 가까운 직업은 ‘기업가’이다.

시험 대비 문제

114~115쪽

- 01 ⑤    02 ②    03 ①    04 ⑤    05 ②  
06 ②    07 ④    08 ③    09 兼味    10 ③  
11 ①    12 ③    13 ④    14 ⑤    15 ②  
16 ②    17 ③    18 ⑤    19 해설 참고

- 01 ㉠ 시권, ㉡ 제출, ㉢ 휴대, ㉣ 영예  
02 民謠(민요), 歌謠(가요), 絃樂器(현악기)  
03 同病相憐(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04 배腹(배)를 안고[抱] 넘어질[絶倒] 정도로 몹시 웃음. ① 담소, ② 폭소, ③ 초상화, ④ 파안대소

#### [05~10] 풀이

김 선생이라는 사람은 우스갯소리를 잘하였다. 일찍이 친구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주인이 술상을 차리되 단지 채소만을 안주로 삼고, 먼저 사과하여 말하기를, “집이 가난하고 시장이 멀어 맛있는 음식이 전혀 없고, 오직 담백하니, 이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네.”라고 하였다. 마침 여러 마리 닭이 있어 뜰에서 어지럽게 (모이를) 쪼았다. 김 선생이 말하기를, “대장부는 천금을 아끼지 않으니 마땅히 내 말을 배어 술안주로 삼겠네.”라고 하였다. 주인이 말하기를, “한 마리(뿐인) 말을 배면 무엇을 타고 돌아가려는가?”라고 하니, 김 선생이 말하기를, “닭을 빌려서 타고 돌아가겠네.”라고 하였다. 주인이 크게 웃으면서 닭을 잡아 그에게 대접하였다.

- 05 일찍이[嘗] 친구[友人]의 집[家]을 방문하다[訪].
- 07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임으로, ‘?’를 쓰는 것이 알맞다.
- 08 친구가 김 선생에게 “말을 잡으면 무엇을 타고 가려는가?”라고 한 것과, 마지막 문장에서 ‘답을 잡아 그에게 대접하였다.’라는 문장을 통해 김 선생이 “답을 빌려 타고 돌아가지.”라고 대답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 10 ③ ‘소재’로 읽는다. 蔬(소) 푸성귀, 菜(채) 나물

#### [11~13] 풀이

이징이 어렸을 때 다락에 올라가서 그림을 익히니, 집안 사람들이 그가 있는 곳을 모르다가 3일 만에 비로소 찾았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를 매질하였는데, (그가) 울면서 눈물을 끌어당겨 새를 그리니, 이것은 그림 그리는 것에서 영예와 치욕을 잇는 것이라고 이를 만하다.

- 11 울면서 눈물을 끌어당겨 새를 그린 사람은 이징(李澄)이다.
- 13 이징은 눈물로 새를 그렸다. ① 李(리) 자두나무, 성, ② 失(실) 잃다, ③ 笞(태) 매질하다, ④ 淚(루) 눈물, ⑤ 辱(욕) 욕되다

#### [14~16] 풀이

학산수는 온 나라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그가) 산에 올라가 연습할 때, 매번 한 곡이 끝날 때에 모래를 주워 나막신에 던져서 나막신이 가득 차면 비로소 돌아왔다. (학산수가) 일찍이 도적을 만나 (도적들이) 장차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학산수가) 바람을 따라 노래하니 도적들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이것은 이른바 죽고 사는 것을 마음에 들이지 않은 것이다.

- 14 通國(통국): 온 나라. 全國(전국)
- 15 작은 모래알이 신발에 가득 찰 때까지 노래를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뜻이다.
- 16 ㄱ - 장수, ㄴ - 장래, ㄷ - 장교. ㄱ과 ㄷ은 ‘장수’의 의미로 쓰였고, ㄴ은 ‘장차’의 의미로 쓰였다.

#### [17~19] 풀이

만덕이라는 사람은 성이 김씨이고, 탐라 양가의 딸이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 기녀에게 의탁하여 살았다. <중략> 그 재주가 재물을 불리는 데에 뛰어나, 물건의 귀하고 천한 때를 맞추기에 능하여 (물건을) 팔거나 쌓아 두니 수십 년에 이르러 자못 (재물을) 모은 것으로써 이름이 알려졌다. 성상(정조) 19년인 을묘년에 탐라에 큰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를 베고 죽었다(죽은 이가 많았다.). <중략> 이때에 만덕이 천금을 내어 쌀을 사니, 육지 여러 군현의 사공들이 때맞추어 이르렀다. 만덕이 십 분의 일을 취하여 친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실어 보냈다.

- 17 서로를 베개로 삼아 베고[枕] 죽을[死] 만큼 죽은 사람이 많았음을 뜻한다.
- 18 10분의 1은 친족을 위해 쓰고 나머지는 전부 관가에 기부하였으므로 ㉠의 분량은 10분의 9, 즉 ‘十之九’이다.
- 19 이 글은 서사적인 서술 방식으로 쓰였다. 이 방식은 인물의 언행이나 사건의 경과 등을 사실 그대로 적는 방식이다.

## V 한시 감상

### 12 자연을 노래하며

소단원 평가 문제

125쪽

- 01 ②      02 ⑤      03 ④      04 ⑤      05 ⑤  
06 ④

- 01 ① 맥아당, ③ 봉선화, ④ 연습장, ⑤ 정류장
- 02 多少(다소): 많고 적음. 얼마나
- 03 ① ‘기구’에서 봄비가 가늘어 방울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② 형식은 오언 절구이다. ③ 운자는 聲(성)과 生(생)이다. ⑤ 봄이 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 04 ‘於’는 장소나 대상을 나타낼 때는, ‘~에, ~에서, ~에게’로 풀이되지만, 비교를 나타낼 때는 ‘~보다’로 풀이된다.
- 05 寒山(한산): 차가운 계절의 산. 늦가을 산.  
楓林(풍림): 단풍 든 숲.  
霜葉(상엽): 서리 맞은 단풍잎.
- 06 작중 화자는 수레를 타고 산길을 가다 단풍 든 숲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지만, 여행의 목적지나 대상은 알 수 없다.

### 13 이별을 노래하며

소단원 평가 문제

133쪽

- 01 ①      02 ②      03 ④      04 ③      05 ③  
06 ③

- 01 巡(순) 돌다, 回(회) 돌다, 雲(운) 구름, 康(강) 편안하다
- 02 因緣(인연), 抄錄(초록)
- 03 칠언 절구는 주로 ‘4자/3자’ 단위로 끊어 읽는다.
- 04 백발[鶴髮]이 되신 어머니[慈親]께서는 강릉[臨瀛]에 계신데[在].
- 05 작중 화자는 강릉을 떠나 장안(長安)을 향해 떠나고 있다.
- 06 ③ (가)의 화자는 ‘이별의 눈물 때문에 대동강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썼다. ① 운자는 多, 歌,



波이다. ② 형식은 칠언 절구이다. ④ 慈親은 ‘어머니’를 뜻한다. ⑤ 白雲飛는 ‘멀리 떠나는 자식이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함.’을 뜻하는 白雲孤飛의 고사를 인용한 표현이다.

## 14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며

### 소단원 평가 문제

141쪽

- 01 ⑤      02 ④      03 ①      04 ③      05 ③  
06 ②

- 01 [가로] 荷重(하중), [세로] 集荷(집하)  
02 ① 무덤: 塚, ② 누렁개: 黃犬, ③ 늙은이: 老翁, ⑤ 어린아이: 小兒  
03 ② 공간적 배경은 들밭이다. ③ 운자는 隨, 纍, 兒이다. ④ 시간적 배경은 저물녘이다. ⑤ 노인과 손자가 제사를 지내고 오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04 읍시의 함련과 경련 내에서 출구와 대구는 서로 대우를 이룬다. 출구의 花와 서로 대우를 이루는 시어는 대구의 같은 위치에 있는 鳥이다.  
05 집에서 부친 편지[家書]는 만금[萬金]에 해당하네[抵].  
06 이 시는 5자씩 8구로 이루어진 ‘오언 읍시’이다.

### 시험 대비 문제

144~145쪽

- 01 ④      02 ①      03 ①      04 ②      05 ④  
06 ①      07 ②      08 ④      09 ②      10 ①  
11 ③      12 ④      13 ②      14 ②      15 ⑤  
16 해설 참고      17 ⑤      18 ④

- 01 遠(원) 멀다, ① 多(다) 많다, ② 停(정) 머무르다, ③ 康(강) 편안하다, ④ 近(근) 가깝다, ⑤ 抗(항) 막다  
02 [가로] 記錄簿(기록부), [세로] 回顧錄(회고록)  
03 ① 秋(추) 가을, 毫(호) 털, ② 요원, ③ 내진, ④ 붕괴, ⑤ 개탄

### [04~07] 풀이

(가) 봄비가 가늘어 방울지지 않더니, 밤중에 희미하게 소리가 들리네. 눈이 녹아 남쪽 시냇물 불어났으리니, 풀삭은 얼마나 돌아났을까?  
(나) 백발이 되신 어머니께서는 강릉에 계신데, 이 몸은 장안을 향해 홀로 떠나는 심정이며, 고개 돌려 북촌을 때때로 한 번씩 바라보니, 흰 구름 떠가는 하늘 아래로 저녁 산이 푸르네.

- 04 雪盡(설진): 눈이 모두 녹음.

- 05 밤중[夜中]에 희미하게[微] 소리[聲]가 들리네[有].

- 06 鶴髮(학발): 두루미의 깃털처럼 희다는 뜻으로, 하얗게 센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이르는 말.

- 07 ㄱ - (가)의 제목은 ‘春興’이다. ㄴ - (나)의 주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다.

### [08~13] 풀이

(가) 멀리 늦가을 산을 오르자니 돌길이 비탈져 있고, 흰 구름 피는 곳에 인가가 있네. 수레를 세우고 앉아 저 물녘 단풍 숲을 즐기니, 서리 맞은 단풍잎이 이월 봄 꽃보다 붉도다.

(나) 국도는 파괴되었어도 산하는 남아 있는데, 도성에 봄이 오니 초목이 무성하네. 시절을 느끼니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고, 이별을 한스러워하니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하네. 봉화가 석 달 동안 이어지니, 집에서 부친 편지는 만금에 해당하네. 흰머리는 굵을수록 더욱 짧아지니, 도무지 동곳을 이겨 낼 수 없겠네.

- 08 ㉠ 돌길, ㉡ 이월 봄꽃, ㉢ 무성하다, ㉣ 동곳

- 09 서리 맞은 단풍잎[霜葉]이 이월[二月] 봄꽃[花]보다[於] 붉도다[紅].

- 10 (나)의 운자는 ‘深(심), 心(심), 金(금), 簪(잠)’이다.

- 11 밑줄 친 부분은 ‘花濺淚’를 변안한 것이다.

- 12 (가)는 寒山, 楓林, 霜葉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알 수 있고, (나)는 城春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 수 있다.

- 13 ① 가을 산을 표현하였다. ③ 시의 배경이 어촌인지는 시를 통해 알 수 없다. ④ ‘家書[집에서 부친 편지]’라는 시어로 보아 작자는 가족과 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해당 내용은 시에 나와 있지 않다.

### [14~18] 풀이

(가) 비 갠 긴 독에는 풀빛이 짙은데, 남포에서 그대를 전송하니 슬픈 노래 북받치네. 대동강 물은 어느 때에 다 마를까?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지네.

(나) 흰 개가 앞서가고 누렁개가 따라가는데, 들밭 잡초 사이로 무덤이 연이어 있네. 노옹이 제사 끝낸 뒤 발 사이 길로, 저물녘 취해서 돌아오는데 어린아이가 부축하네.

- 14 ㉠ 우혈, ㉡ 룡파, ㉢ 제파, ㉣ 일모

- 15 시에서 ‘돛단배’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① 풀 - 草, ② 둑 - 堤, ③ 남포 - 南浦, ④ 대동강 - 大同江

- 16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강물에 더해지기 때문이다.

- 17 어린아이[小兒]가 부축하네[扶].

- 18 ① ‘4자/3자’로 띄어 읽는다. ② 운자는 기구, 승구, 결구의 끝에 있다. ③ 작자는 슬픔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⑤ 전쟁으로 피폐해진 시대의 비극을 이야기하였다.

## VI 전통문화와 역사 인식

### 15 우리의 명절

소단원 평가 문제

155쪽

- 01 ⑤    02 ③    03 ④    04 ①    05 ①  
06 ④

- 01 ① 배척, ② 작금, ③ 분초, ④ 확산, ⑤ 줄고  
02 ㄱ - 연, ㄴ - 집, ㄷ - 해, ㄹ - 연  
03 茶禮(차례), 歲粧(세장), 歲拜(세배) 등의 단어를 통해서 설날의 풍속임을 알 수 있다. ④ 元日(원일): 한 해의 으뜸이 되는 날로, 설날을 가리킴. ① 추석, ② 단오, ③ 한식, ⑤ 동지  
04 큰[大] 부[部]의[之] 뜰[庭]에 모여[集].  
05 '세속에서 秋夕이라고 칭하고, 또 嘉排라고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秋夕(추석)과 嘉排(가배)가 같은 의미를 알 수 있다. ② 신라, ③ 왕녀, ④ 육부, ⑤ 적마  
06 진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접한 것이다.

### 16 단군 신화

소단원 평가 문제

163쪽

- 01 ②    02 ②    03 ④    04 ③    05 ③

- 01 帥(수) 장수, 師(사) 스승  
02 之는 '그곳'으로 풀이된다. 之는 환인이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곳, 즉 '삼위태백'을 가리킨다.  
03 함께[與] 혼인[婚]할[爲] 사람이 없었다[無].  
04 而是 문맥상 '그리고'의 의미로 쓰였다.  
05 인간 세상의 삼백육십여 가지 일을 주관한 것은 환인이 아니라 '환웅'이다.

### 17 발해고서

소단원 평가 문제

171쪽

- 01 ④    02 ③    03 ③    04 ④    05 ①  
06 ⑤    07 高麗

- 01 [가로] 修飾(수식), [세로] 編修(편수)  
02 항상[常(상)] 평준하게[平(평)] 하기 위한 창고[倉(창)].

① 둔전, ② 돌궐, ④ 제주도, ⑤ 고구려

- 03 고 씨[高氏]가 북쪽[北]에[于] 살다[居].  
04 '마땅히 그 삼국의 역사가 있어야 해서 고려가 그것[之]을 편찬하였으니'로 풀이되므로 之가 三國史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06 대 씨가 그 북쪽을 소유하여 발해라고 하였으므로, 발해 왕족의 성씨는 大氏임을 알 수 있다. ① 고씨, ② 부여 씨, ③ 박씨, ④ 김씨  
07 유득공은 고려가 남북국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며 고려를 비판하였다.

시험 대비 문제

174~175쪽

- 01 ①    02 ④    03 ②    04 ②    05 ③  
06 ①    07 ③    08 ③    09 ⑤    10 ①  
11 ③    12 ④    13 ④    14 ③    15 ④  
16 ④    17 ②

- 01 ① 何(하) - 賀(하), ② 新(신) - 年(년), ③ 契(계) - 梁(량), ④ 神(신) - 禪(선), ⑤ 散(산) - 謹(근)  
02 集(집) 모이다, ① 今(금) 이제, ② 中(중) 가운데, ③ 男(남) 남자, ④ 散(산) 흩어지다, ⑤ 拙(졸) 서툴다  
03 [가로] 染色(염색), [세로] 汚染(오염)  
[04~09] 풀이

(가) 서울 풍속에, 새해에 가묘를 찾아뵙고 제사를 행하니, (이것을) '차례'라고 하고, 남녀 중에 나이가 적고 (항렬이) 낮고 어린 사람들이 모두 새 옷을 입으니, (이것을) '세장'이라고 하며, 친척과 웃어른을 찾아뵙니, (이것을) '세배'라고 한다.

(나)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었으니, 자주 하늘 아래 뜻을 두어 사람이 사는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하였다.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고, 가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삼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으니, 그곳을 신시라 불렀고, 이 분은 황웅 천왕이라 불렀다.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려서 농사를 주관하고, 운명을 주관하고, 병을 주관하고, 형벌을 주관하고, 선악을 주관하니, 무릇 인간 세상의 삼백육십여 가지 일을 주관하였으며,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 04 數(수)는 '자주'라는 뜻으로 쓰이면 '삭'으로 읽는다.  
05 모두[皆] 새[新] 옷[衣]을 입다[着].  
06 ① 세배, ② 세월, ③ 세수, ④ 원일, ⑤ 원단  
07 ③은 환웅이 했던 일이다.

## [10~13] 풀이

- (가) 웅녀가 함께 혼인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매번 신단수 아래에서 잉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빌었다. 환웅은 이에 임시로 (사람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하고, (웅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단군왕검'이라 부른다.
- (나) 옛날에 고 씨가 북쪽에 살아 고구려라 하였고, 부여 씨가 서남쪽에 살아 백제라 하였으며, 박·석·김 씨가 동남쪽에 살아 신라라 하였으니, 이를 삼국이라 이른다. 마땅히 그 삼국의 역사가 있어야 해서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였으니 옳다.

10 ㉠ 매번, ㉡ ~에, ㉢ 이것, ㉣ 편찬하다

11 부여 씨[扶餘氏]가 서남쪽[西南]에[于] 살았다[居].

12 ④ 웅녀의 형제 관계는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① 기도 내용: 잉태할 수 있기를 기원함. ② 기도 장소: 신단수 아래. ③ 혼인 상대: 임시로 사람으로 변한 환웅. ⑤ 아들의 호칭: 단군왕검.

13 ㄷ - 삼국 시대에 고구려는 한반도의 북쪽에 있었다.

## [14~17] 풀이

- (가) 세속에서 추석이라고 칭하고, 또 가배라고도 한다. 삼국사를 살펴보면 신라의 유리 이사금이 왕의 딸 두 사람으로 하여금 6부의 여자들을 나누어 거느리게 하여, 7월 보름으로부터 큰 부의 뜰에 모여 길쌈을 하되, 을야에 멈추게 하였다. 팔월 보름에 이르러 그 공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진 사람들은 술과 음식을 차려서 이긴 사람들에게 사례하였다. 이때에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가 모두 행해지니, 그것을 가배라 이른다.
- (나) 고려가 발해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았으니, 고려가 (세력을) 떨치지 못했음을 알겠다. <중략> 부여 씨가 망하고 고 씨가 망함에 이르러 김 씨가 그 남쪽을 소유하였고, 대 씨가 그 북쪽을 소유하여 발해라 하니, 이를 남북국이라 이른다. 마땅히 그 남북국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지 않았으니 잘못이다. 무릇 대 씨는 누구인가? 바로 고구려의 사람이다. 그가 소유한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고구려의 땅이다.

14 진[負] 사람들[者]은 술[酒]과 음식[食]을 차렸다[置].

15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를 뜻한다.

16 ㉡ 고려가 그것[之]을 편찬하지 않았다. ㉢ 바로 고구려의[之] 사람이다.

17 ① 嘉排는 삼국사에 기록되어 있다. ③ 추석의 유래가 산업 구조의 변화와 관련 있다는 설명은 본문에 없다. ④ 고려와 북방 민족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발해의 왕족이 고구려 왕족의 직계 후손이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VII 철학 고전 읽기

### 18 논어

소단원 평가 문제

185쪽

- 01 ①      02 ④      03 克己復禮      04 ④  
05 ④      06 ②

- 01 ① 則(즉): ~하면, ② 以(이): ~로써, ③ 而(이): 그리고, 그러나, ④ 與(여): ~와 더불어, ⑤ 若(약): 만약
- 02 朝(조)는 보통 '아침'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朝廷(조정)'의 뜻으로 쓰였다.
- 03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가는 것, 즉 克己復禮(극기복례)가 仁(인)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04 인(仁)을 행하는[爲] 것은 내[己]에게 달려 있으니[由].
- 05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할 것이 兵, 다음이 食이고, 마지막으로 信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요한 순서로 놓으면 '信 - 食 - 兵'이 된다.
- 06 자공은 공자에게 정치[政(정)]에 대해 물었고, 공자는 이에 대해 답하였다.

### 19 맹자

소단원 평가 문제

193쪽

- 01 ④      02 ④      03 ②      04 ⑤      05 ⑤  
06 ④

- 01 ㉠ 猛(맹) 사납다, ㉡ 促(촉) 재촉하다
- 02 쳐서[搏而] 그것[之]을 튀어 오르게[躍] 하면.
- 03 사람[人]은 선하지[善] 않음[不]이 있지[有] 않다[無].
- 04 放(방) 방탕하다, 辟(벽) 편벽되다, 邪(사) 사악하다, 侈(치) 사치하다.
- 05 하지[爲] 않음[不]이 없을[無] 것이다[已].
- 06 ㉢의 바로 뒤에서 '이것은 백성[民]을 그물질하는[罔] 것'이라고 하였다.

### 20 도덕경 · 장자

소단원 평가 문제

201쪽

- 01 ③      02 水      03 ①      04 ④      05 ②  
06 ①

- 01 ㄱ - 法은 여기서 '본받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ㄴ - 人,

地, 天, 道, 自然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 02 '최상[上]의 선[善]은 물[水]과 같다[若].'로 풀이한다. 뒤 문장의 내용을 통해 善의 의미를 물[水]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3 여러 사람[衆人]이[之] 싫어하는[惡] 곳[所]에 머문다[處].
- 04 ㉠ 베다, ㉡ 멈추다, ㉢ 이유, ㉣ 명령하다
- 05 枝(지) 가지, 葉(엽) 잎
- 06 ㉣의 바로 앞에 '재목이 아니기 때문에[以不材]'라는 말이 있다. 즉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 시험 대비 문제

204~205쪽

- |      |      |      |      |      |
|------|------|------|------|------|
| 01 ㉡ | 02 ㉠ | 03 ㉣ | 04 ㉠ | 05 ㉠ |
| 06 ㉠ | 07 ㉢ | 08 ㉡ | 09 ㉠ | 10 ㉡ |
| 11 ㉣ | 12 ㉢ | 13 ㉢ | 14 ㉢ | 15 ㉢ |
| 16 ㉠ |      |      |      |      |

- 01 錯覺(착각), 觸覺(촉각), 感覺細胞(감각세포)
- 02 見(견) 보다 - 閱(열) 보다, 終(종) 끝나다 - 了(료) 끝나다, 猛(맹) 사납다 - 盟(맹) 맹세하다, 退(퇴) 물러나다 - 逐(축) 쫓다
- 03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 04 마구간이 불탔는데, 공자께서 퇴청하셔서 "사람[人]이 다 찼[傷]느냐[乎]?" 하시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
- 05 자신(자기의 사욕)을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을 행하는 것이니, 하루 동안이라도 자신을 이겨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인(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으니,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겠는가?

#### [06~08] 풀이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식량을 충분히 하고 군사를 충분히 하고 백성이 신뢰하게 하는 것이다." 자공이 말했다. "반드시 부득이해서 버려야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사를 포기해야 한다." 자공이 말했다. "반드시 부득이해서 버려야 한다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 예로부터 (사람은) 모두 죽음이 있지만(죽지만)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 06 ㉡ 버리다, 포기하다, ㉢ ~로부터
- 08 앞에서 군사[兵]를 포기하라고 하였고, 뒤에서는 백성의 믿음[信]이 없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食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 [09~10] 풀이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으니, 사람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며, 물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음이 없다. 지금 무릇 물을 쳐서 그것을 튀어 오르게 하면 (물로 하여금) 이마를 넘게 할 수도 있으며, (물살을 막아) 격렬하게 하여 그것을 흐르게 하면 (물로 하여금) 산에 있게 할 수도 있으나,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 09 ㉠ 猶(유)는 여기서 '같다'의 의미로 쓰였다.
- 10 이 글은 사람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사람[人]은 선하지[善] 않음이[不] 없음[無有]을 말하고 있다.

#### [11~12] 풀이

진실로 항심이 없다면 방탕함, 편벽됨, 사악함, 사치함을 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죄에 빠짐에 이른 뒤에 (죄에) 따라서 그를 형벌한다면 이것은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까닭으로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 주되, 반드시 (백성으로 하여금) 위로는 부모님을 섬기는 데 충분하게 하며, 아래로는 처자식을 기르는 데 충분하게 하여, 풍년에는 일 년 내내 배부르게 하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 11 ㉢ 罔(망)은 여기서 '그물질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12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明君의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제시된 글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 [13~14] 풀이

(가)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나) 최상의 선(善)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공을) 다투지 않으며, 여러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거의 도(道)에 가깝다.

- 13 人, 地, 天, 道, 自然의 관계를 연쇄법으로 설명하였다.
- 14 (나)의 ㉡은 '잘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善惡'의 善은 '착하다'의 의미이다.

#### [15~16] 풀이

장자가 산속을 가다가 큰 나무가 가지와 잎이 무성한 것을 보았다. 나무를 베는 사람이 그 곁에 멈추었으나 (그 나무를) 취하지 않았다. (장자가) 그 이유를 물으니, (나무를 베는 사람이) 말하였다. "쓸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장자가 말하였다. "이 나무는 재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천 년(타고난 수명)을 마칠 수 있게 되었구나." 선생님께서 산에서 나오셔서 옛 친구의 집에서 머무르시니, 친구가 기뻐하며 어린 종에게 명하여 거위를 잡아 삶도록 하였는

데, 어린 종이 물었다. “그중 한 마리는 잘 울고, 그중 한 마리는 잘 울지 못하니, 청컨대 어느 쪽을 잡을까요?” 주인이 말하였다. “잘 울지 못하는 놈을 잡아라.”

- 15 命은 ‘목숨’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명령하다’로 풀이한다.  
16 ‘天年’은 ‘타고난 수명을 제대로 다 사는 나이’를 뜻한다.

## VIII 한문 산문 감상

### 21 온달

#### 소단원 평가 문제

215쪽

- 01 ㉠ 02 ㉢ 03 ㉢ 04 ㉠ 05 ㉠  
06 ㉢

- 01 ㉠ 평강왕, ㉠ 상부 고 씨, ㉠ 필부(평범한 사람), ㉠ 지존(지극히 존귀한 존재, 즉 평강왕을 가리킴.)  
02 ‘破衫弊履, 往來於市井間[떨어진 옷과 해진 신으로 시장 사이를 오가다.]’으로 보아 불품없는 옷차림으로 돌아다녔음을 알 수 있다.  
03 ㉠ ‘容貌’은 ‘용모’로 읽는다. ㉡ ‘可笑’의 대상은 ‘溫達(온달)’이다. ㉣ ‘則’은 ‘~하면’의 뜻이다. ㉤ ‘粹然’은 ‘순수한 모양’을 뜻한다.  
04 항상[常] 음식[食]을 구걸[乞]해서[以] 어머니[母]를 봉양했다[養].  
05 食言(식언)이란 한번 입 밖에 낸 말을 도로 입속에 넣는다는 뜻으로, 약속한 말대로 지키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大王(대왕)은 공주를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상부 고 씨에게 시집가라고 하며 말을 바꾸었다.  
06 공주는 ‘歸之愚溫達[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이라는 대왕의 처음 명령을 따르기로 하고 상부 고 씨에게 시집가라는 명령을 거절한 것이다. ㄷ과 ㄹ은 제시된 글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 22 두 아들에게

#### 소단원 평가 문제

223쪽

- 01 ㉠ 02 ㉢ 03 ㉠ 04 ㉠ 05 ㉤

- 01 稍勝(초승): 조금 나아지다.

- 02 勿(물)과 無(무)는 ‘~하지 말라’와 같이 금지의 뜻을 나타낸다.  
03 尤當何如是 ‘더욱이 마땅히 어찌 되겠느냐?’라는 뜻이다. 즉 글을 배우지 않고 예의가 없다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04 “책을 읽거나 몸가짐을 삼가는 것을 잘한다고 들으면 이로써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05 부인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은 제시된 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ㄹ은 ‘預關此心耳’를 통해 알 수 있다.

### 23 잡설

#### 소단원 평가 문제

231쪽

- 01 ㉢ 02 ㉤ 03 ㉢ 04 ㉠ 05 ㉤  
06 ㉠

- 01 與(여)는 ‘~와’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授(수) 주다’와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02 항상[常] 있는[有] 것만은 아니다[不]. 즉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03 ㉣의 食은 ‘먹다’의 뜻으로 쓰여 ‘식’으로 읽고, ㉣의 見은 ‘드러나다’의 뜻으로 쓰여 ‘현’으로 읽는다.  
04 ㉣는 ‘어찌 그 말이 천 리 갈 수 있기를 바라겠는가?’라는 뜻이다. 즉 이것은 ‘천 리를 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05 千里馬: 천 리를 갈 수 있는 말. 良馬: 좋은 말. 名馬: 이름난 말.

#### 시험 대비 문제

234~235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해  
설 참고 16 ㉠

- 01 ㉡ 努(노) 힘쓰다 - 力(력) 힘, 힘쓰다, ㉠ 職(직) 직분 - 識(식) 알다, ㉢ 愚(우) 어리석다 - 智(지) 지혜, ㉣ 弊(폐) 해지다 - 幣(폐) 화폐, 비단, ㉤ 每(매) 매양 - 侮(모) 업신여기다  
02 ㉡ 出馬(출마): 말을 타고 나감. 선거에 입후보함. ㉠ 구박, ㉢ 기마, ㉣ 양마, ㉤ 소란  
03 ㉢ 桑田碧海(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흥안지례 ㉡ 혼정신성 ㉣ 천고마비 ㉤ 사주단자



**[04~09] 풀이**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 사람이다. 얼굴 생김새는 볼품 없어 옷을 만하였으나 속마음은 순수하였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항상 음식을 구걸하여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떨어진 옷과 해진 신으로 시정 사이를 오가니 그때 사람들이 그를 지목하여 바보 온달이라고 하였다.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여 왕이 놀리며 말했다. “너는 항상 울어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자라면 반드시 사대부의 아내가 될 수 없을 것이요, 마땅히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야겠다.”라고 하며 왕이 매번 그것을 말하였다. 딸의 나이 열여섯 살에 이르러 상부(上部)의 고 씨(高氏)에게 시집을 보내고자 하니, 공주가 마주 대하여 말하였다.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바보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하시더니, 지금 무슨 까닭으로 전에 하신 말씀을 바꾸십니까? 필부도 오히려 식언을 하고자 하지 않거늘 하물며 지존께서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하기를 ‘임금은 실없는 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대왕의 명령은 잘못되었으니, 저는 감히 (그 명령을) 공경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 04** 目(목)은 여기서 ‘지목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05** 大王(대왕)과 至尊(지존)은 모두 平岡王(평강왕)을 가리킨다.  
**06** 前言(전언) 즉 대왕이 전에 한 말은 “너는 반드시 바보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다[汝必爲溫達之婦.]”이다.  
**07** 필부도 식언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 식언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왕에게 ‘신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 것이다.  
**08** 왕이 ‘상부 고 씨에게 시집가라.’고 한 명령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은 ‘온달에게 시집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09** ㄱ은 제시된 글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10~13] 풀이**

편지가 오니 마음에 위안이 된다. 둘째 아이는 필법(筆法)이 조금 나아지고 문리 또한 진보가 있으니, 나이의 덕분이나? 아니면 혹 때에 맞게 배우고 익혀서 그런 것이냐? 절대로 자포(자포자기)하지 말고, 뜻을 다하여 부지런히 힘써서 책을 읽고, 책을 베끼고, 글을 짓는 일에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라. 폐족이면서 글을 배우지 않고 예의가 없다면 더욱이 마땅히 어찌되겠느냐? 보통 사람에 비해 모름지기 백배의 공력을 더하여야만 겨우 사람 축에 들게 될 것을 헤아려 볼 수 있을 뿐이다. 나는 고생이 매우 많다. 그러나 너희들이 ‘책을 읽거나 몸가짐을 삼가는 것’을 잘한다고 들으면 이로써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 큰 아이는 모름지기 4월 초열흘이 지난 뒤에 말을 사서 타고 오도록 하여라. 그러나 이별의 슬픈 마음이 벌써 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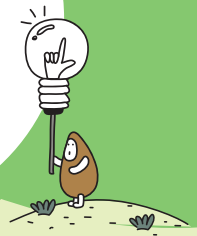
- 10** 勝(승)은 ‘나아지다’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優勝(우승)’의 勝(승)과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11** 凡人(범인):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13** 정약용은 편지에서 자신의 가문을 ‘廢族(폐족)’이라고 하였다.

**[14~16] 풀이**

세상에 백락이 있는 뒤에 천리마가 있을 수 있다. 천리마는 항상 있으나 백락은 항상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훌륭한 말이 있더라도 다만 노예의 손에 치욕을 당하고 말구유와 마판 사이에서(마구간에서) (평범한 말과) 나란히 죽어서 천리마라 불리지 못한다. 말 중에 천리를 가는 것은 한 번 먹을 때에 혹 곡식 한 섬을 다 먹기도 하거늘, 말을 먹이는 사람은 그 말이 천 리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먹인다. 이 말은 비록 천 리를 갈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먹는 것이 배부르지 않고 힘이 부족하여 재주와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또 평범한 말과 같아지고자 하여도 같아질 수 없으니, 어찌 그 말이 천 리를 갈 수 있기를 바라겠는가? 그것을 채찍질하기를 그에 맞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먹이기를 그 재능을 다할 수 없게 하며, 울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채찍을 잡고 다가가서 말하기를 “천하에 좋은 말이 없다.”라고 하니 아! 참으로 (훌륭한) 말이 없는 것인가? 참으로 (훌륭한) 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가?

- 14** 見(견)은 여기서 ‘드러나다’의 뜻으로 쓰였으므로 ‘현’으로 읽는다.  
**15** 세상에는 뛰어난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을 지닌 사람이 없는 것이다.  
**16** 千里馬(천리마), 名馬(명마), 良馬(양마)는 모두 뛰어난 능력을 지닌 말로, 뛰어난 인재를 가리킨다.

# 정답친해



|      |             |     |
|------|-------------|-----|
| I    | 한문의 기초      | 238 |
| II   | 성어의 이해와 활용  | 238 |
| III  | 속담과 격언      | 239 |
| IV   | 일화와 인물      | 241 |
| V    | 한시 감상       | 242 |
| VI   | 전통문화와 역사 인식 | 244 |
| VII  | 철학 고전 읽기    | 245 |
| VIII | 한문 산문 감상    | 247 |

## I 한문의 기초

### 시험 대비 문제

24~25쪽

|          |                         |               |      |
|----------|-------------------------|---------------|------|
| 01 ③     | 02 해설 참고                | 03 ⑤          | 04 ④ |
| 05 ②     | 06 ②                    | 07 ㉠ 뿌리, ㉡ 근본 | 08 새 |
| 가 입으로 읊. | 09 ①                    | 10 ㉠ 刀, ㉡ 手   |      |
| 11 ③     | 12 耳, 目                 | 13 ⑤          | 14 ② |
| 15 ②     | 16 (1) 달이 밝음. (2) 밝은 달. | 17 ⑤          | 18 ④ |

- 01 우리나라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뒤에도 한자를 주요한 문자 도구로 사용하였다.
- 02 원활한 언어생활, 한자 문화권의 소통과 교류, 건전한 가치관 및 바람직한 인성 함양,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 04 ① 禾(화) 벼, ② 知(지) 알다, ③ 占(점) 점, ⑤ 斤(근) 도끼
- 05 받침은 나중에 쓴다.
- 06 ① 魚(어) 물고기, ② 龜(귀) 거북, ③ 馬(마) 말, ④ 象(상) 코끼리, ⑤ 弔(조) 조문하다
- 08 口(구) 입 + 鳥(조) 새 = 鳴(명) 울다 → 새가 입으로 읊.
- 09 言(언) 말쑥 + 丁(정) 빗췌 천간 = 訂(정) 바로잡다  
水(수) 물 + 共(공) 함께 = 洪(홍) 큰물, 넓다
- 11 한자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음과 뜻으로 쓰인다. 更(갱) 다시, (경) 고치다, 시각 / 降(강) 내리다, (향) 행복하다.  
㉠ 更生(갱생), ㉡ 乘降(승강), ㉢ 投降(투항)
- 12 耳聞目見(이문목견):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
- 13 ⑤ 遷[옮기다(서술어)] + 都[도읍을(목적어)], ① 日[해가(주어)] + 出[뜨다(서술어)], ② 人[사람이(주어)] + 造[만들다(서술어)], ③ 歸[돌아가다(서술어)] + 家[집에(보어)], ④ 渡[건너다(서술어)] + 江[강을(목적어)]
- 14 良藥, 苦於口(양약, 고어구): 좋은 약은 입에 쓰다.
- 15 而是 '그러나'의 의미로 쓰였다. 자식[子]이 봉양[養]하고 자[欲] 하나[而] 부모님[親]은 기다려[待] 주시지 않는[不]다[也].
- 16 한자는 단어나 문장 안에서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풀이된다. 明은 (1)에서는 서술어로, (2)에서는 수식어로 쓰였다.
- 17 ⑤ 招[부르다] + 聘[부르다] - 병렬 관계, ① 品貴(품귀): 물건이 귀함. - 주술 관계, ② 日出(일출): 해가 뜸. - 주술 관계, ③ 人造(인조): 사람이 만들. - 주술 관계, ④ 夜深(야심): 밤이 깊음. - 주술 관계
- 18 ㉠은 서술어이다. (가) 학문은 이루기가 어렵다. (나)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

## II 성어의 이해와 활용

### 03 성어 입문

#### 소단원 평가 문제

35쪽

|      |      |      |      |      |
|------|------|------|------|------|
| 01 ② | 02 ① | 03 ② | 04 ② | 05 ④ |
|------|------|------|------|------|

- 01 ㉠ 足球: 발로 공을 차서 겨루는 경기. ㉡ 不足: 충분하지 않음. ㉢ 蛇足: 뱀의 발.
- 02 異議(이의), 異邦人(이방인). ① 異(이) 다르다, ② 同(동) 같다, ③ 翼(익) 날개, ④ 共(공) 함께, ⑤ 田(전) 밭
- 03 我田引水(아전인수):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 04 臨機應變(임기응변):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
- 05 (가) 용문에 오름.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게 됨. 또는 그 관문. (나)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남.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 (다) 비단 위에 꽃을 더함.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 (라) 쇠귀에 경 읽기.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이르는 말.

### 04 역사 속의 성어

#### 소단원 평가 문제

43쪽

|      |      |      |      |      |
|------|------|------|------|------|
| 01 ① | 02 ③ | 03 ② | 04 ④ | 05 ② |
| 06 ④ |      |      |      |      |

- 01 ②와 ⑤는 '죽다', ③과 ④는 '달아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① 멸망, ② 망혼, ③ 도망, ④ 망명, ⑤ 망령
- 02 白眉(백미)는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통하는 성어는 拔群(발군), 傑出(결출), 壓卷(압권)이다. 脅迫(협박)은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함.'을 뜻한다.
- 03 물[水]을 등지고[背] 치는 진[陣].
- 04 (라) 唇亡齒寒(순망치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림. 즉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
- 05 (가) 完璧(완벽): 결함이 없이 완전함. (다) 咸興差使(함흥차사): 심부름을 가서 오지 않거나 늦게 온 사람.
- 06 ④ 마량의 눈썹 가운데 흰 털이 있어서, 이런 까닭으로 그렇게(백미라고) 불렸다. ① 마량의 형이 다섯 명이 아니라, 마 씨 형제가 모두 다섯 명이다.

## 05 비유가 담긴 성어

### 소단원 평가 문제

51쪽

01 ③ 02 ⑤ 03 ① 04 ④ 05 ④

- 01 ③ 守(수) 지키다 - 衛(위) 지키다, ① 添(침) 더하다 - 減(감) 덜다, ② 副(부) 버금 - 削(삭) 깎다, ④ 左(좌) 왼쪽 - 右(우) 오른쪽, ⑤ 賤(천) 천하다 - 待(대) 기다리다
- 02 ㉠ 成長勢(성장세): 어떤 일이나 상태가 자라 가는 형세.  
㉡ 委員長(위원장): 위원 가운데 우두머리.
- 03 胡蝶夢(호접몽): 나비에 관한 꿈. 인생의 덧없음.
- 04 (가) 토끼[兔]를 기다리다[待], (나) 산[山]을 옮기다[移], (다) 검[劍]을 구하다[求], (라) 변방[塞] 늙은이[老]
- 05 시대는 이미 변화였는데 법은 변하지 않았으니, 이것[此] 으로써[以] 정치[治]를 한다면[爲]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 시험 대비 문제

54~55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⑤ 05 ②  
06 ① 07 ⑤ 08 ② 09 ⑤ 10 ③  
11 ② 12 ① 13 ⑤ 14 ③ 15 ②  
16 ④ 17 馬良 18 해설 참고

- 01 ㉠ 異(이) 다르다, ㉡ 陳(진) 늘어놓다
- 02 ㉢ 待機(대기)-기다리다. 滅亡(멸망), 亡魂(망혼), 逃亡(도망), 賤待(천대)
- 03 [가로] 削減(삭감), [세로] 添削(첨삭)
- 04 蝶(접) 나비, 蜂(봉) 벌, 螢(형) 반딧불이  
ㄱ - 蝶泳(접영), ㄴ - 蜂起(봉기), ㄷ - 踏查(답사),  
ㄹ - 螢光燈(형광등)
- 05 제시된 성어는 九死一生(구사일생)과 四面楚歌(사면초가)이다. 九(9)+四(4)=13.
- 06 壓卷(압권), 傑出(결출)
- 07 同床異夢(동상이몽): 같은 자리 다른 꿈.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판생각을 하고 있음.
- 08 글에서 할머니는 쇠 절굿공이를 날마다 갈아 바늘로 만들고자 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글은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의 ② 愚公移山(우공이산)과 관계있다.
- 09 長蛇陣(장사진), 一長一短(일장일단)
- 10 脣[입술] → 亡[없어지면] → 齒[이가] → 寒[시림]
- 11 徹頭徹尾(철두철미): 머리[頭]부터 꼬리[尾]까지 모두 통함[徹].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 12 (가)의 長(장)은 '자라다'의 의미이다. 助長(조장): 자라

는 것을 도움.

- 13 指鹿爲馬(지록위마)는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다. ⑤에는 문맥상 '심부름을 가서 오지 않거나 늦게 온 사람'을 뜻하는 咸興差使(함흥차사)가 알맞다.
- 14 ① 蛇(사) 뱀, ② 狐(호) 여우, 虎(호) 호랑이, ④ 鹿(록) 사슴, 馬(마) 말, ⑤ 兔(토) 토끼
- 15 항우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자신의 의지를 병사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러한 항우의 행동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더는 물러설 수 없음'을 뜻하는 背水陣(배수진)과 관계있다.

### [16~17] 풀이

(가) 시대는 이미 변화였는데 법은 변하지 않았으니, 이것으로써 정치를 한다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나) "마 씨의 다섯 형제 중에 '백미'가 가장 뛰어났다."라고 하였으니, 마량의 눈썹 가운데 흰 털이 있어서 이런 까닭으로 그렇게 불렀다.

- 16 最良(최량): 가장 뛰어나다.
- 17 良은 馬良(마량)의 이름을 줄여서 나타낸 것이다.
- 18 塞翁之馬는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고 풀이하며,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 Ⅲ 속담과 격언

### 06 속담에 담긴 지혜

#### 소단원 평가 문제

65쪽

01 ③ 02 ② 03 ② 04 ② 05 ③  
06 ⑤

- 01 ③ 飢(기) 굶주리다 - 餓(아) 굶주리다, ① 往(왕) 가다 - 來(래) 오다, ② 湯(탕) 끓이다 - 藥(약) 약, ④ 確(확) 굳다 - 率(률) 비율, ⑤ 立(립) 서다 - 臥(와) 눕다
- 02 ② 飯(반) 밥. 朝飯(조반), 麥飯石(맥반석)
- 03 ㉠은 '공[功]을 쌓다[積]'로, 뒤에 있는 한자부터 풀이한다. ㉡의 不屈(불굴)도 '굽히지[屈] 않음[不]'으로, 뒤에 서부터 풀이한다.
- 05 ㉠ 거느리다, ㉡ 아이, ㉢ 굴, ㉣ 눕다
- 06 (마)는 3일이 걸리는 일을 하루 만에 끝내려다가 도리어 해를 입었다는 뜻이므로, 제시된 중국 속담과 의미가 통한다.

## 07 내면을 밝히는 글

소단원 평가 문제

73쪽

01 ② 02 ⑤ 03 ④ 04 ⑤ 05 ④

06 更鳴, 울음소리를 고치다.

- 01 홀로[獨(독)] 있을 때에도 삼가다[愼(신)].  
 02 衆寡不敵(중과부적): 적은 수효로 많은 수효를 대적하지 못함.  
 03 子(자)는 ‘너’라는 뜻으로 쓰인다. 我(아) 나, 予(여) 나, 吾(오) 나  
 04 ‘不知不及於人’은 문맥상 ‘남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로 풀이되므로 ㉠에는 ‘~에게’의 의미를 지닌 於(어)가 알맞다.  
 05 ㉠ 惡(오) 싫어하다, ㉡ 更(경) 고치다

## 08 관계를 밝히는 글

소단원 평가 문제

81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④ 05 ①

06 ①

- 01 ① 호언, ② 과언, ③ 예언, ④ 확언, ⑤ 교언  
 02 ㉠ 금석이나 옥구슬보다, ㉡ 세력으로써 사귀는 사람.  
 03 남[人]이[之] 나[我]를 의심하는[疑] 것[者].  
 04 대감이 죽은 뒤에는 그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으나 대감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대감 집 말이 죽으면 대감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조문을 간다는 뜻이다.  
 05 ① 부활, ② 광복, ③ 복구, ④ 회복, ⑤ 복습  
 06 도끼 주인의 잘못은 이웃집 아들을 疑心(의심)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시험 대비 문제

84~85쪽

01 ① 02 ① 03 ④ 04 ⑤ 05 ②  
 06 ③ 07 일일왕 08 ② 09 ④ 10 ③  
 11 ② 12 해설 참고 13 ② 14 ④  
 15 ⑤ 16 ④ 17 ③ 18 ④

- 01 ① 식경, ② 허기, ③ 포화, ④ 기아, ⑤ 분식  
 02 [가로] 巧言令色(교언영색), [세로] 確言(확언)  
 03 열 그릇의 밥에서 한 숟가락씩 덜면 다시 한 그릇의 밥이 된다. 즉 이 글은 여럿이 각각 조금씩 도와주어 큰 보탬이 된다는 뜻으로, 협동을 강조하고 있다.  
 04 사람의 근심(폐단)은 항상 내가 남보다 뛰어난 것은 알되,

남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데 있다.

05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 없다.

[06~07] 풀이

삼 일의 길을 하루 만에 가고 열흘 동안 눕는다.

06 삼 일[三日]의[之] 길[程].

07 3일이 걸리는 길을 하루 만에 가려고 서두르다가 도리어 열흘을 몸져누웠으므로,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통하는 것은 ‘일일왕[一日往: 하루 만에 가다.]’이다.

[08~09] 풀이

(가) 아이가 (등에) 업혀 있는데, 삼 년 동안 찾는다.  
 (나) 남에게 (좋은) 말을 주는 것이 금석이나 옥구슬보다 소중하다.

09 重(중)은 주로 ‘무겁다’, ‘무게’, ‘중요하다’, ‘소중하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여기서는 ‘소중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10~11] 풀이

(가) 남이 나를 의심하는 것은 (나의) 평소 행동이 남에게 믿음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 세력으로써 사귀 사람은 세력이 기울어지면 끊어지고, 이익으로써 사귀 사람은 이익이 다하면 흩어진다.

10 ㉠ 남이 나를 의심하는 것[者], ㉡ 세력으로써 사귀 사람[者]

11 이익[利]이 다해[窮]면[則] 흩어진다[散].

[12~13] 풀이

울째미가 말하기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의 울음소리를 싫어하여, 이 때문에 동쪽으로 이사 간다.” 비둘기가 말하기를, “네가 울음소리를 고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울음소리를 고칠 수 없다면 동쪽으로 이사 가더라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너의 소리를 싫어할 것이다.”

12 사람들이 자신의 울음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13 네[子]가 울음소리[鳴]를 고칠[更] 수 있다면[能].

[14~15] 풀이

마땅히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겉과 속을 한결같이 하라. 어두운 곳에 거처해도 환한 것처럼 하고 혼자 거처할 때에도 여럿이 있는 것처럼 하라.

14 어두운 곳[幽]에 → 거처해도[處] → 환한 곳[顯] → 처럼[如] 하고.

15 衆(중) 무리, 많은 사람

[16~18] 풀이

(가)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남을 꾸짖는 데는 밝고, 비록 총명함이 있더라도 자기를 용서하는 데는 어둡다.



(나) 다른 날 다시 그 이웃의 아들을 보니, 동작과 태도가 도끼를 훔친 사람 같지 않았다. 그 이웃의 아들이 변한 것이 아니요, 자기가 변한 것이다. 변한 것은 다른 것이 없으니 (자기에게) 허물된 바가 있는 것이다.

- 18 己(기)는 ‘도끼 주인’을 가리킨다. ‘그 이웃의 아들이 변한 것이 아니요, 자기[己]가 변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변한 것은 도끼 주인임을 알 수 있다.

## IV 일화와 인물

### 09 김 선생의 재치

소단원 평가 문제

95쪽

- 01 ⑤    02 ①    03 ⑤    04 ③    05 ⑤  
06 ③    07 ①

- 01 ① 倣(방) 본뜨다, ② 訪(방) 찾다, ③ 妨(방) 방해하다,  
④ 芳(방) 꽃답다, ⑤ 傍(방) 곁  
02 召集(소집), 號召(호소)  
03 ㉠ ~사람, ㉡ 잘하다, ㉢ 일찍이, ㉣ 전혀  
04 耳(이)는 보통 ‘귀’로 풀이되지만 여기서는 惟(유)와 함께 쓰여 ‘오직 ~할 따름이다’로 풀이된다.  
05 무엇[何物]을 타[騎]고[而] 돌아가려는가[還]?  
06 닭을 잡아 안주로 내놓으라는 뜻을 ‘닭을 빌려서 타고 가겠다.’는 말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7 之는 대명사로 쓰여 ‘그’로 풀이되며 김 선생을 가리킨다.

### 10 예술가의 열정

소단원 평가 문제

103쪽

- 01 ①    02 ②    03 ④    04 ①  
05 畫家    06 ④

- 01 殺(살) 죽이다, (쇄) 빠르다, 띈다. ① 살균 - 쇄도, ② 습득 - 수습, ③ 해당 - 담당, ④ 필경 - 검사필, ⑤ 전답 - 천수답  
02 ㉠ 所在: 있는 곳, ㉡ 所謂: 이른바  
04 將[將] 그[之]를(학산수를) 죽이려[殺] 하였다.  
05 畫家(화가): 그림 그리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06 이징과 학산수는 모두 영예나 치욕은 잊은 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만 몰입하였다. ① 구류, ② 제출, ③ 회사, ④ 몰입, ⑤ 시권

## 11 김만덕의 나눔

소단원 평가 문제

111쪽

- 01 ④    02 ⑤    03 ④    04 ①    05 ③  
06 ⑤

- 02 長은 길다, 자라다, 뛰어나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여기서는 ‘재물을 불리는 데에 뛰어나다[長]’로 풀이된다.  
03 천금[千金]을 내어[捐] 쌀[味]을 사다[買].  
04 쌀의 10분의 1을 친족을 위해 쓰고, 나머지를 전부 백성을 위해 관가에 주었으므로 만덕의 행동은 ‘寄附(기부)’라는 말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 ② 점차, ③ 약어, ④ 매출, ⑤ 탐욕  
05 만덕은 쌀의 10분의 1을 친족에게 주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보냈으므로, 90%를 관가에 보낸 것이다.  
06 글에서 만덕은 재물을 불리는 데에 뛰어나다고 하였으므로 만덕의 재능과 가장 가까운 직업은 ‘기업가’이다.

시험 대비 문제

114~115쪽

- 01 ⑤    02 ②    03 ①    04 ⑤    05 ②  
06 ②    07 ④    08 ③    09 兼味    10 ③  
11 ①    12 ③    13 ④    14 ⑤    15 ②  
16 ②    17 ③    18 ⑤    19 해설 참고

- 01 ㉠ 시권, ㉡ 제출, ㉢ 휴대, ㉣ 영예  
02 民謠(민요), 歌謠(가요), 絃樂器(현악기)  
03 同病相憐(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04 배腹(배)를 안고[抱] 넘어질[絶倒] 정도로 몹시 웃음. ① 담소, ② 폭소, ③ 초상화, ④ 파안대소

#### [05~10] 풀이

김 선생이라는 사람은 우스갯소리를 잘하였다. 일찍이 친구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주인이 술상을 차리되 단지 채소만을 안주로 삼고, 먼저 사과하여 말하기를, “집이 가난하고 시장이 멀어 맛있는 음식이 전혀 없고, 오직 담백하니, 이것이 부끄러운 따름이네.”라고 하였다. 마침 여러 마리 닭이 있어 뜰에서 어지럽게 (모이를) 쪼았다. 김 선생이 말하기를, “대장부는 천금을 아끼지 않으니 마땅히 내 말을 배어 술안주로 삼겠네.”라고 하였다. 주인이 말하기를, “한 마리(뿐인) 말을 배면 무엇을 타고 돌아가려는가?”라고 하니, 김 선생이 말하기를, “닭을 빌려서 타고 돌아가겠네.”라고 하였다. 주인이 크게 웃으면서 닭을 잡아 그에게 대접하였다.

- 05 일찍이[嘗] 친구[友人]의 집[家]을 방문하다[訪].
- 07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임으로, ‘?’를 쓰는 것이 알맞다.
- 08 친구가 김 선생에게 “말을 잡으면 무엇을 타고 가려는가?”라고 한 것과, 마지막 문장에서 ‘답을 잡아 그에게 대접하였다.’라는 문장을 통해 김 선생이 “답을 빌려 타고 돌아가지.”라고 대답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 10 ③ ‘소재’로 읽는다. 蔬(소) 푸성귀, 菜(채) 나물

#### [11~13] 풀이

이징이 어렸을 때 다락에 올라가서 그림을 익히니, 집안 사람들이 그가 있는 곳을 모르다가 3일 만에 비로소 찾았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를 매질하였는데, (그가) 울면서 눈물을 끌어당겨 새를 그리니, 이것은 그림 그리는 것에서 영예와 치욕을 잇는 것이라고 이를 만하다.

- 11 울면서 눈물을 끌어당겨 새를 그린 사람은 이징(李澄)이다.
- 13 이징은 눈물로 새를 그렸다. ① 李(리) 자두나무, 성, ② 失(실) 잃다, ③ 笞(태) 매질하다, ④ 淚(루) 눈물, ⑤ 辱(욕) 욕되다

#### [14~16] 풀이

학산수는 온 나라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그가) 산에 올라가 연습할 때, 매번 한 곡이 끝날 때에 모래를 주워 나막신에 던져서 나막신이 가득 차면 비로소 돌아왔다. (학산수가) 일찍이 도적을 만나 (도적들이) 장차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학산수가) 바람을 따라 노래하니 도적들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이것은 이른바 죽고 사는 것을 마음에 들이지 않은 것이다.

- 14 通國(통국): 온 나라. 전국(全國)
- 15 작은 모래알이 신발에 가득 찰 때까지 노래를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뜻이다.
- 16 ㄱ - 장수, ㄴ - 장래, ㄷ - 장교. ㄱ과 ㄷ은 ‘장수’의 의미로 쓰였고, ㄴ은 ‘장차’의 의미로 쓰였다.

#### [17~19] 풀이

만덕이라는 사람은 성이 김씨이고, 탐라 양가의 딸이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 기녀에게 의탁하여 살았다. <중략> 그 재주가 재물을 불리는 데에 뛰어나, 물건의 귀하고 천한 때를 맞추기에 능하여 (물건을) 팔거나 쌓아 두니 수십 년에 이르러 자못 (재물을) 모은 것으로써 이름이 알려졌다. 성상(정조) 19년인 을묘년에 탐라에 큰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를 베고 죽었다(죽은 이가 많았다.). <중략> 이때에 만덕이 천금을 내어 쌀을 사니, 육지 여러 군현의 사공들이 때맞추어 이르렀다. 만덕이 십 분의 일을 취하여 친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실어 보냈다.

- 17 서로를 베개로 삼아 베고[枕] 죽을[死] 만큼 죽은 사람이 많았음을 뜻한다.
- 18 10분의 1은 친족을 위해 쓰고 나머지는 전부 관가에 기부하였으므로 ㉠의 분량은 10분의 9, 즉 ‘十之九’이다.
- 19 이 글은 서사적인 서술 방식으로 쓰였다. 이 방식은 인물의 언행이나 사건의 경과 등을 사실 그대로 적는 방식이다.

## V 한시 감상

### 12 자연을 노래하며

소단원 평가 문제

125쪽

- 01 ②      02 ⑤      03 ④      04 ⑤      05 ⑤  
06 ④

- 01 ① 맥아당, ③ 봉선화, ④ 연습장, ⑤ 정류장
- 02 多少(다소): 많고 적음. 얼마나
- 03 ① ‘기구’에서 봄비가 가늘어 방울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② 형식은 오언 절구이다. ③ 운자는 聲(성)과 生(생)이다. ⑤ 봄이 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 04 ‘於’는 장소나 대상을 나타낼 때는, ‘~에, ~에서, ~에게’로 풀이되지만, 비교를 나타낼 때는 ‘~보다’로 풀이된다.
- 05 寒山(한산): 차가운 계절의 산. 늦가을 산.  
楓林(풍림): 단풍 든 숲.  
霜葉(상엽): 서리 맞은 단풍잎.
- 06 작중 화자는 수레를 타고 산길을 가다 단풍 든 숲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지만, 여행의 목적지나 대상은 알 수 없다.

### 13 이별을 노래하며

소단원 평가 문제

133쪽

- 01 ①      02 ②      03 ④      04 ③      05 ③  
06 ③

- 01 巡(순) 돌다, 回(회) 돌다, 雲(운) 구름, 康(강) 편안하다
- 02 因緣(인연), 抄錄(초록)
- 03 칠언 절구는 주로 ‘4자/3자’ 단위로 끊어 읽는다.
- 04 백발[鶴髮]이 되신 어머니[慈親]께서는 강릉[臨瀛]에 계신데[在].
- 05 작중 화자는 강릉을 떠나 장안(長安)을 향해 떠나고 있다.
- 06 ③ (가)의 화자는 ‘이별의 눈물 때문에 대동강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썼다. ① 운자는 多, 歌,

波이다. ② 형식은 칠언 절구이다. ④ 慈親은 ‘어머니’를 뜻한다. ⑤ 白雲飛는 ‘멀리 떠나는 자식이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함.’을 뜻하는 白雲孤飛의 고사를 인용한 표현이다.

## 14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며

### 소단원 평가 문제

141쪽

- 01 ⑤      02 ④      03 ①      04 ③      05 ③  
06 ②

- 01 [가로] 荷重(하중), [세로] 集荷(집하)  
02 ① 무덤: 塚, ② 누렁개: 黃犬, ③ 늙은이: 老翁, ⑤ 어린아이: 小兒  
03 ② 공간적 배경은 들밭이다. ③ 운자는 隨, 纍, 兒이다. ④ 시간적 배경은 저물녘이다. ⑤ 노인과 손자가 제사를 지내고 오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04 읍시의 함련과 경련 내에서 출구와 대구는 서로 대우를 이룬다. 출구의 花와 서로 대우를 이루는 시어는 대구의 같은 위치에 있는 鳥이다.  
05 집에서 부친 편지[家書]는 만금[萬金]에 해당하네[抵].  
06 이 시는 5자씩 8구로 이루어진 ‘오언 읍시’이다.

### 시험 대비 문제

144~145쪽

- 01 ④      02 ①      03 ①      04 ②      05 ④  
06 ①      07 ②      08 ④      09 ②      10 ①  
11 ③      12 ④      13 ②      14 ②      15 ⑤  
16 해설 참고      17 ⑤      18 ④

- 01 遠(원) 멀다, ① 多(다) 많다, ② 停(정) 머무르다, ③ 康(강) 편안하다, ④ 近(근) 가깝다, ⑤ 抗(항) 막다  
02 [가로] 記錄簿(기록부), [세로] 回顧錄(회고록)  
03 ① 秋(추) 가을, 毫(호) 털, ② 요원, ③ 내진, ④ 붕괴, ⑤ 개탄

### [04~07] 풀이

(가) 봄비가 가늘어 방울지지 않더니, 밤중에 희미하게 소리가 들리네. 눈이 녹아 남쪽 시냇물 불어났으리니, 풀삭은 얼마나 돌아났을까?  
(나) 백발이 되신 어머니께서는 강릉에 계신데, 이 몸은 장안을 향해 홀로 떠나는 심정이며, 고개 돌려 북촌을 때때로 한 번씩 바라보니, 흰 구름 떠가는 하늘 아래로 저녁 산이 푸르네.

- 04 雪盡(설진): 눈이 모두 녹음.

- 05 밤중[夜中]에 희미하게[微] 소리[聲]가 들리네[有].

- 06 鶴髮(학발): 두루미의 깃털처럼 희다는 뜻으로, 하얗게 센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이르는 말.

- 07 ㄱ - (가)의 제목은 ‘春興’이다. ㄴ - (나)의 주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다.

### [08~13] 풀이

(가) 멀리 늦가을 산을 오르자니 돌길이 비탈져 있고, 흰 구름 피는 곳에 인가가 있네. 수레를 세우고 앉아 저 물녘 단풍 숲을 즐기니, 서리 맞은 단풍잎이 이월 봄 꽃보다 붉도다.

(나) 국도는 파괴되었어도 산하는 남아 있는데, 도성에 봄이 오니 초목이 무성하네. 시절을 느끼니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고, 이별을 한스러워하니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하네. 봉화가 석 달 동안 이어지니, 집에서 부친 편지는 만금에 해당하네. 흰머리는 굵을수록 더욱 짧아지니, 도무지 동곳을 이겨 낼 수 없겠네.

- 08 ㉠ 돌길, ㉡ 이월 봄꽃, ㉢ 무성하다, ㉣ 동곳

- 09 서리 맞은 단풍잎[霜葉]이 이월[二月] 봄꽃[花]보다[於] 붉도다[紅].

- 10 (나)의 운자는 ‘深(심), 心(심), 金(금), 簪(잠)’이다.

- 11 밑줄 친 부분은 ‘花濺淚’를 변안한 것이다.

- 12 (가)는 寒山, 楓林, 霜葉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알 수 있고, (나)는 城春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 수 있다.

- 13 ① 가을 산을 표현하였다. ③ 시의 배경이 어촌인지는 시를 통해 알 수 없다. ④ ‘家書[집에서 부친 편지]’라는 시어로 보아 작자는 가족과 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해당 내용은 시에 나와 있지 않다.

### [14~18] 풀이

(가) 비 갠 긴 독에는 풀빛이 짙은데, 남포에서 그대를 전송하니 슬픈 노래 북받치네. 대동강 물은 어느 때에 다 마를까?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지네.

(나) 흰 개가 앞서가고 누렁개가 따라가는데, 들밭 잡초 사이로 무덤이 연이어 있네. 노옹이 제사 끝낸 뒤 발사 사이 길로, 저물녘 취해서 돌아오는데 어린아이가 부축하네.

- 14 ㉠ 우혈, ㉡ 룡파, ㉢ 제파, ㉣ 일모

- 15 시에서 ‘돛단배’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① 풀 - 草, ② 둑 - 堤, ③ 남포 - 南浦, ④ 대동강 - 大同江

- 16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강물에 더해지기 때문이다.

- 17 어린아이[小兒]가 부축하네[扶].

- 18 ① ‘4자/3자’로 띄어 읽는다. ② 운자는 기구, 승구, 결구의 끝에 있다. ③ 작자는 슬픔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⑤ 전쟁으로 피폐해진 시대의 비극을 이야기하였다.

## VI 전통문화와 역사 인식

### 15 우리의 명절

#### 소단원 평가 문제

155쪽

- 01 ⑤    02 ③    03 ④    04 ①    05 ①  
06 ④

- 01 ① 배척, ② 작금, ③ 분초, ④ 확산, ⑤ 줄고  
02 ㄱ - 연, ㄴ - 집, ㄷ - 해, ㄹ - 연  
03 茶禮(차례), 歲粧(세장), 歲拜(세배) 등의 단어를 통해 설날의 풍속임을 알 수 있다. ④ 元日(원일): 한 해의 으뜸이 되는 날로, 설날을 가리킴. ① 추석, ② 단오, ③ 한식, ⑤ 동지  
04 큰[大] 부[部]의[之] 뜰[庭]에 모여[集].  
05 '세속에서 秋夕이라고 칭하고, 또 嘉排라고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秋夕(추석)과 嘉排(가배)가 같은 의미를 알 수 있다. ② 신라, ③ 왕녀, ④ 육부, ⑤ 적마  
06 진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접한 것이다.

### 16 단군 신화

#### 소단원 평가 문제

163쪽

- 01 ②    02 ②    03 ④    04 ③    05 ③

- 01 帥(수) 장수, 師(사) 스승  
02 之는 '그곳'으로 풀이된다. 之는 환인이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곳, 즉 '삼위태백'을 가리킨다.  
03 함께[與] 혼인[婚]할[爲] 사람이 없었다[無].  
04 而是 문맥상 '그리고'의 의미로 쓰였다.  
05 인간 세상의 삼백육십여 가지 일을 주관한 것은 환인이 아니라 '환웅'이다.

### 17 발해고서

#### 소단원 평가 문제

171쪽

- 01 ④    02 ③    03 ③    04 ④    05 ①  
06 ⑤    07 高麗

- 01 [가로] 修飾(수식), [세로] 編修(편수)  
02 항상[常(상)] 평준하게[平(평)] 하기 위한 창고[倉(창)].

- ① 둔전, ② 돌궐, ④ 제주도, ⑤ 고구려

- 03 고 씨[高氏]가 북쪽[北]에[于] 살다[居].  
04 '마땅히 그 삼국의 역사가 있어야 해서 고려가 그것[之]을 편찬하였으니'로 풀이되므로 之가 三國史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06 대 씨가 그 북쪽을 소유하여 발해라고 하였으므로, 발해 왕족의 성씨는 大氏임을 알 수 있다. ① 고씨, ② 부여 씨, ③ 박씨, ④ 김씨  
07 유득공은 고려가 남북국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며 고려를 비판하였다.

#### 시험 대비 문제

174~175쪽

- 01 ①    02 ④    03 ②    04 ②    05 ③  
06 ①    07 ③    08 ③    09 ⑤    10 ①  
11 ③    12 ④    13 ④    14 ③    15 ④  
16 ④    17 ②

- 01 ① 何(하) - 賀(하), ② 新(신) - 年(년), ③ 契(계) - 梁(량), ④ 神(신) - 禪(선), ⑤ 散(산) - 謹(근)  
02 集(집) 모이다, ① 今(금) 이제, ② 中(중) 가운데, ③ 男(남) 남자, ④ 散(산) 흩어지다, ⑤ 拙(졸) 서툴다  
03 [가로] 染色(염색), [세로] 汚染(오염)  
[04~09] 풀이

(가) 서울 풍속에, 새해에 가묘를 찾아뵙고 제사를 행하니, (이것을) '차례'라고 하고, 남녀 중에 나이가 적고 (항렬이) 낮고 어린 사람들이 모두 새 옷을 입으니, (이것을) '세장'이라고 하며, 친척과 웃어른을 찾아뵙니, (이것을) '세배'라고 한다.

(나)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었으니, 자주 하늘 아래 뜻을 두어 사람이 사는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하였다.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고, 가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삼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으니, 그곳을 신시라 불렀고, 이 분은 황웅 천왕이라 불렀다.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려서 농사를 주관하고, 운명을 주관하고, 병을 주관하고, 형벌을 주관하고, 선악을 주관하니, 무릇 인간 세상의 삼백육십여 가지 일을 주관하였으며,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 04 數(수)는 '자주'라는 뜻으로 쓰이면 '삭'으로 읽는다.  
05 모두[皆] 새[新] 옷[衣]을 입다[着].  
06 ① 세배, ② 세월, ③ 세수, ④ 원일, ⑤ 원단  
07 ③은 환웅이 했던 일이다.

### [10~13] 풀이

- (가) 웅녀가 함께 혼인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매번 신단수 아래에서 잉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빌었다. 환웅은 이에 임시로 (사람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하고, (웅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단군왕검'이라 부른다.
- (나) 옛날에 고 씨가 북쪽에 살아 고구려라 하였고, 부여 씨가 서남쪽에 살아 백제라 하였으며, 박·석·김 씨가 동남쪽에 살아 신라라 하였으니, 이를 삼국이라 이른다. 마땅히 그 삼국의 역사가 있어야 해서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였으니 옳다.

10 ㉠ 매번, ㉡ ~에, ㉢ 이것, ㉣ 편찬하다

11 부여 씨[扶餘氏]가 서남쪽[西南]에[于] 살았다[居].

12 ④ 웅녀의 형제 관계는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① 기도 내용: 잉태할 수 있기를 기원함. ② 기도 장소: 신단수 아래. ③ 혼인 상대: 임시로 사람으로 변한 환웅. ⑤ 아들의 호칭: 단군왕검.

13 ㄷ - 삼국 시대에 고구려는 한반도의 북쪽에 있었다.

### [14~17] 풀이

- (가) 세속에서 추석이라고 칭하고, 또 가배라고도 한다. 삼국사를 살펴보면 신라의 유리 이사금이 왕의 딸 두 사람으로 하여금 6부의 여자들을 나누어 거느리게 하여, 7월 보름으로부터 큰 부의 뜰에 모여 길쌈을 하되, 을야에 멈추게 하였다. 팔월 보름에 이르러 그 공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진 사람들은 술과 음식을 차려서 이긴 사람들에게 사례하였다. 이때에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가 모두 행해지니, 그것을 가배라 이른다.
- (나) 고려가 발해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았으니, 고려가 (세력을) 떨치지 못했음을 알겠다. <중략> 부여 씨가 망하고 고 씨가 망함에 이르러 김 씨가 그 남쪽을 소유하였고, 대 씨가 그 북쪽을 소유하여 발해라 하니, 이를 남북국이라 이른다. 마땅히 그 남북국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지 않았으니 잘못이다. 무릇 대 씨는 누구인가? 바로 고구려의 사람이다. 그가 소유한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고구려의 땅이다.

14 진[負] 사람들[者]은 술[酒]과 음식[食]을 차렸다[置].

15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를 뜻한다.

16 ㉡ 고려가 그것[之]을 편찬하지 않았다. ㉢ 바로 고구려의[之] 사람이다.

17 ① 嘉排는 삼국사에 기록되어 있다. ③ 추석의 유래가 산업 구조의 변화와 관련 있다는 설명은 본문에 없다. ④ 고려와 북방 민족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발해의 왕족이 고구려 왕족의 직계 후손이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VII 철학 고전 읽기

### 18 논어

소단원 평가 문제

185쪽

- 01 ①      02 ④      03 克己復禮      04 ④  
05 ④      06 ②

- 01 ① 則(즉): ~하면, ② 以(이): ~로써, ③ 而(이): 그리고, 그러나, ④ 與(여): ~와 더불어, ⑤ 若(약): 만약
- 02 朝(조)는 보통 '아침'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朝廷(조정)'의 뜻으로 쓰였다.
- 03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가는 것, 즉 克己復禮(극기복례)가 仁(인)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04 인[仁]을 행하는[爲] 것은 내[己]에게 달려 있으니[由].
- 05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할 것이 兵, 다음이 食이고, 마지막으로 信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요한 순서로 놓으면 '信 - 食 - 兵'이 된다.
- 06 자공은 공자에게 정치[政]에 대해 물었고, 공자는 이에 대해 답하였다.

### 19 맹자

소단원 평가 문제

193쪽

- 01 ④      02 ④      03 ②      04 ⑤      05 ⑤  
06 ④

- 01 ㉠ 猛(맹) 사납다, ㉡ 促(촉) 재촉하다
- 02 쳐서[搏而] 그것[之]을 튀어 오르게[躍] 하면.
- 03 사람[人]은 선하지[善] 않음[不]이 있지[有] 않다[無].
- 04 放(방) 방탕하다, 辟(벽) 편벽되다, 邪(사) 사악하다, 侈(치) 사치하다.
- 05 하지[爲] 않음[不]이 없을[無] 것이다[已].
- 06 ㉡의 바로 뒤에서 '이것은 백성[民]을 그물질하는[罔] 것'이라고 하였다.

### 20 도덕경 · 장자

소단원 평가 문제

201쪽

- 01 ③      02 水      03 ①      04 ④      05 ②  
06 ①

- 01 ㄱ - 法은 여기서 '본받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ㄴ - 人,



地, 天, 道, 自然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 02 '최상[上]의 선[善]은 물[水]과 같다[若].'로 풀이한다. 뒤 문장의 내용을 통해 善의 의미를 물[水]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3 여러 사람[衆人]이[之] 싫어하는[惡] 곳[所]에 머문다[處].
- 04 ㉠ 베다, ㉡ 멈추다, ㉢ 이유, ㉣ 명령하다
- 05 枝(지) 가지, 葉(엽) 잎
- 06 ㉣의 바로 앞에 '재목이 아니기 때문에[以不材]'라는 말이 있다. 즉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 시험 대비 문제

204~205쪽

- |      |      |      |      |      |
|------|------|------|------|------|
| 01 ㉡ | 02 ㉠ | 03 ㉣ | 04 ㉠ | 05 ㉠ |
| 06 ㉠ | 07 ㉢ | 08 ㉡ | 09 ㉠ | 10 ㉡ |
| 11 ㉣ | 12 ㉢ | 13 ㉢ | 14 ㉢ | 15 ㉢ |
| 16 ㉠ |      |      |      |      |

- 01 錯覺(착각), 觸覺(촉각), 感覺細胞(감각세포)
- 02 見(견) 보다 - 闕(열) 보다, 終(종) 끝나다 - 了(료) 끝나다, 猛(맹) 사납다 - 盟(맹) 맹세하다, 退(퇴) 물러나다 - 逐(축) 쫓다
- 03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 04 마구간이 불탔는데, 공자께서 퇴청하셔서 "사람[人]이 다 찼[傷]느냐[乎]?" 하시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
- 05 자신(자기의 사욕)을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을 행하는 것이니, 하루 동안이라도 자신을 이겨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인(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으니,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겠는가?

#### [06~08] 풀이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식량을 충분히 하고 군사를 충분히 하고 백성이 신뢰하게 하는 것이다." 자공이 말했다. "반드시 부득이해서 버려야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사를 포기해야 한다." 자공이 말했다. "반드시 부득이해서 버려야 한다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 예로부터 (사람은) 모두 죽음이 있지만(죽지만)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 06 ㉡ 버리다, 포기하다, ㉢ ~로부터
- 08 앞에서 군사[兵]를 포기하라고 하였고, 뒤에서는 백성의 믿음[信]이 없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食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 [09~10] 풀이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으니, 사람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며, 물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음이 없다. 지금 무릇 물을 쳐서 그것을 튀어 오르게 하면 (물로 하여금) 이마를 넘게 할 수도 있으며, (물살을 막아) 격렬하게 하여 그것을 흐르게 하면 (물로 하여금) 산에 있게 할 수도 있으나,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 09 ㉠ 猶(유)는 여기서 '같다'의 의미로 쓰였다.
- 10 이 글은 사람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사람[人]은 선하지[善] 않음이[不] 없음[無有]을 말하고 있다.

#### [11~12] 풀이

진실로 향심이 없다면 방탕함, 편벽됨, 사악함, 사치함을 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죄에 빠짐에 이른 뒤에 (죄에) 따라서 그를 형벌한다면 이것은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까닭으로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 주되, 반드시 (백성으로 하여금) 위로는 부모님을 섬기는 데 충분하게 하며, 아래로는 처자식을 기르는 데 충분하게 하여, 풍년에는 일 년 내내 배부르게 하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 11 ㉢ 罔(망)은 여기서 '그물질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12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明君의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제시된 글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 [13~14] 풀이

(가)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나) 최상의 선(善)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공을) 다투지 않으며, 여러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거의 도(道)에 가깝다.

- 13 人, 地, 天, 道, 自然의 관계를 연쇄법으로 설명하였다.
- 14 (나)의 ㉡은 '잘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善惡'의 善은 '착하다'의 의미이다.

#### [15~16] 풀이

장자가 산속을 가다가 큰 나무가 가지와 잎이 무성한 것을 보았다. 나무를 베는 사람이 그 곁에 멈추었으나 (그 나무를) 취하지 않았다. (장자가) 그 이유를 물으니, (나무를 베는 사람이) 말하였다. "쓸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장자가 말하였다. "이 나무는 재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천 년(타고난 수명)을 마칠 수 있게 되었구나." 선생님께서 산에서 나오셔서 옛 친구의 집에서 머무르시니, 친구가 기뻐하며 어린 종에게 명하여 거위를 잡아 삶도록 하였는

데, 어린 종이 물었다. “그중 한 마리는 잘 울고, 그중 한 마리는 잘 울지 못하니, 청컨대 어느 쪽을 잡을까요?” 주인이 말하였다. “잘 울지 못하는 놈을 잡아라.”

- 15 命은 ‘목숨’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명령하다’로 풀이한다.  
16 ‘天年’은 ‘타고난 수명을 제대로 다 사는 나이’를 뜻한다.

## VIII 한문 산문 감상

### 21 온달

#### 소단원 평가 문제

215쪽

- 01 ㉠ 02 ㉢ 03 ㉢ 04 ㉠ 05 ㉠  
06 ㉢

- 01 ㉠ 평강왕, ㉠ 상부 고 씨, ㉠ 필부(평범한 사람), ㉠ 지존(지극히 존귀한 존재, 즉 평강왕을 가리킴.)  
02 ‘破衫弊履, 往來於市井間[떨어진 옷과 해진 신으로 시장 사이를 오가다.]’으로 보아 불품없는 옷차림으로 돌아다녔음을 알 수 있다.  
03 ㉠ ‘容貌’은 ‘용모’로 읽는다. ㉡ ‘可笑’의 대상은 ‘溫達(온달)’이다. ㉣ ‘則’은 ‘~하면’의 뜻이다. ㉤ ‘粹然’은 ‘순수한 모양’을 뜻한다.  
04 항상[常] 음식[食]을 구걸[乞]해서[以] 어머니[母]를 봉양했다[養].  
05 食言(식언)이란 한번 입 밖에 낸 말을 도로 입속에 넣는다는 뜻으로, 약속한 말대로 지키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大王(대왕)은 공주를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상부 고 씨에게 시집가라고 하며 말을 바꾸었다.  
06 공주는 ‘歸之愚溫達[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이라는 대왕의 처음 명령을 따르기로 하고 상부 고 씨에게 시집가라는 명령을 거절한 것이다. ㄷ과 ㄹ은 제시된 글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 22 두 아들에게

#### 소단원 평가 문제

223쪽

- 01 ㉠ 02 ㉢ 03 ㉠ 04 ㉠ 05 ㉤

- 01 稍勝(초승): 조금 나아지다.

- 02 勿(물)과 無(무)는 ‘~하지 말라’와 같이 금지의 뜻을 나타낸다.  
03 尤當何如是 ‘더욱이 마땅히 어찌 되겠느냐?’라는 뜻이다. 즉 글을 배우지 않고 예의가 없다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04 “책을 읽거나 몸가짐을 삼가는 것을 잘한다고 들으면 이로써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05 부인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은 제시된 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ㄹ은 ‘預關此心耳’를 통해 알 수 있다.

### 23 잡설

#### 소단원 평가 문제

231쪽

- 01 ㉢ 02 ㉤ 03 ㉢ 04 ㉠ 05 ㉤  
06 ㉠

- 01 與(여)는 ‘~와’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授(수) 주다’와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02 항상[常] 있는[有] 것만은 아니다[不]. 즉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03 ㉣의 食은 ‘먹다’의 뜻으로 쓰여 ‘식’으로 읽고, ㉣의 見은 ‘드러나다’의 뜻으로 쓰여 ‘현’으로 읽는다.  
04 ㉣는 ‘어찌 그 말이 천 리 갈 수 있기를 바라겠는가?’라는 뜻이다. 즉 이것은 ‘천 리를 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05 千里馬: 천 리를 갈 수 있는 말. 良馬: 좋은 말. 名馬: 이름난 말.

#### 시험 대비 문제

234~235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해  
설 참고 16 ㉠

- 01 ㉡ 努(노) 힘쓰다 - 力(력) 힘, 힘쓰다, ㉠ 職(직) 직분 - 識(식) 알다, ㉢ 愚(우) 어리석다 - 智(지) 지혜, ㉣ 弊(폐) 해지다 - 幣(폐) 화폐, 비단, ㉤ 每(매) 매양 - 侮(모) 업신여기다  
02 ㉡ 出馬(출마): 말을 타고 나감. 선거에 입후보함. ㉠ 구박, ㉢ 기마, ㉣ 양마, ㉤ 소란  
03 ㉢ 桑田碧海(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흥안지례 ㉡ 혼정신성 ㉣ 천고마비 ㉤ 사주단자

**[04~09] 풀이**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 사람이다. 얼굴 생김새는 볼품 없어 옷을 만하였으나 속마음은 순수하였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항상 음식을 구걸하여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떨어진 옷과 해진 신으로 시정 사이를 오가니 그때 사람들이 그를 지목하여 바보 온달이라고 하였다.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여 왕이 놀리며 말했다. “너는 항상 울어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자라면 반드시 사대부의 아내는 될 수 없을 것이요, 마땅히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야겠다.”라고 하며 왕이 매번 그것을 말하였다. 딸의 나이 열여섯 살에 이르러 상부(上部)의 고 씨(高氏)에게 시집을 보내고자 하니, 공주가 마주 대하여 말하였다.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바보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하시더니, 지금 무슨 까닭으로 전에 하신 말씀을 바꾸십니까? 필부도 오히려 식언을 하고자 하지 않거늘 하물며 지존께서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하기를 ‘임금은 실없는 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대왕의 명령은 잘못되었으니, 저는 감히 (그 명령을) 공경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 04** 目(목)은 여기서 ‘지목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05** 大王(대왕)과 至尊(지존)은 모두 平岡王(평강왕)을 가리킨다.
- 06** 前言(전언) 즉 대왕이 전에 한 말은 “너는 반드시 바보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다[汝必爲溫達之婦.]”이다.
- 07** 필부도 식언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 식언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왕에게 ‘신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 것이다.
- 08** 왕이 ‘상부 고 씨에게 시집가라.’고 한 명령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은 ‘온달에게 시집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09** ㄱ은 제시된 글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10~13] 풀이**

편지가 오니 마음에 위안이 된다. 둘째 아이는 필법(筆法)이 조금 나아지고 문리 또한 진보가 있으니, 나이의 덕분이나? 아니면 혹 때에 맞게 배우고 익혀서 그런 것이냐? 절대로 자포(자포자기)하지 말고, 뜻을 다하여 부지런히 힘써서 책을 읽고, 책을 베끼고, 글을 짓는 일에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라. 폐족이면서 글을 배우지 않고 예의가 없다면 더욱이 마땅히 어찌되겠느냐? 보통 사람에 비해 모름지기 백배의 공력을 더하여야만 겨우 사람 축에 들게 될 것을 헤아려 볼 수 있을 뿐이다. 나는 고생이 매우 많다. 그러나 너희들이 ‘책을 읽거나 몸가짐을 삼가는 것’을 잘한다고 들으면 이로써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 큰 아이는 모름지기 4월 초열흘이 지난 뒤에 말을 사서 타고 오도록 하여라. 그러나 이별의 슬픈 마음이 벌써 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 10** 勝(승)은 ‘나아지다’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優勝(우승)’의 勝(승)과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 11** 凡人(범인):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 13** 정약용은 편지에서 자신의 가문을 ‘廢族(폐족)’이라고 하였다.

**[14~16] 풀이**

세상에 백락이 있는 뒤에 천리마가 있을 수 있다. 천리마는 항상 있으나 백락은 항상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훌륭한 말이 있더라도 다만 노예의 손에 치욕을 당하고 말구유와 마판 사이에서(마구간에서) (평범한 말과) 나란히 죽어서 천리마라 불리지 못한다. 말 중에 천리를 가는 것은 한 번 먹을 때에 혹 곡식 한 섬을 다 먹기도 하거늘, 말을 먹이는 사람은 그 말이 천 리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먹인다. 이 말은 비록 천 리를 갈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먹는 것이 배부르지 않고 힘이 부족하여 재주와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또 평범한 말과 같아지고자 하여도 같아질 수 없으니, 어찌 그 말이 천 리를 갈 수 있기를 바라겠는가? 그것을 채찍질하기를 그에 맞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먹이기를 그 재능을 다할 수 없게 하며, 울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채찍을 잡고 다가가서 말하기를 “천하에 좋은 말이 없다.”라고 하니 아! 참으로 (훌륭한) 말이 없는 것인가? 참으로 (훌륭한) 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가?

- 14** 見(견)은 여기서 ‘드러나다’의 뜻으로 쓰였으므로 ‘현’으로 읽는다.
- 15** 세상에는 뛰어난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을 지닌 사람이 없는 것이다.
- 16** 千里馬(천리마), 名馬(명마), 良馬(양마)는 모두 뛰어난 능력을 지닌 말로, 뛰어난 인재를 가리킨다.